삼국연의

三國演義 · 모종강본

제6권 (제61회 ~ 제72회)

나관중 (羅貫中, 약 1330–1400)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2

책 정보

원전

나관중 『삼국연의(三國演義)』 모종강본(毛宗崗本, 1660년대 청대),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三國演義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2

번역 정책

- 인명·지명·관직은 한국 한자음(劉備 → 유비, 涿郡 → 탁군)

- 자·호·별명은 본명으로 통일(玄德 → 유비, 翼德 → 장비, 雲長 → 관우)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 "且說" → "한편"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61회 — 조운이 강에서 아두를 탈취하고, 손권이 편지를 남겨 노망을 물리치다 6

제62회 — 부관을 취하여 양고가 머리를 바치고, 낙성을 공격하여 황위가 공을 다투다 25

제63회 — 제갈량이 방통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고, 장익덕이 엄안을 의리로 풀어주다 43

제64회 — 공명이 계책을 세워 장임을 잡고, 양부가 병사를 빌려 마초를 격파하다 63

제65회 — 마초가 가맹관에서 크게 싸우고, 유비가 스스로 익주목을 맡다 81

제66회 — 관운장이 홀로 칼을 들고 모임에 나가고, 황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103

제67회 — 조조가 한중 땅을 평정하고, 장료가 소요진에서 위엄을 떨치다 122

제68회 — 감녕이 백 기로 위나라 진영을 습격하고, 좌자가 술잔을 던지며 조조를 희롱하다 141

제69회 — 주역을 점쳐 관로가 기회를 알고, 한나라의 도적을 토벌하다 다섯 신하가 절개를 지키다 160

제70회 — 장비가 지혜로 와구애를 취하고, 노황충이 계책으로 천탕산을 빼앗다 180

제71회 — 대산에서 황충이 매복을 기다려 적을 치고, 한수에서 조운이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이기다..... 200
제72회 — 제갈량이 지혜로 한중을 취하고, 조아만이 병사를 거두어 사곡에서 물러나다 219

제61회 — 조운이 강에서 아두를 탈취하고, 손권이 편지를 남겨 노망을 물리치다

趙雲截江奪阿斗 孫權遺書退老瞞

한편, 방통과 법정 두 사람이 유비에게 권했다. "연회 중에 유장을 살해하십시오. 그러면 서천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내가 처음 촉 땅에 들어왔을 때 아직 은혜와 신의를 세우지 못했으니, 이런 일은 결코 행해서는 안 되오." 두 사람이 몇 번이고 거듭 권했지만, 유비는 끝내 따르지 않았다.

다음 날, 유비는 다시 성 안에서 유장과 연회를 베풀었다. 두 사람은 서로 속마음을 상세히 나누며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 술기운이 한창 오를 무렵, 방통과 법정이 은밀히 상의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 주군께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소." 그러고는 곧장 위연에게 명령하여 연회장으로 올라가 검무를 추게 함으로써 기회를 틈타 유장을 살해하려 했다.

위연이 검을 뽑아 들고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연회 중에 즐길 거리가 마땅치 않으니, 검무를 추며 흥을 돋우고자 합니다." 그러자 방통은 즉시 무사들을 불러 모아 연회장 아래에 줄을 세웠다. 그들은 위연이 손을 쓰기만을 기다리며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위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이때 유장의 장수인 장임 또한 검을 뽑아 들고 춤을 추며 말했다. "검무를 추려면 상대가 있어야 하는 법, 제가 위 장군과 함께 춤을 추겠습니다."

두 사람이 연회석 앞에서 마주 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위연이 유봉을 쳐다보자 유봉 역시 칼을 뽑아 들고 춤을 도왔다. 그러자 유궤, 냉포, 등현이 차례로 칼을 뽑아 들며 말했다. "우리도 함께 춤을 추어 즐거움을 더하겠습니다."

유비는 깜짝 놀라 급히 좌우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우리는 형제로서 만나 통쾌하게 술을 마시고 있을 뿐, 서로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일이 없소. 이곳은 홍문연처럼 음모를 꾸미는 자리도 아닌데 어찌 칼을 휘두른단 말이오? 칼을 거두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베어버리겠소!"

유장 역시 호통을 치며 말했다. "형제들이 모였는데 어찌 칼을 차고 있단 말이오?" 그러고는 시위들에게 명하여 모두 칼을 거두게 했다. 사람들은 모두 어수선하게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비는 장수들을 불러 모아 무대 위로 올린 뒤 술을 내리며 말했다.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난 형제와 같아 큰일을 함께 논의하며 서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있소. 그러니 그대들은 의심하지 마시오." 장수들은 모두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유장도 유비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형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

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즐겁게 술을 마신 뒤 헤어졌다.

유비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 방통을 꾸짖으며 말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불의한 자로 만들려 하려 하는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게." 방통은 탄식하며 물러갔다.

한편, 유장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유궤 등이 말했다. "주군, 오늘 연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셨습니까? 차라리 서둘러 돌아가시는 것이 나중에 화를 면하는 길입니다." 유장이 대답했다. "나의 형님 유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장수들이 다시 말했다. "비록 유비 본인이 그럴 마음이 없다 해도, 그의 부하들은 모두 서천을 차지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유장이 꾸짖었다. "너희들은 나와 유비 사이의 형제 의리를 전혀 모르는구나." 유장은 결국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날마다 유비와 만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갑자기 장로가 병마를 정비하여 가맹관을 침공하려 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유장이 유비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를 막아달라고 청했다. 유비는 흔쾌히 승낙하고, 그날 즉시 본대 군사를 이끌고 가맹관을 향해 떠났다. 유장의 부하 장수들은 유비가 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유장에게 큰 장수들을 시켜 각 관문을 엄중히 지키게 하라고 권했다. 유장은 처음에는 이 말을 듣지 않았으나, 나중에 부하들이 간곡히 권하자 백수도독 양회와 고패 두 사람에게 부수관을 지키게 했다. 유장은 다시 성도로 돌아갔다. 유비는 가맹관에 도착하자 군사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세우는 한편, 백성들에게 널리 은혜를 베풀어 민심을 얻고자 했다.

이미 동오의 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오나라의 군주 손권은 문무백관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고옹이 나아가 말했다.

"유비가 군사를 나누어 험한 산을 넘어 멀리 떠났으니,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군사를 보내 먼저 천구를 가로막아 유비의 퇴로를 끊어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후에 동오의 모든 군사를 일으켜 단번에 형주를 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손권이 말했다.

"그 계책이 참으로 묘하구나!"

한창 의논을 나누던 중, 갑자기 병풍 뒤에서 한 사람이 크게 호통을 치며 나타났다.

"이런 계책을 내놓은 자는 당장 참하라! 감히 내 딸의 목숨을 해치려 드는가?"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바로 오국태였다. 오국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말했다.

"내 평생 딸이 하나뿐인데, 그 아이를 유비에게 시집보냈다. 만약 지금 군사를 움직인다면 내 딸의 목숨은 어찌 되겠느냐!"

이어 손권을 꾸짖었다.

"너는 형님과 아버지가 남긴 가업을 이어받아 팔십일 주를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고작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혈육을 돌보지 않는구나!"

손권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그러고는 곧 신하들을 물러가게 했다. 오국태는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손권은 처마 밑에 서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형주를 언제쯤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손권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장소가 들어와 물었다. "주군, 무엇을 그리 고민하고 계십니까?" 손권이 대답했다. "방금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네." 그러자 장소가 말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지금 믿을 만한 심복 한 명을 뽑아 군사 오백 명만 데리고 형주로 몰래 잠입시키십시오. 그리고 군주에게 밀서를 보내, 오국태께서 위독하시니 친딸을 보고 싶어 하니 밤을 도와 동오로 돌아오라는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유비에게는 평생 아들이 하나뿐이니,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유비는 분명 아두를 맞바꾸기 위해 형주를 내어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마음 놓고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손권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 계책이 참으로 절묘하구려! 내게 주선이라는 자가 있는데, 담력이 아주 뛰어나고 어려서부터 우리 형님을 모시며 잔뼈가 굵은 자라네. 지금 그를 보내면 되겠군." 장소가 당부했다. "절대로 비밀이 새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즉시 출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손권은 주선을 비밀리에 보내 오백 명의 병사를 상인으로 변장시킨 뒤 다섯 척의 배로 나누어 실었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거짓 국서까지 준비해 두었다. 배 안에는 무기를 몰래 숨겨 두었다. 명령을 받은 주선은 형주의 수로를 따라 내려왔다. 주선이 배를 강가에 대고 몰래 형주로 들어가 문지기에게 손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손부인이 주선을 안으로 들여보내자 주선은 비밀 편지를 올렸다. 편지를 읽은 손부인은 어머니 오국태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안부를 물었다.

주선이 절하며 말했다. "어머님께서 병세가 위중하여 밤낮으로 부인만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늦어지면 마지막 얼굴조차 뵙지 못할까 걱정되오니, 부디 아두를 데리고 가서 꼭 한 번 뵙게 해 주십시오."

손부인이 말했다.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멀리 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돌아가려면 먼저 제갈량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움직일 수 있소."

주선이 말했다. "만약 제갈량이 '유비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배에 탈 수 있다'라고 말하면 어찌합니까?"

손부인이 답했다. "말도 없이 떠나면 길을 막는 자들이 생길까 걱정이구려."

주선이 말했다. "강 위에는 이미 탈 배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부인께서 수레를 타고 성을 나가셔야 합니다."

손부인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어찌 당황하지 않았겠는가? 그녀는 일곱 살 된 아들 아두를 수레에 태우고, 서른 명 남짓한 수행원을 거느린 채 칼과 검을 차고 말을 타고 형주성을 떠나 강가로 달려가 배에 올랐다. 성 안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리려 했을 때는 이미 손부인이 사두진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떠난 뒤였다.

주선이 막 배를 띄우려는데, 강가에서 누군가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배를 멈추시오! 손부인께서 떠나시는 길에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 주시오!" 돌아보니 바로 조운이었다. 마침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조운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말 네댓 마리를 이끌고 바람처럼 강가를 따라 달려온 것이었다. 주선이 긴 창을 움켜쥐고 크게 꾸짖었다. "네놈은 누구길래 감히 우리 마님을 막아서느냐!" 주선은 군사들에게 즉시 배를 띄우라고 명령한 뒤, 장수들에게 무기를 꺼내 배 위에 늘어놓게 했다. 바람은 순풍이었고 물살은 빨라, 배들은 순식간에 물결을 따라 떠내려갔다. 조운은 강가를 따라 쫓아가며 소리쳤다. "손부인께서는 마음대로 가시게 두시오! 다만 드릴 말씀이 딱 한 마디 있습니다!"

주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배의 속도만 재촉했다. 조운이 강을 따라 십여 리를 뒤쫓아갔을 때, 문득 강가 모래톱에 어선 한 척이 비스듬히 정박해 있는 것이 보였다. 조운은 말을 버려두고 창을 든 채 어선 위로 뛰어올랐다. 배에는 단 두 사람이 노를 저으며 부인이 타고 있는 큰 배를 뒤쫓고 있었다. 주선이 군사들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하자, 조운은 창으로 화살을 쳐내어 모두 물속으로 떨어뜨렸다. 큰 배와 거리가 한 장 남짓 남게 되자 오나라 병사들이 창으로 마구 찔러댔다. 조운은

작은 배 위에서 창을 내던지고 허리에 찬 청강검을 뽑아 들었다. 그는 창을 헤치며 오나라 배를 향해 몸을 날려 큰 배 위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오나라 병사들은 모두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다.

조운이 선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손부인이 아두를 품에 안고 있었다. 손부인이 조운을 보고 꾸짖으며 말했다. "어찌 이리 무례하단 말이냐!" 조운이 칼을 꽂으며 대답했다. "마님,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어찌하여 제갈장군께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손부인이 말했다.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하여 알릴 겨를이 없었다." 조운이 다시 물었다. "병문안을 가시는 길에 어찌 어린 주인님까지 데려가려 하십니까?" 손부인이 대답했다. "아두는 내 아들이다. 형주에 두고 가면 돌봐줄 사람이 없단 말이다." 조운이 말했다. "마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군께는 이 아이가 유일한 혈육입니다. 제가 당양 장판파의 백만 대군 속에서 이 아이를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가려 하시니, 이게 대체 무슨 도리입니까?" 손부인이 화를 내며 말했다. "네놈은 그저 장막 아래의 무부일 뿐인데, 감히 어찌 내 집안일에 참견하느냐!" 조운이 단호하게 말했다. "마님께서 가시려거든 가시되, 어린 주인님만은 이곳에 남겨두십시오." 손부인이 소리쳤다. "네놈이 도중에 불쑥 배에 올라탄 것을 보니, 분명 딴마음을 품고 있구나!" 조운이 말했다. "만약 어린 주인님을 남겨두지 않으신다면, 저는 설령 만 번을 죽을지언정 마님을 보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손부인은 시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아가 아두를 낚아채려 했으나, 조운이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다. 그 틈을 타 손부인은 조운의 품에서 아두를 빼앗아 배 머리 쪽으로 안고 나갔다. 손부인

은 배를 기슭으로 대려 했으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그렇다고 사람을 해치려니 도리에 어긋날까 두려워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다. 손부인이 시녀들에게 아두를 뺏으라고 소리치자, 조운은 한 손으로는 아두를 꼭 껴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치켜든 채 버티고 서서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한편, 뒤쪽 선실에서는 주선이 키를 붙잡고 오로지 배를 물로 띄워 보내는 데만 몰두했다. 바람은 순조롭고 물살은 빨라 배는 어느덧 강 한가운데로 흘러가 버렸다. 조운은 혼자서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두를 지켜낼 수는 있었으나, 배를 움직여 기슭으로 다가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하류 쪽 항구에서 열댓 척의 배가 일렬로 늘어서서 나타나더니, 배 위에서 깃발을 휘두르고 북을 울리기 시작했다. 조운은 속으로 '이번에 오나라의 계책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때 앞장선 배 위에서 한 장수가 긴 창을 손에 쥐고 큰 소리로 외쳤다. "형수님, 조카를 두고 가시다니요!" 알고 보니 장비가 순찰을 돌다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유강협구로 달려왔는데, 마침 오나라 배들과 딱 마주친 것이었다. 장비는 급히 그 길을 가로막았다.

그때 장비가 칼을 들고 오나라 배 위로 뛰어올랐다. 주선은 장비가 배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칼을 들어 맞서려 했으나, 장비가 가볍게 칼을 휘둘러 그를 베어 넘겼다. 장비는 주선의 머리를 베어 손부인 앞으로 던졌다. 손부인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숙부께서는 어찌 이리 무례하게 구십니까?" 장비가 말했다. "형님을 중히 여기지 않고 제멋대로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 이것이 바로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러자 손부인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병이 위중하여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만

약 형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린다면 큰일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저를 돌려보내 주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강물에 뛰어들어 죽겠습니다!"

장비와 조운이 의논하였다. "만약 부인을 억지로 몰아붙여 죽게 한다면, 그것은 신하로서 도리가 아니다. 그저 아두를 잘 보호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게만 하자." 그러고는 손부인에게 말했다. "우리 형님은 한 나라의 황숙이시니, 형수님께서도 결코 부끄러운 처지가 아니실 겁니다. 오늘 헤어지지만, 만약 형님의 은혜와 의리를 생각하신다면 하루빨리 돌아오십시오." 말을 마친 장비는 아두를 품에 안고 조운과 함께 배로 돌아갔으며, 손부인의 배 다섯 척을 그대로 보내주었다.

후대의 사람들이 조운을 찬양하며 지은 시가 이러하다.

"옛날 당양에서 주군을 구하더니, 오늘에는 큰 강을 향해 몸을 던졌구나. 배 위의 오나라 병사들은 모두 간이 떨어질 듯 놀랐으니, 자룡의 용맹함은 세상에 비길 데가 없도다!"

또한 장비를 찬양하는 시도 있다.

"장판교 근처에서 노기등등하게 호통치니, 한 번의 호랑이 같은 포효에 조조의 군사가 물러갔네. 오늘 아침 강 위에서 위기에 처한 주군을 도우니, 그 이름 역사에 만 년 동안 전해지리라."

두 사람은 기뻐하며 배로 돌아갔다. 얼마 가지 않아 제갈량이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마중을 나왔다. 아두를 무사히 되찾은 것을 본 제갈

량은 크게 기뻐했다. 세 사람은 함께 말을 타고 돌아갔다. 제갈량은 곧바로 서신을 써서 가맹관에 있는 유비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한편, 손부인이 오나라로 돌아간 일은 이와 같다. 장비와 조운이 주선을 죽이고 강을 가로막아 아두를 되찾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손권이 크게 노하며 말했다. "내 누이가 이미 돌아갔으니 저들과는 이제 남남이다. 주선을 죽인 원수를 어찌 갚지 않을 것인가!" 손권은 문무백관을 불러 모아 의논하며,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막 군사를 움직이려 논의하던 중, 갑자기 조조가 40만 대군을 일으켜 적벽에서의 원수를 갚으러 내려온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손권은 크게 놀라 형주 공격을 일단 멈추고, 조조의 침공을 막아낼 방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때 장사 장굉이 병을 핑계로 고향에 내려갔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서신이 도착했다. 손권이 서신을 뜯어보니, 그 안에는 손권에게 말릉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말릉은 산천의 형세가 제왕의 기운을 품고 있으니, 속히 그곳으로 옮겨 만세의 기틀을 다지라는 것이었다.

손권은 글을 읽고는 눈물을 흘리며 신하들에게 말했다. "장굉(張紘)이 나에게 말릉으로 거처를 옮기라고 권했으니, 내가 어찌 그 말을 따르지 않겠는가?" 그러고는 즉시 건업으로 도읍을 옮기도록 명하고, 석두성을 쌓았다.

여몽이 나아가 말했다. "조조의 군대가 오고 있으니, 유수구에 보루를 쌓아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장수들이 모두 말했다. "적을 상륙시켜 공격하면 될 일인데, 맨발로 배에 뛰어들면 그만이지 어찌 성을 쌓는 수고를 합니까?"

여몽이 대답했다. "전쟁에는 유리한 상황도 있고 불리한 상황도 있으며, 싸움에 반드시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갑자기 적을 만나 보병과 기병이 몰아친다면, 사람들은 물가에 이를 겨를조차 없을 텐데 어떻게 배에 탈 수 있겠습니까?"

손권이 말했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기는 법이다. 자명(여몽)의 견해가 매우 멀리 내다보는구나."

손권은 곧 수만 명의 군사를 보내 유수 보루를 쌓게 했다. 밤낮없이 공사를 진행한 끝에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쳤다.

한편, 조조는 허창에서 그 위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었다. 장사 동소가 나아가 말했다. "예로부터 신하 중에 승상만큼 공을 세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공이나 여망(呂望)이라 할지라도 승상께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30여 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전장을 누비며 흉악한 무리들을 소탕하고 백성들의 해악을 없애 한나라 황실을 보존하셨으니, 어찌 일반 신하나 재상들과 같은 반열에 두겠습니까? 마땅히 위공의 지위에 오르게 하고 '구석(九錫)'을 내려 그 공덕을 드높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석'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레와 말을 하사함. 둘째, 의복을 하사함. 셋째, 현악 연주를 허락함. 넷째, 붉은 문을 가진 집을 하사함. 다섯째,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함. 여섯째, 호분군을

거느리게 함. 일곱째, 도끼와 월도를 하사함. 여덟째, 활과 화살을 하사함. 아홉째, 검은 기장으로 빚은 술과 옥으로 만든 술잔을 하사함.

시중 순욱이 말했다. "안 됩니다. 승상께서는 본래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 황실을 보좌하셨으니, 마땅히 충성스럽고 곧은 뜻을 지키고 겸손하게 물러나는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군자는 덕으로써 사람을 사랑하는 법인데, 이와 같은 처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안색이 급변했다. 동소가 말했다. "어찌 한 사람의 의견 때문에 모두의 염원을 가로막으려 하십니까?" 그러고는 다시 상소를 올려 조조를 위공으로 높이고 구석을 내릴 것을 청했다. 순욱은 탄식하며 말했다. "내 오늘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조조는 순욱이 자신을 돕지 않는 것을 보고 깊이 원망하며, 그가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건안 17년 겨울 10월, 조조가 대군을 일으켜 강남으로 내려갈 때 순욱에게 함께 갈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조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순욱은 병을 핑계로 수춘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가 사람을 보내 음식 한 상자를 보냈다. 상자 위에는 조조가 직접 쓴 봉인이 되어 있었다. 순욱이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다. 순욱은 그 속에 담긴 뜻을 깨닫고, 결국 독을 마셔 쉰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후세의 어떤 이가 시를 지어 그를 탄식하며 이렇게 읊었다.

"문약의 재능은 천하에 드높았으나, 권력의 문턱에서 발을 헛디디니 가련하구나. 후세 사람들이 그를 훗날의 유후에 비유할지라도, 죽음에 이르러 한나라 임금을 뵐 면목이 없으리라."

그의 아들 순운이 슬픈 마음을 담아 조조에게 소식을 전했다. 조조는 몹시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고, 순욱을 정중히 장사 지내준 뒤 '경후'라는 시호를 내렸다.

한편, 조조의 대군이 유수구에 이르자, 먼저 조홍에게 삼만 명의 철갑 기병을 맡겨 강가까지 정찰하게 했다. 정찰병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강줄기를 따라 멀리 바라보니 깃발이 수없이 휘날리고 있어, 군사들이 정확히 어디에 모여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조조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여 유수구 입구에 진을 쳤다. 조조가 백여 명의 부하를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가 멀리 바라보니, 손권의 전선들이 부대별로 나뉘어 차례대로 늘어서 있었다.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병기들이 번쩍였다. 그중 커다란 배 위, 푸른 비단 차일 아래 손권이 앉아 있었고, 좌우로 문무백관이 시립해 있었다. 조조가 채찍으로 그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식을 낳으려면 마땅히 손권과 같아야 하거늘, 유경승(유표)의 자식들은 돼지나 개와 다를 바가 없구나!"

갑자기 큰 소동이 일더니 남쪽의 배들이 일제히 달려왔다. 유수구 안에서 또 다른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며 조조의 군대를 몰아붙였다. 조조의 군사들은 뒤로 물러나 도망치기 바빴고, 아무리 소리쳐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때 수천 명의 기병이 산기슭까지 들이닥쳤는데, 그 선두에 선 사람은 푸른 눈에 보랏빛 수염을 기른 자였다. 사람들은 그가

바로 손권임을 알아차렸다. 손권이 직접 기병대를 이끌고 조조를 치러 온 것이었다.

조조가 크게 놀라 급히 말머리를 돌리려 할 때, 오나라의 대장 한당과 주태가 말을 타고 곧장 달려들었다. 조조의 뒤에서는 허저가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두 장수를 막아선 덕분에, 조조는 겨우 몸을 빼내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허저는 두 장수와 서른 합을 겨루고 나서야 겨우 돌아왔다. 진영으로 돌아온 조조는 허저에게 큰 상을 내리는 한편, 다른 장수들에게는 호통을 쳤다.

"적을 마주하자마자 먼저 퇴각하여 나의 기세를 꺾다니! 앞으로도 이와 같다면 모두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그날 밤 삼경 무렵, 갑자기 진영 밖에서 엄청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조조가 급히 말에 올라타 보니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이미 오나라 군사들이 대진을 습격해 들어오고 있었다. 싸움은 날이 밝을 때까지 이어졌고, 조조의 군사는 50여 리를 후퇴한 뒤에야 진을 쳤다. 조조는 마음이 답답하여 틈틈이 병서를 읽으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때 정욱이 다가와 말했다. "승상께서는 병법을 잘 아시면서 어찌 '병법은 신속함을 귀하게 여긴다'는 원칙을 모르십니까? 승상께서 군사를 일으킨 지 너무 오래 지체되는 바람에 손권이 대비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유수구 입구에 우를 쌓아 방비하고 있으니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차라리 군사를 물려 허창으로 돌아가셔서 새로운 계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욱이 나아갔다. 조조가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는데, 갑자기 파도가 몰아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수만 마리의 말이 달려오는 듯한 기세였다. 조조가 급히 눈을 떠 살펴보니, 넓은 강 한가운데서 붉은 해 한 덩이가 솟구쳐 올라 눈이 부시도록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늘 위에도 두 개의 태양이 서로 마주 보고 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강 한가운데 있던 붉은 해가 하늘로 솟구치더니, 진영 앞 산속으로 곤두박질쳤다. 그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 같았다. 조조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알고 보니 군막 안에서 꿈을 꾼 것이었다. 막사 앞에서는 군사가 정오가 되었음을 보고했다. 조조는 말과 장비를 갖추게 한 뒤, 직접 오십여 기의 기병을 이끌고 진영 밖으로 달려 나갔다. 꿈에서 보았던 낙일산 근처에 이르러 살펴보니, 갑자기 한 무리의 인마가 나타났다. 그 선두에는 금빛 투구와 금빛 갑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조조가 자세히 보니 바로 손권이었다.

손권은 조조가 오는 것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산 위에서 말의 고삐를 멈춰 세우더니, 채찍으로 조조를 가리키며 말했다.

"승상은 이미 중원을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강남까지 침략하려 드는 것이오?"

조조가 대답했다.

"그대는 신하로서 임금을 업신여기고 있다. 나는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특별히 그대를 토벌하러 온 것이다!"

그러자 손권이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이 부끄럽지도 않소? 천하 사람들이 그대가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줄 아시오? 내가 한나라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를 토벌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오!"

조조가 크게 화를 내며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산 위로 올라가 손권을 붙잡으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갑자기 북소리가 울리더니 산 뒤편에서 두 갈래의 군대가 나타났다. 오른쪽에서는 한당과 주태가, 왼쪽에서는 진무와 반장이 이끄는 군대였다. 네 명의 장수가 이끄는 삼천 명의 궁수들이 화살을 퍼부으니, 마치 비가 내리는 듯했다. 조조는 급히 장수들을 이끌고 퇴각했다. 뒤쫓아오는 네 명의 장수가 매우 매서웠으나, 중간쯤 이르렀을 때 허저가 호위병들을 이끌고 나타나 적들을 막아선 덕분에 조조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오나라 군대는 승전가를 부르며 유수구로 돌아갔다.

조조는 진영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다. '손권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다. 붉은 해가 떠오르는 형세이니, 머지않아 반드시 제왕이 될 자다.' 그러자 마음속에 군사를 물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오 사람들이 비웃을까 두려워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양측은 한 달 넘게 대치하며 몇 차례 전투를 치렀으나, 승패가 번갈아 가며 갈릴 뿐이었다.

이러한 상태로 이듬해 정월까지 이어졌는데, 봄비가 연이어 내려 항구마다 물이 가득 찼고 군사들은 진흙탕 속에서 지내며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조조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마침 진영에 머물며 여러 책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조조에게 군사를 거두라고

권했고, 어떤 이는 봄기운이 완연하니 지금은 서로 버티는 것이 좋으며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조가 갈팡질팡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동오에서 사신이 서신을 가지고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가 서신을 열어보니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나와 승상은 서로 한나라의 신하이자 재상이다. 승상은 나라를 보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생령을 잔인하게 살육하니, 이것이 어찌 어진 사람이 할 짓인가? 마침 봄철이라 물이 불어나고 있으니 승상은 속히 물러가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적벽의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승상께서는 스스로 잘 생각해보시라."

책 뒷면에는 또 이렇게 두 줄이 적혀 있었다. "그대가 죽지 않으면, 나는 편히 잠들 수 없다." 조조가 이를 다 읽고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손권이 나를 속이지 않았구나!" 조조는 사신에게 큰 상을 내린 뒤, 곧 군대를 돌려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노강태수 주광에게 완성을 지키도록 명한 뒤, 대군을 이끌고 허창으로 돌아갔다. 손권 역시 군사를 거두어 말릉으로 돌아갔다. 손권이 여러 장수와 상의하며 말했다. "조조가 비록 북쪽으로 물러갔으나, 유비는 아직 가맹관에 머물러 돌아오지 못했다. 조조를 막아낸 기세를 몰아 형주를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장소가 계책을 내놓으며 말했다. "아직은 군사를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제게 유비가 다시는 형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할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조조의 웅장한 군대는 막 북쪽으로 물러나고 있는데, 손권의 원대한 뜻은 다시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장소가 어떤 계책을 내놓을지, 결국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2회 — 부관을 취하여 양고가 머리를 바치고, 낙성을 공격하여 황위가 공을 다투다

取涪關楊高授首 攻雒城黃魏爭功

한편, 장소가 계책을 내놓으며 말했다. "우선 군사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군사를 일으키면 조조가 반드시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 대신 편지를 두 통 쓰십시오. 한 통은 유장에게 보내, 유비가 동오와 손을 잡고 서천을 함께 차지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아 유장이 유비를 의심하여 공격하게 만드십시오. 다른 한 통은 장루에게 보내, 형주를 향해 군사를 진격시키라는 내용을 담아 유비가 앞뒤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유비가 혼란에 빠졌을 때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취한다면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손권은 이 계책을 따랐고, 즉시 두 곳으로 사신을 보내 일을 처리했다.

한편, 유비는 가맹관에 머무는 동안 민심을 아주 잘 얻었다. 그러던 중 제갈량으로부터 손부인이 이미 동오로 돌아갔다는 서신을 받았다.

또한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유수를 침범해 왔다는 소식도 들었다. 유비는 방통과 상의하며 말했다. “조조가 손권을 공격하니, 조조가 이기면 반드시 형주를 차지할 것이고, 손권이 이기더라도 역시 형주를 차지하려 들 것이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방통이 대답했다. “주공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쪽에 제갈량이 있으니, 동오가 감히 형주를 넘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즉시 유장에게 서신을 보내십시오. 조조가 손권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핑계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손권은 형주에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손권과 입술과 이가 같은 사이라 도와주지 않을 수 없고, 장루는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도적일 뿐이니 결코 우리 경계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군사를 이끌고 형주로 돌아가 손권과 힘을 합쳐 조조를 격파하고자 하나, 지금은 병사도 적고 식량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같은 종친의 의리를 생각하여 정예병 삼사만 명과 식량 십만 곡을 신속히 보내 도와주십시오. 부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군마와 군량미를 지원받게 된다면,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는 그 뜻을 따르기로 하고 사람을 성도로 보냈다. 사자가 관문에 이르자, 양회와 고패는 이 소식을 듣고 고패에게 관문을 지키게 한 뒤 양회는 사자와 함께 성도로 들어가 유장을 만나 서신을 올렸다. 유장이 서신을 다 읽고 나서 양회에게 왜 함께 왔느냐고 묻자, 양회가 대답했다. “오로지 이 서신 때문에 왔습니다. 유비가 서천에 들어온 뒤로 은혜를 널리 베풀어 민심을 얻으려 하고 있는데, 그 속셈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지금 군사와 식량을 요청하고 있으니 절대로 도와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도와준다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유장이 말했다. “나는 유비와 형제의 정이 있는데, 어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유비는 영웅을 자처하는 교활한 인물입니다. 그를 서천에 오래 머물게 하면서도 내쫓지 않는 것은 호랑이를 집안으로 들여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와서 군사와 식량까지 보태준다면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살펴보니, 그는 영릉 증양 출신의 유바(자 자초)였다. 유장은 유바의 말을 듣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황권 또한 간곡히 간언했다. 유장은 결국 노약자 위주의 군사 4천 명과 쌀 1만 곡을 떼어 서신과 함께 사자를 보내 유비에게 답을 전하게 하고, 양회와 고패에게는 관문을 엄중히 지키라고 명령했다. 유장의 사자가 가맹관에 도착하여 유비에게 답신을 전했다. 유비는 서신을 보고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내가 너를 위해 적을 막아내느라 얼마나 애를 쓰고 마음을 썼는데, 너는 지금 재물을 아끼고 상을 인색하게 대하니, 어찌 병사들이 목숨을 바쳐 충성하게 하겠느냐!" 유비는 서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크게 욕설을 퍼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자는 겁에 질려 성도로 도망쳤다. 이를 본 방통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오로지 인의를 중히 여기시더니, 오늘 서신을 찢고 노여움을 터뜨리셨으니 이전의 명분은 모두 버리신 셈입니다." 유비가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해야 하겠느냐?" 방통이 대답했다. "제게 세 가지 계책이 있으니, 주공께서 직접 선택하여 행하십시오."

유비가 그 세 가지 계책을 물었다. 방통이 말했다. "지금 즉시 정예병을 뽑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도로 몰래 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책입니다. 하지만 양회와 고패는 서천의 유명한 장수들이라 각각 강력한 병력을 거느리고 관문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우선 형주로 돌아간다는 핑계를 대십시오. 그러면 두 장수가 그 소

식을 듣고 반드시 배웅하러 나올 것입니다. 그때 배웅하는 길목에서 그들을 사로잡아 죽이고 관문을 빼앗은 뒤, 먼저 부성을 점령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성도로 향하는 것이 중책입니다. 백제로 물러나 밤을 도와 형주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때를 기다려 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책입니다. 만약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가는 큰 곤경에 빠져 손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군사의 상책은 너무 급하고 하책은 너무 느리구려. 중책은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니, 이것을 실행에 옮기겠소."

이에 유비는 유장에게 편지를 보내, 조조가 부장 악진을 시켜 청니진까지 군사를 몰고 왔으며 장수들이 적의 기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자신이 직접 가서 막아야 하므로 직접 만나 인사하지 못함을 미리 알린다고 적었다. 이 편지가 성도에 도착했을 때, 장송은 유비가 형주로 돌아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 그저 진심인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유비에게 보낼 편지를 한 통 써서 사람을 통해 보내려 했다. 그런데 마침 형인 광한 태수 장숙이 방문하게 되어, 장송은 급히 편지를 소매 속에 숨긴 채 장숙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숙은 장송의 정신이 멍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여겼다. 장송은 술을 가져와 장숙과 함께 마셨다. 술을 주고받는 사이에 그만 편지 한 통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를 장숙의 수행원이 주웠다. 자리가 끝난 뒤, 수행원이 그 편지를 장숙에게 바쳤다. 장숙이 편지를 펼쳐 보니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어제 제가 황숙께 드린 말씀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이토록 지체하며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무력으로 거슬러 취하되 순리로써 지키는 것은 옛사람도 귀하게 여긴 도리입니다. 이제 큰 대업이 이미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버리고 형주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만약 제가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무언가 큰 것을 잃은 듯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신속히 군사를 움직이십시오. 제가 안에서 내응할 터이니, 부디 스스로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장숙이 서신을 보고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내 동생이 집안을 멸망시킬 일을 저질렀으니, 반드시 관가에 고해야겠다." 장숙은 그날 밤 즉시 유장을 찾아가, 동생 장송이 유비와 공모하여 서천을 바치려 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고했다. 유장이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내가 평소에 그를 박하게 대한 적이 없거늘, 어찌 감히 반역을 꾀한단 말이냐!" 유장은 즉시 명을 내려 장송의 일가족을 모두 잡아들여 저잣거리에서 처형했다. 훗날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재주는 예부터 드물거늘, 서신 한 통이 하늘의 기밀을 누설할 줄 누가 알았으랴. 유비가 왕업을 일으키는 것을 보기도 전에, 먼저 성도에서 피로 옷을 적시고 말았구나."

유장이 장송을 처형한 뒤, 문무백관을 불러 모아 모의하며 말했다. "유비가 나의 기반을 빼앗으려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황권이 말했다. "일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사람을 보내 각 관문에 소식을 알리고 병사를 더 보충하여 지키게 하십시오. 형주에서 오는 사람이나 말은 단 한 명도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엄히 막아야 합니다." 유장이 이 말을 따랐으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급히 격문을 보내 각 관문에 전달하였다.

한편,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부성으로 돌아가 먼저 부수관에 전령을 보내 양회와 고패에게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자고 청했다. 소식을 들은

양회와 고패가 서로 의논하며 말했다. “유비가 이번에 어떻게 하려 드는가?” 고패가 대답했다. “유비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네. 우리가 각자 몸에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있다가, 배웅하러 나올 때 찔러버려서 우리 주군에게 닥칠 화근을 없애버리세.” 양회가 맞장구를 쳤다. “그 계책이 참으로 묘하구먼.” 두 장수는 수행원 이백 명만 데리고 관문을 나서 배웅하기로 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관문에 남겨둔 채 유비의 대군을 모두 출동시켰다. 유비의 군대가 부수 강가에 이르자, 말 위에 앉아 있던 방통이 유비에게 말했다. “양회와 고패가 만약 기쁜 기색으로 온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오지 않는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군사를 일으켜 그 관문을 바로 점령해야 합니다.”

한편,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휘몰아치더니 말 앞에 세워둔 ‘수(帥)’ 자 깃발을 쓰러뜨렸다. 유비가 방통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징조인가?” 방통이 대답했다. “이것은 경보(놀라운 일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양회와 고패 두 사람이 반드시 암살할 의도를 품고 있으니,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유비는 즉시 무거운 갑옷을 입고 보검을 차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때 양회와 고패 두 장군이 배웅하러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비는 군마를 쉬게 한 뒤, 방통이 위연과 황충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관문에서 내려오는 군사들은 그 수가 많든 적든, 보병이든 기병이든 단 한 명도 돌려보내지 마라.” 두 장수는 명령을 받고 물러갔다.

한편, 양회와 고패 두 사람은 몸에 날카로운 칼을 숨긴 채 이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양과 술을 짊어지게 하여 유비의 진영 앞으로 나아갔다. 유비 측에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을 본 두 사람은 속으로

‘계책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다. 두 장수가 유비의 막사 안으로 들어가 보니, 유비가 방통과 함께 앉아 있었다. 두 장수가 큰 소리로 예를 갖추며 말했다. “황숙께서 멀리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작게나마 정성을 준비해 마중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유비에게 술을 권했다. 유비가 말했다. “두 장군께서 관문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니, 먼저 이 잔을 드셔야겠습니다.”

두 장수가 술을 다 마시자, 유비가 말했다. “두 장군과 상의할 비밀스러운 일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러가시오.” 그러고는 데려온 이백 명의 사람을 모두 중군 밖으로 쫓아냈다. 유비가 호통을 치며 말했다. “좌우의 군사들은 저 두 도적을 잡아라!” 그러자 막사 뒤에 있던 유봉과 관평이 소리를 듣고 달려 나왔다. 양회와 고패 두 사람이 급히 싸우려 했으나, 유봉과 관평이 각각 한 명씩 붙잡았다. 유비가 꾸짖으며 말했다. “그대들의 주인은 나와 같은 종친이자 형제인데, 어찌하여 둘이서 모의하여 친족 사이를 이간질한단 말이냐?” 방통이 좌우 군사들에게 호통을 쳐 그들의 몸을 수색하게 하니, 과연 각자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씩 품고 있었다. 방통은 즉시 두 사람을 베라고 호통쳤다. 유비가 망설이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방통이 말했다. “두 사람은 본래 우리 주군을 해치려 했으니,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칼과 도끼를 든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양회와 고패를 막사 앞에서 처형하게 했다. 황충과 위연은 이미 이백 명의 수행원을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모두 잡아두었다. 유비가 그들을 불러들여 술을 내려 놀란 마음을 달래주었다. 유비가 말했다. “양회와 고패는 나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날카로운 칼을 숨겨 암살하려 했기에 처벌한 것이다. 너희는 죄가 없으니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라.” 사

람들이 모두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방통이 말했다. “이제 너희가 길을 안내하여 우리 군대가 관문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각자 큰 상을 내리겠다.”

모두가 동의했다. 그날 밤, 200명의 선발대가 먼저 길을 떠났고 대군이 그 뒤를 따랐다. 선발대가 관문 아래에 도착하여 “두 장군께서 급히 돌아가실 일이 있으니 즉시 문을 열라!”고 외쳤다. 성안에서 자기 군사들의 목소리인 것을 듣고 즉시 관문을 열었다. 그러자 대군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갔으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부수관을 점령했다. 서천의 군사들은 모두 항복했다. 유비는 이들에게 두터운 상을 내리고, 곧바로 병력을 나누어 앞뒤를 지키게 했다. 다음 날, 유비는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공청에 연회를 베풀었다. 유비는 술기운이 올라 기분이 좋아지자 방통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의 이 모임이 참으로 즐겁지 않은가!” 방통이 대답했다. “남의 나라를 공격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어진 자의 군대가 할 짓이 아닙니다.” 유비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 옛날 무왕이 은나라의 폭군 주왕(紂王)을 치고 음악을 지어 그 공을 기렸다는데, 그것 또한 어진 자의 군대가 아니었단 말인가? 그대의 말은 도리에 맞지 않으니 어서 물러가라!” 방통은 크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유비를 부축해 후당으로 데려가 잠들게 했다가 한밤중에야 술이 깨게 했다. 사람들이 방통이 한 말을 전하자 유비는 크게 후회했다. 다음 날 아침, 유비는 옷을 갈아입고 대청으로 올라가 방통에게 사죄하며 말했다. “어제 술에 취해 말이 지나쳐 그대를 불쾌하게 했소. 부디 마음에 두지 마시오.” 방통은 웃으며 태연하게 대했다. 유비가 말했다. “어제의 말은 오직 나에게 잘못이 있었소.” 그

러자 방통이 말했다. “군신이 함께 잘못한 것인데, 어찌 주공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유비 역시 크게 웃으니, 그 즐거움이 처음과 같았다.

한편, 유장은 유비가 양회와 고패 두 장수를 죽이고 부수관까지 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며 말했다. "설마 오늘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유장은 즉시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군대를 물릴 계책을 물었다. 이때 황권이 나아가 말했다. "밤을 틈타 군사를 보내 낙성을 지키게 하고, 길목을 꽉 막아버려야 합니다. 유비에게 아무리 정예병과 용맹한 장수가 있다 한들, 결코 넘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유장은 곧 유궤, 냉포, 장임, 등현에게 명령하여 5만 대군을 이끌고 밤낮없이 달려가 낙성을 지키며 유비의 진격을 막게 했다.

네 장수가 군사를 움직일 차례가 되자, 유궤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 금병산에 자허상인이라는 기이한 도사가 있는데, 사람의 생사나 귀천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행군하는 길이 마침 금병산을 지나가니,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장임이 말했다. "대장부가 전쟁터에서 적을 막아내야 하는 마당에, 어찌 산야에 사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단 말입니까?"

유궤가 다시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도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분께 여쭈어본다면 마땅히 길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흉한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윽고 네 사람은 오륙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산 아래에 이르러 길을 아는 나무꾼에게 물었다. 나무꾼은 높은 산꼭대기에 도사가 살고 있

다며 그곳을 가리켰다. 네 사람이 산을 올라 암자 앞에 이르니, 한 도동이 나와 맞이했다. 이름을 물어본 뒤 암자 안으로 들어서니, 자허상인이 갈대 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네 사람이 절을 올리며 앞으로의 운세에 대해 여쭈었다. 자허상인이 말했다. “빈도는 그저 산속에 사는 버려진 사람일 뿐인데, 어찌 길흉화복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유궤가 거듭 절하며 다시 간청했다. 자허상인은 결국 도동에게 명하여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한 뒤, 여덟 구절의 글을 써서 유궤에게 건네주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왼쪽에는 용이, 오른쪽에는 봉황이 날아 서천으로 들어오리라. 봉추는 땅으로 떨어지고, 와룡은 하늘로 솟구치리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으니, 이는 하늘의 정해진 운수라. 기미를 보아 움직여, 구천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라.”

유궤가 다시 물었다. "저희 네 사람의 운세는 어떠합니까?"

자허상인이 대답했다. "정해진 운명은 피하기 어려운 법인데, 무엇하러 다시 묻느냐?"

유궤가 다시 질문하려 했으나, 상인은 눈을 내리깔고 눈을 감은 채 마치 잠든 사람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네 사람은 산을 내려왔다.

유궤가 말했다. "신선의 말씀이니 믿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자 장임이 말했다. "저건 그저 미친 노인일 뿐인데, 들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고는 말을 타고 앞장서 나갔다.

이윽고 낙성에 도착한 그들은 인마를 나누어 각지의 요충지를 지키도록 배치했다. 유궤가 말했다. "낙성은 성도를 지키는 보루이니, 이곳을 잃으면 성도도 지키기 어렵다. 우리 네 사람이 의논한 대로, 두 명은 성을 지키고 나머지 두 명은 낙성 앞으로 가서 험한 산세에 의지해 진영을 두 개 구축하라. 적군이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냉포와 등현이 말했다. "저희가 가서 진영을 치겠습니다."

유궤는 크게 기뻐하며 군사 2만 명을 나누어 냉포, 등현 두 사람에게 주었고, 그들은 성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유궤와 장임은 낙성을 지키기로 했다.

한편, 유비는 부수관을 점령한 뒤 방통과 함께 낙성을 공격할 방도를 논의했다. 이때 유장이 네 명의 장수를 보내 앞길을 막으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 냉포와 등현이 이끄는 2만 명의 군사가 낙성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두 개의 커다란 진영을 치고 대기하고 있었다. 유비가 군사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누가 앞장서서 큰 공을 세워 저 두 장수의 진영을 함락시키겠는가?” 그러자 노장 황충이 목소리를 높이며 나섰다. “이 노부가 가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장군께서는 본대 병력을 이끌고 낙성까지 전진하십시오. 만약 냉포와 등현의 진영을 탈취한다면 반드시 큰 상을 내리겠습니다.”

황충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본대 군사들을 거느리고 사례한 뒤 떠나려 했다. 그때 갑자기 막사 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며 말했다. “노장군께서는 연세가 높으신데 어찌 가시겠습니까? 재주 없는 소장이 대신 가기를 원합니다.” 유비가 살펴보니 바로 위연이었다. 황충이 꾸짖

었다. “내가 이미 명령을 받았거늘, 네가 어찌 감히 내 앞을 가로막느냐?” 위연이 대답했다. “노장은 근력을 능사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로 냉포와 등현은 서천의 이름난 장수로 혈기가 왕성하다고 합니다. 혹여 노장군께서 그들을 사로잡지 못해 주공의 큰일을 그르칠까 염려되어 대신 가고자 하는 것이니, 이는 본래 좋은 뜻입니다.” 황충이 크게 노하여 외쳤다. “네가 나를 늙었다고 하느냐? 감히 나와 무예를 겨루어 보겠다는 것이냐?” 위연이 말했다. “주공 앞에서 직접 겨루어 보시지요. 이기는 사람이 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황충이 계단을 내려가며 부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시키려 하자, 유비가 급히 말렸다. “안 되오. 내가 지금 군사를 일으켜 서천을 취하려는 것은 오로지 그대들 두 사람의 힘에 달려 있소. 지금 두 호랑이가 서로 싸운다면 반드시 한쪽이 상처를 입을 것이고, 결국 나의 큰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오. 내가 그대들 사이를 중재할 터이니 더는 다투지 마시오.” 그러자 방통이 거들었다. “두 분은 서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냉포와 등현이 각각 진영을 구축하고 있으니, 두 분이 각자 본대 군사를 거느리고 진영 하나씩을 공격하십시오. 먼저 점령하는 쪽이 일등 공신이 될 것입니다.” 이에 황충은 냉포의 진영을 공격하고, 위연은 등현의 진영을 공격하기로 나누어 명령을 받들고 떠났다. 방통이 유비에게 말했다. “두 사람이 가는 길에 서로 다툴까 걱정되니, 주공께서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뒤에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유비는 방통에게 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유봉, 관평과 함께 오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뒤따라 출정했다.

한편, 황충이 진영으로 돌아가 명령을 내렸다. “내일 새벽 네 시경에 밥을 짓고, 다섯 시경에 채비를 마쳐라. 날이 밝는 대로 왼쪽 산골짜기를 타고 진격한다.” 하지만 위연은 몰래 사람을 보내 황충이 정확히 언제 군사를 일으키는지 알아내게 했다. 탐문한 사람이 돌아와 보고했다. “내일 새벽 네 시에 밥을 짓고, 다섯 시에 군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위연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군사들에게 따로 지시했다. “우리는 내일 새벽 두 시에 밥을 짓고, 세 시에 출발한다. 날이 밝기 전까지 등현의 진영 근처까지 도달해야 한다.”

군사들이 명령을 받자마자 모두 배불리 식사를 마쳤다. 말에서는 방울을 떼어내고 사람들은 입에 막대를 물었으며, 깃발을 말아 쥐고 갑옷을 단단히 여민 채 은밀히 적의 진영을 습격하러 갔다. 한밤중 삼경쯤 되어 군사들은 진영을 떠나 전진하기 시작했다. 길을 가던 중 위연이 말 위에서 속으로 생각했다. ‘등현의 진영만 공격해서는 내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겠어. 차라리 냉포의 진영을 먼저 치고, 거기서 얻은 승전 병력으로 등현의 진영을 공격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두 곳 모두에서 공을 세울 수 있겠지.’ 위연은 즉시 명령을 내려 군사들이 모두 왼쪽 산길로 가도록 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냉포의 진영이 멀지 않은 곳에 이르자 위연은 군사들에게 잠시 쉬게 한 뒤, 징과 북을 울리고 깃발과 창, 칼 등 무기들을 정렬하여 전투 태세를 갖추게 했다.

길목을 지키던 소규모 정찰병이 진영으로 급히 달려가 보고한 덕분에, 냉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갑자기 포성 한 번이 울려 퍼지더니, 삼군이 말에 올라타 기세 좋게 돌격해 나왔다. 위연이 말을 달려 칼을 휘두르며 냉포와 맞붙었다. 두 장수가 말을 타고 서른 합가

량 격렬하게 싸우는 사이, 서천 군사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 한나라 군대를 습격했다. 한나라 군대는 밤새도록 싸우다 인마가 모두 지쳐 버티지 못하고 퇴각하기 시작했다. 위연이 뒤쪽 진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는 냉포와의 싸움을 멈춘 채 말을 돌려 퇴각했다. 서천 군사가 뒤를 바짝 쫓아오면서 한나라 군대는 크게 패했다. 채 5리도 못 가서 산 너머에서 북소리가 땅을 울리듯 크게 울려 퍼지더니, 등현이 군사들을 이끌고 산골짜기에서 갑자기 나타나 크게 외쳤다. "위연은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위연이 말을 타고 급히 달려가는데, 갑자기 말이 앞발을 헛디뎌 두 앞다리가 땅에 꿇리는 바람에 위연이 말 위에서 굴러떨어졌다. 이때 등현이 말을 달려와 창을 겨누며 위연을 찔러왔다. 그러나 창이 닿기도 전에 활시위 소리가 울리더니, 등현이 거꾸로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뒤에서 냉포가 구하러 오려 할 때, 한 명의 맹장이 산비탈에서 말을 달려 내려오며 크게 외쳤다. “노장 황충이 여기 있다!” 그는 도를 휘두르며 냉포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냉포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자 뒤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황충은 이 기세를 몰아 추격했고, 서천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황충이 이끄는 군대가 위연을 구출하고 등현을 사살한 뒤, 곧장 진영 앞으로 몰아쳤다. 냉포가 말머리를 돌려 황충과 다시 맞붙었으나, 열 합을 채 넘기기도 전에 뒤쪽에서 군마들이 밀고 올라왔다. 이에 냉포는 어쩔 수 없이 왼쪽 진영을 버리고 패퇴하는 군사들을 이끌며 오른쪽 진영으로 도망쳐 들어왔다. 그런데 진영 안의 깃발이 모두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 냉포가 깜짝 놀라 말을 멈추고 살펴보니, 정면에서

금빛 갑옷에 비단 도포를 입은 대장 하나가 버티고 서 있었다. 바로 유비였다. 그 좌우에는 유봉과 관평이 버티고 서서 호통을 쳤다. "이 진영은 이미 우리가 빼앗았다. 너는 이제 어디로 도망가려느냐!" 알고 보니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뒤쪽에서 지원하러 오면서, 그 기세를 몰아 등현의 진영을 단숨에 점령한 것이었다.

냉포는 앞뒤로 길이 막히자 산속의 좁은 오솔길을 택해 낙성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열 리도 채 가지 못해 좁은 길목에서 갑자기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갈고리를 일제히 들어 올리며 냉포를 생포했다. 알고 보니 위연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변명할 길이 없자, 후군을 정비한 뒤 유비의 군사들에게 길을 안내하게 하여 이곳에 매복시킨 것이었다. 위연은 냉포를 밧줄로 묶어 유비의 진영으로 압송했다.

한편, 유비는 죽음을 면해준다는 깃발을 내걸고, 서천의 병사들 중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자는 결코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만약 항복한 자를 다치게 하는 자가 있으면 목숨으로 갚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항복한 병사들에게도 이렇게 일렀다. "너희 서천 사람들에게도 모두 부모와 처자가 있을 것이다. 항복하여 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받아줄 것이나, 원치 않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이 말이 전해지자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크게 기뻐했다. 황충은 진영을 차리고 곧장 유비를 찾아와 말했다. "위연이 군령을 어겼으니 마땅히 처단해야 합니다." 유비가 급히 위연을 불러들이자, 위연은 냉포를 압송해 왔다. 유비가 말했다. "위연이 비록 죄를 지었으나, 이번 공로로 그 죄를 씻게 하겠노라." 그러고는 위연에게 황충에게 가서 목숨을 구해준 은

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는 다투지 말라고 일렀다. 위연은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빌었다. 유비는 황충에게 큰 상을 내렸다. 이어 유비는 사람을 시켜 냉포를 막사로 압송하게 했다. 유비는 직접 냉포의 결박을 풀어주고 술을 내려 놀란 마음을 달래주며 물었다. “그대는 항복하겠는가?” 냉포가 대답했다.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으니 어찌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유궤와 장임은 저와 생사를 함께한 친한 사이입니다. 만약 저를 돌려보내 주신다면, 즉시 그 두 사람을 불러 항복하게 하고 낙성을 바치겠습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옷과 말과 안장을 내려주어 낙성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자 위연이 말했다. “저 자를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저 자가 몸을 빼내어 돌아간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나는 인의로 사람을 대하니,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오.”

한편, 냉포는 낙성으로 돌아가 유궤와 장임을 만났다. 그는 유비에게 붙잡혀 풀려난 것이 아니라, 부하 열댓 명을 죽이고 말들을 빼앗아 겨우 도망쳐 돌아온 것이라고 보고했다. 유궤는 급히 사람을 보내 성도에 구원을 요청했다. 유장은 등현마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서둘러 신하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장남 유순이 나서서 말했다. "제가 군사를 이끌고 낙성으로 가서 지키겠습니다." 유장이 물었다. "네가 가겠다면, 누구를 보좌관으로 보내야 하겠느냐?"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유장이 살펴보니 바로 외삼촌인 오의였다. 유장이 말했다. "존경하는 외삼촌께서 가신다니 다행이구나. 그렇다면 부장은 누구로 정하면 좋겠느냐?"

오의는 오란과 뇌동을 부장으로 삼아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낙성에 도착했다. 유궤와 장임이 마중 나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보고했다. 오의가 물었다. "적군이 성 바로 아래까지 들이닥쳤으니 막아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너희에게 좋은 방책이 있느냐?"

그러자 냉포가 말했다. "이곳은 부강이 흐르는 곳이라 강물이 매우 급합니다. 앞쪽에 자리 잡은 진영은 산기슭에 있어 지형이 매우 낮습니다. 제게 군사 5천 명을 주시면, 삽과 괭이를 들고 가서 부강의 물길을 터뜨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비의 군사들을 모두 물에 빠뜨려 죽일 수 있습니다."

오의는 그 계책을 따르기로 하고 냉포에게 물길을 터뜨리는 일을 맡겼으며, 오란과 뇌동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받치게 했다. 냉포는 명령을 받들고 물길을 터뜨릴 도구들을 준비하러 떠났다.

한편, 유비는 황충과 위연에게 각각 한 진영씩 맡겨 지키게 한 뒤, 자신은 부성으로 돌아와 군사 방통과 대책을 논의했다. 그때 첩보가 들어왔다. “동오의 손권이 사람을 보내 동천의 장루와 손을 잡고, 가맹관을 공격하려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가 깜짝 놀라 말했다. “만약 가맹관을 빼앗겨 퇴로가 끊긴다면, 나는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처지가 될 텐데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방통이 맹달에게 말했다. “그대는 촉 땅 사람이라 지리에 밝으니, 가맹관을 가서 지키는 것이 어떻겠소?” 맹달이 대답했다. “저와 함께 관문을 지킬 사람을 한 명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비가 그가 누구냐고 묻자 맹달이 말했다. “이 사람은 예전에 형주 유표의 부하로서 중랑장을 지냈으며, 남군 지강 사람입니다. 성은 곽이고 이름은 준이

며, 자는 중묘입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맹달과 곽준을 가맹관으로 보내 그곳을 지키게 했다.

방통이 관사로 돌아가는데, 문지기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손님 한 분이 특별히 찾아오셨습니다." 방통이 나가서 맞이하니, 그 사람은 키가 8척이나 되고 풍채가 매우 당당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잘라 목덜미에 늘어뜨렸고, 옷차림은 그리 단정하지 못했다. 방통이 물었다. "선생은 누구십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대답도 없이 곧장 대청으로 올라가 침상 위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방통은 매우 의아하게 여겨 몇 번이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잠시 기다리게. 내가 자네에게 천하의 큰일을 이야기해 줄 테니." 방통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하며 좌우에 명하여 술과 음식을 내오게 했다. 그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겸손한 기색도 없이 바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먹는 양도 무척 많았는데, 다 먹고 나서는 다시 잠이 들었다. 방통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 혹시 첩자가 아닐까 염려되어 사람을 시켜 법정을 불러 그를 살펴보게 했다. 법정이 황급히 달려오자 방통이 나가서 맞이하며 말했다.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네." 법정이 물었다. "혹시 팽영언이 아닙니까?" 법정이 계단을 올라가 그를 살펴보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효직, 그동안 별고 없었는가?" 참으로 사천 사람이 옛 지인을 만났으니, 부수의 거센 물결도 잠잠하게 만들 것이로다. 결국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3회 — 제갈량이 방통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고, 장익덕이 엄안을 의리로 풀어주다

諸葛亮痛哭龐統 張翼德義釋嚴顔

한편, 법정과 그 사람은 서로 만나 손뼉을 치며 웃었다. 龐統이 그 이유를 묻자 법정이 말했다. “이분은 광한 사람으로 성은 팽씨, 이름은 팽양, 자는 영언이라 하며 촉 땅의 호걸이십니다. 유장에게 직언하여 그 뜻을 거슬렀다가 유장에게 붙잡혀 칼을 쓴 채 노역하는 처지가 되었기에 머리를 짧게 깎은 것입니다.” 龐統은 팽양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며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팽양이 대답했다. “나는 오직 여러분의 군사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하러 왔습니다. 유비 장군을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법정이 서둘러 유비에게 보고하자, 유비가 직접 팽양을 만나 그 까닭을 물었다. 팽양이 물었다. “장군, 앞쪽 진영에 군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유비가 사실대로 “황충과 위연이 그곳에 있소”라고 답하자 팽

양이 말했다. “장수가 도를 행함에 어찌 지형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앞쪽 진영은 부강과 맞닿아 있는데, 만약 적이 강물을 터뜨리고 앞뒤로 병사를 배치해 막아버린다면 단 한 사람도 도망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팽양이 이어 말했다. “강성(罡星)이 서쪽에 나타나고 태백이 이 땅에 임하니, 분명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디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유비는 즉시 팽양을 책사로 삼고, 위연과 황충에게 비밀리에 전령을 보내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순찰하며 강물이 터지는 것을 경계하라 일렀다. 황충과 위연은 서로 상의하여 “우리 둘이 하루씩 교대로 맡고, 만약 적군이 들이닥치면 즉시 서로에게 알려주자”라고 약속했다.

한편, 냉포는 그날 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것을 보고 군사 5천 명을 이끌고 강가를 따라 은밀히 진군하며 강물을 터뜨릴 준비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뒤편에서 커다란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냉포는 적이 이미 대비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급히 군사를 돌려 퇴각하려 했으나, 뒤쫓아온 위연의 군대와 맞닥뜨리면서 촉나라 군사들이 서로 엉켜 짓밟히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냉포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던 중 위연과 마주쳤고, 몇 합을 겨루기도 전에 위연에게 생포되고 말았다. 뒤이어 오란과 뇌동이 구원하러 왔으나, 이번에는 황충이 이끄는 군대가 들이닥쳐 그들을 격파했다.

위연이 냉포를 끌고 부관으로 돌아오자, 유비가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나는 너를 인의로 대하며 돌려보내 주었거늘, 어찌 감히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이번 일은 결코 용서치 않겠다!” 유비는 냉포를 끌어내어 참수하고, 위연에게는 큰 상을 내렸다.

유비가 팽양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있을 때, 갑자기 형주의 제갈량 군사가 마량을 보내 서신을 전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비가 마량을 불러 물으니, 마량은 예를 갖춘 뒤 말했다. "형주는 평안하니 주공께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고는 제갈량의 서신을 올렸다. 유비가 서신을 뜯어보니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제가 밤에 태을수(太乙數)를 헤아려 보니, 올해는 계해년이라 강성(罡星)이 서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형상을 보니 태백성(太白星)이 낙성 쪽으로 내려앉았으니, 이는 장수와 지휘관들에게 길함보다는 흉함이 많을 징조입니다. 부디 매사에 신중히 행동하십시오."

유비는 서신을 읽고 나서 마량을 먼저 돌려보냈다. 유비가 말했다. "나는 형주로 돌아가 이 일을 더 자세히 논의해야겠다."

그러자 龐統은 속으로 생각했다. '제갈량이 내가 서천을 차지하여 공을 세우는 것을 꺼려, 일부러 이 서신을 보내 방해하려 하는구나.'

곧이어 龐統은 유비에게 말했다. "저 또한 태을수를 헤아려 본 결과, 강성이 서쪽에 있으니 이는 주군께서 서천을 얻으실 징조이지 결코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제가 천문을 점쳐보니 태백이 낙성에 임했는데, 이는 먼저 촉의 장수 냉포를 베게 될 것이라는 흉조입니다. 그러니 주군께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어서 군사를 몰아 진군하셔야 합니다."

유비는 龐統이 거듭 재촉하자 군사를 이끌고 전진했다. 황충과 위연이 유비를 맞아 진영으로 들어갔다. 龐統이 법정에게 "낙성까지 가는 길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묻자, 법정이 땅에 그림을 그려 지도를 그렸다. 유비가 장송이 남긴 지도를 꺼내 대조해 보니 조금의 오차도 없었

다. 법정이 말했다. “산 북쪽에는 큰 길이 있어 낙성의 동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산 남쪽에는 작은 길이 있어 낙성의 서문으로 통합니다. 두 길 모두 군사를 움직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龐統이 유비에게 말했다. “제가 위연을 선봉으로 삼아 남쪽의 작은 길로 가겠습니다. 주군께서는 황충을 선봉으로 삼아 산 북쪽의 큰 길로 가셔서 낙성에서 함께 합류하시지요.” 유비가 말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말 타기와 활쏘기에 익숙해 작은 길을 다니는 데 거리낌이 없소. 군사께서는 큰 길로 가셔서 동문을 취하시고, 제가 서문을 취하겠습니다.” 龐統이 말했다. “큰 길에는 분명 적군이 매복해 있을 것이니, 주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맞서셔야 합니다. 저는 작은 길로 가겠습니다.” 유비가 다시 말했다. “군사, 안 됩니다. 제가 어젯밤 꿈에 어떤 신인이 나타나 철몽둥이로 제 오른쪽 팔을 내리치는 것을 보았는데, 깨어나서도 여전히 팔이 아픕니다. 이번 행군이 불길한 징조가 아닐는지요.” 龐統이 말했다. “장수가 전장에 나아가 죽지 않고 상처를 입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찌 꿈자리 때문에 의심을 하십니까?” 유비가 말했다. “내가 의심하는 것은 제갈량이 보낸 서신이라오. 군사께서는 다시 부관으로 돌아가 지키는 것이 어떻겠소?” 龐統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주군께서 제갈량의 말에 현혹되셨군요. 그가 저 혼자 큰 공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니, 그런 말을 지어내어 주군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니 꿈까지 꾸는 것이지, 무슨 흉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간과 쓸개를 다 쏟아붓는 심정으로 충성을 다할 것이니, 주군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 어서 출발합시다.”

그날 명령이 내려져 군사들은 오경에 밥을 지어 먹고, 날이 밝자마자 말에 올랐다. 황충과 위연이 군사를 이끌고 먼저 나아갔다. 유비가

龐統과 다시 약속을 정하려는데, 갑자기 龐統이 탄 말이 무언가에 놀라 앞으로 고꾸라지며 龐統을 떨어뜨렸다. 유비가 말에서 뛰어내려 그 말을 붙잡으며 말했다. “군사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못난 말을 타십니까?” 龐統이 대답했다. “이 말을 오래 탔지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전장에서 말이 놀라 날뛰면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제가 타는 백마는 성질이 매우 온순하니, 군사께서 이 말을 타십시오. 절대 실수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못난 말은 제가 타겠습니다.” 유비는 龐統과 서로의 말을 바꾸어 탔다. 龐統이 고마워하며 말했다. “주군의 두터운 은혜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만 번 죽어도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각자 말을 타고 길을 떠났다. 유비는 龐統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몹시 불편해져서,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길을 나아갔다.

한편, 낙성에서는 오의와 유괘가 냉포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장수들과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장임이 나서서 말했다. "성 동남쪽 산골짜기에 아주 중요한 샛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그곳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낙성을 철저히 수비하여 절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나라 군사가 두 갈래로 나뉘어 성을 공격하러 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장임은 급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먼저 샛길로 가서 매복했다. 위연의 군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장임은 적을 놀라게 하지 말라며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다 뒤이어 龐통의 군사가 오는 것을 보고는 장임의 부하가 멀리서 군중의 대장을 가리키며 외쳤

다. "백마를 타고 있는 자가 분명 유비일 것입니다!" 장임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명령을 내려 이러이러한 계책을 실행에 옮겼다.

한편, 방통이 계속해서 길을 나아가는데, 고개를 들어 보니 양쪽 산세가 좁고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다. 마침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라 나뭇잎이 더욱 무성했다. 방통은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생겨 말의 고삐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이곳의 지명이 무엇이냐?" 그러자 새로 항복해 온 군사 중 하나가 대답했다. "이곳의 지명은 낙봉파입니다." 방통은 깜짝 놀라며 외쳤다. "내 호가 봉추인데, 이곳의 이름이 낙봉파라니 나에게 불길한 곳이로구나!" 그는 즉시 후군에게 명령하여 급히 퇴각하게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산비탈 앞에서 포성 한 번이 울리더니 화살이 마치 날뛰는 메뚜기 떼처럼 날아들었다. 화살은 하필 백마를 타고 있던 방통을 향해 쏟아졌다. 가련하게도 방통은 결국 빗발치는 화살 세례를 맞고 목숨을 잃고 말았다. 향년 서른여섯이었다. 후세의 사람들이 시를 지어 그를 탄식하며 읊었다.

"옛 고개 이어져 자줏빛과 비취빛 산이 쌓였으니, 사원은 산기슭 근처에 집을 두었네. 어린아이들도 비둘기 부르는 골짜기라 익히 알았고, 마을 사람들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를 들어보았지. 천하를 셋으로 나눌 계책을 미리 세웠건만, 장대한 기개로 만 리 길을 홀로 거닐었네. 누가 알았으랴, 하늘의 불길한 별이 떨어져 장군이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오는 것을 막을 줄을."

전에는 동남쪽에서 다음과 같은 동요가 돌기도 했다.

"봉황 한 마리와 용 한 마리가 함께 촉나라로 향하네. 길 중간에 이르러 봉황은 낙봉파 동쪽에서 죽고, 바람은 비를 몰고 비는 다시 바람을 부르니, 융한이 흥할 때 촉나라 길이 열리면, 촉나라 길이 열릴 때 용만이 남으리라."

그날 장임이 쏜 화살에 龐統이 맞아 죽자, 한나라 군대는 혼란에 빠져 앞뒤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다수가 목숨을 잃었다. 앞장서던 군사가 급히 위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위연이 급히 군사를 돌려 후퇴하려 했으나, 산길이 워낙 좁아 제대로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장임이 높은 언덕 위에서 돌아가는 길을 막아선 채 강력한 활과 노를 쏘아 대니, 위연은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다. 이때 새로 항복한 촉나라 병사 하나가 말했다. "차라리 낙성 아래로 거칠게 달려가서 큰길을 타고 진군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위연은 그 말에 따라 앞장서서 길을 열며 낙성을 향해 거세게 몰아쳤다. 그런데 자욱한 먼지 사이로 앞에서는 낙성의 수장인 오란과 뇌동이 이끄는 군대가 달려들고, 뒤에서는 장임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왔다. 앞뒤로 가로막힌 위연은 적진 한가운데 완전히 포위되어 죽을 힘을 다해 싸웠으나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오란과 뇌동의 후방 군사가 스스로 혼란에 빠지더니, 두 장수가 급히 말을 돌려 구원하러 돌아갔다. 위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몰아붙였다. 그때 앞서 달려오던 한 장수가 칼을 휘두르고 말을 몰며 크게 외쳤다. “문장, 내가 너를 구하러 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노장 황충이었다. 황충과 위연이 양쪽에서 협공하자 오란과 뇌동은 패하여 달아났고, 두 장수는 곧장 낙성 아래까지 돌격했다. 유궤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공격해 왔으나, 뒤에서 유비가 버티며 지원해 준 덕분에 황충과 위연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유비의 군대가 급히 진영으로 달려 들어갔으나, 장임의 군대가 또 작은 길을 통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다. 유궤와 오란, 뇌동이 앞장서서 달려왔다. 유비는 두 진영을 지켜내지 못하고 싸우면서 뒤로 물러나 부관으로 도망쳤다. 촉나라 군대는 승기를 잡고 줄지어 추격해 왔다. 유비의 군사들은 지치고 말도 힘에 부쳐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오로지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부관 근처에 이르자 장임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 왔다. 다행히 왼쪽에서는 유봉이, 오른쪽에서는 관평이 삼만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나타나 장임의 군대를 물리쳤다. 그들은 다시 20리 가량을 달려가 빼앗겼던 수많은 말을 되찾아왔다.

유비 일행은 군사를 몰아 다시 부관으로 들어갔다. 유비가 방통의 소식을 묻자, 낙봉파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 돌아온 병사가 달려와 보고했다.

"군사께서 말과 함께 화살 세례를 맞고 언덕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비는 서쪽을 바라보며 통곡을 멈추지 못했고, 멀리서나마 혼을 불러 모으는 제사를 지내주었다. 장수들도 모두 함께 울었다. 그때 황충이 말했다.

"이번에 방통 군사를 잃었으니, 장임이 반드시 부관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사람을 보내 형주에 있는 제갈 군사를 모셔 와 서천을 취할 계책을 상의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장임이 군사를 이끌고 성 바로 아래까지 들이닥쳐 싸움을 걸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황충과 위연이 모두 서쪽으로 나가 싸우려 하자, 유비가 만류하며 말했다.

“기세가 꺾인 상태이니, 제갈 군사가 도착할 때까지 성을 굳게 지키며 기다려야 하오.”

황충과 위연은 명령을 받들어 성을 철저히 지켰다. 유비는 서신 한 통을 써서 관평에게 맡기며 당부했다.

“그대는 나를 위해 형주로 가서 제갈 군사를 모셔 오너라.”

관평은 서신을 받아 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급히 형주로 향했다. 유비는 부관을 지키며 섣불리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한편, 제갈량은 형주에 머물고 있었다. 마침 칠석 명절을 맞아 관리들을 불러 모아 밤늦도록 연회를 베풀며 서천을 취하는 일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 그때 서쪽 하늘 위로 솥처럼 커다란 별 하나가 나타나더니, 하늘에서 떨어지며 사방으로 빛을 흩뿌렸다. 이를 본 제갈량은 깜짝 놀라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얼굴을 가린 채 통곡하며 말했다.

"아아, 슬프도다! 참으로 비통하구나!"

관리들이 당황하며 그 이유를 묻자 제갈량이 대답했다.

"내가 예전에 계산하기를, 올해는 별의 움직임이 서쪽을 향하니 군사에게 불리할 것이라 하였다. 하늘의 흉한 기운이 우리 군을 침범하고 태백성이 낙성에 임할 것을 예견하여, 이미 주군께 서신을 보내 조심하

라고 일러두었다. 그런데 하필 오늘 밤 서쪽에서 별이 떨어지니, 龐통의 명은 필시 다하고 말 것이다!"

말을 마친 제갈량은 다시 크게 울며 외쳤다.

"이제 내 주군께서 한쪽 팔을 잃으시게 되었구나!"

관리들은 모두 놀라면서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며칠 내로 반드시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그날 밤, 연회는 끝까지 즐겁게 이어지지 못한 채 서둘러 끝이 났다.

며칠 후, 제갈량이 관우 등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관평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든 관리가 깜짝 놀랐다. 관평이 들어와 유비의 편지를 올렸다. 제갈량이 편지를 읽어보니 그 내용은 이러했다. "올해 7월 7일, 방통 군사가 낙봉파 앞에서 장임의 화살을 맞아 사망하였소." 제갈량은 크게 통곡했고, 모든 관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주군께서 지금 부관에 계시니, 나아가기도 물러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야겠습니다."

관우가 말했다. "군사께서 가시면 누가 형주를 지킵니까? 형주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주군의 편지에 이름을 직접 적지는 않으셨으나, 저는 이미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유비의 편지를 꺼내 모든 관

리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주군께서는 편지를 통해 형주를 제게 맡기시며, 제 역량에 맞춰 사람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평을 보내 편지를 전하게 하신 것은, 관우 장군께서 이 중책을 맡으라는 뜻입니다. 관우 장군께서는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던 정을 생각하여 힘써 이곳을 지켜주십시오. 책임이 막중하니 부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우는 더는 사양하지 않고 흔쾌히 승낙했다. 제갈량은 연회를 베풀어 인장과 관인을 넘겨주었고, 관우는 두 손으로 이를 받았다. 제갈량이 인장을 높이 들며 말했다. "모든 책임이 이제 장군께 달려 있습니다."

관우가 말했다. "대장부가 중책을 맡았으니, 죽기 전에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갈량은 관우가 '죽음'이라는 말을 내뱉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차마 맡기지 말까 고민했으나 이미 말은 뱉은 뒤였다. 제갈량이 다시 물었다. "만약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힘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제갈량이 다시 물었다. "만약 조조와 손권이 동시에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온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관우가 말했다. "군사를 나누어 막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렇게 되면 형주가 위험해집니다. 제가 여덟 글자를 드릴 테니, 장군께서는 이를 명심하여 형주를 지키십시오."

관우가 그 여덟 글자가 무엇인지 묻자 제갈량이 말했다. "북쪽으로는 조조를 막고, 동쪽으로는 손권과 화친하십시오."

관우가 말했다. "군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갈량은 인장과 관인을 넘겨주고는, 문관인 마량, 이적, 향랑, 미축과 무장인 미방, 요화, 관평, 주창에게 관우를 보좌하여 함께 형주를 지키라고 명했다. 그러고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서천으로 들어갔다. 먼저 정예병 만 명을 뽑아 장비에게 맡겨 큰길을 따라 파주로 돌격하게 했으니, 낙성 서쪽에서 먼저 도착하는 자에게 일등 공을 세우게 했다. 또한 또 다른 병력을 나누어 조운을 선봉으로 삼아 강을 거슬러 올라가 낙성에서 합류하게 했다. 제갈량은 뒤이어 간옹, 장완 등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이때 장완의 자는 공염이며 영릉 상향 사람인데, 형주와 양양의 이름난 선비로서 현재는 제갈량의 서기로 있었다.

그날 제갈량은 군사 만 오천 명을 이끌고 장비와 함께 길을 떠났다. 장비가 출발하기 전, 제갈량이 당부하며 말했다.

“서천에는 뛰어난 영웅들이 아주 많으니 결코 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길을 가는 동안 삼군을 엄히 단속하여, 백성을 약탈함으로써 민심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백성을 아끼고 보살펴야 하며, 병사들이 제멋대로 날뛰며 매질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장군께서는 부디 서둘러 낙성에 도착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장비는 기쁘게 대답하고는 말에 올라타서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장비가 지나는 곳마다 항복하는 자들에게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곧장 한천로를 거쳐 파군까지 진격했다. 파군에 이르자 첩자가 돌아와 보고했다. "파군의 태수 엄안은 촉중의 이름난 장수입니다. 나이는 비록 많으나 기력은 여전하며, 힘차게 활을 쏘고 큰 칼을 휘두르는 솜씨가 만 명의 적도 당해내지 못할 만큼 용맹합니다. 성을 굳게 지키고 있어 항복의 깃발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는 성에서 십 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게 한 뒤, 사람을 성안으로 보내 외치게 했다. "그 늙은이에게 전하라! 어서 항복하면 성안의 백성들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말이다!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성을 통째로 짓밟아버릴 것이니, 노인과 아이들도 살아남지 못할 줄 알라고 전하라!"

한편, 엄안은 파군에 머물고 있었다. 유장이 법정을 보내 유비를 익주로 불러들였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가슴을 치며 탄식했다. "이것이 바로 외딴 궁벽한 산에 홀로 앉아 호랑이를 끌어들여 스스로를 지키려는 격이로구나!" 이후 유비가 부관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자 엄안은 크게 분노하며 여러 차례 군사를 일으켜 싸우려 했으나, 한편으로는 이 길로 적군이 들이닥칠까 두려워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장비의 군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본대 오륙천 명의 군사를 소집하여 적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어떤 이가 계책을 내며 말했다. "장비는 당양 장판파에서 호통 한 번으로 조조의 백만 대군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조조조차 그 기세에 눌려 피했을 정도이니 결코 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저 깊은 해자를 파고 높은 성벽을 쌓아 굳게 지키며 나가지 않는 것

이 상책입니다. 저들의 군사는 식량이 부족하니 한 달만 버티면 자연히 물러갈 것입니다. 게다가 장비는 성격이 불처럼 급해 병사들을 매질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싸워주지 않으면 분명 화를 낼 것이고, 화가 나면 사나운 기세로 군사들을 다스리려 들 것입니다. 그때 군심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공격하면 장비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엄안은 이 말을 따라 모든 군사를 성 위로 올려 지키게 했다. 그때 갑자기 한 병사가 나타나 "문을 열어라!" 하고 크게 외쳤다. 엄안이 문을 열어주게 한 뒤 이유를 묻자, 그 병사는 장비 장군이 보낸 사람이라며 장비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엄안은 크게 분노하여 꾸짖었다. "무례한 놈이 감히 어찌 이리 방자하단 말이냐! 내가 어찌 적에게 항복할 장수란 말이냐! 네놈의 입을 빌려 장비에게 전해주마!" 엄안은 무사들을 불러 그 병사의 귀와 코를 베어버린 뒤, 다시 진영 안으로 돌려보냈다.

군사가 장비를 찾아가 엄안이 이토록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며 울며 고했다. 장비는 크게 노하여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뜬 채,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 수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파군 성 아래로 가서 싸움을 걸었다. 성 위의 군사들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장비를 비웃었다. 성미가 급한 장비는 몇 번이나 조교까지 쳐들어 가 해자를 건너려 했으나, 빗발치는 화살에 맞아 다시 밀려나기만 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성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자, 장비는 분통을 삭이며 진영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장비는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움을 걸었다. 그런데 엄안이 성 위의 적루에 서 있다가 화살 한 대를 쏘아 장비의 투구를 맞혔다. 장비는 손가락질하며 분노에 차 외쳤다. "이 늙은이를 반드시

붙잡아 내 손으로 직접 살점을 씹어 먹으리라!" 그러나 저녁이 될 때까지 또 허탕만 쳤다.

셋째 날, 장비는 군사를 이끌고 성 주위를 돌며 욕을 퍼부었다. 알고 보니 그 성은 산으로 둘러싸인 산성이었다. 장비가 말을 타고 산에 올라 성 안을 내려다보니, 군사들은 모두 갑옷을 갖춰 입고 대열을 지어 성 안에 매복해 있을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또한 백성들이 돌과 벽돌을 나르며 성을 지키는 것을 도우러 바쁘게 오가는 모습도 보였다. 장비는 기병에게는 말에서 내리게 하고 보병은 모두 앉아 있게 한 뒤 적을 유인하려 했으나,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또 하루를 욕하며 보냈으나 여전히 허사였다.

장비는 진영에 머물며 생각했다. '종일토록 욕을 퍼부어도 저들이 나오지 않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계책이 떠올랐다. 군사들에게는 앞으로 나가 싸움을 걸지 말고 진영에 머물며 전투를 준비하게 하되, 군사 서른~쉰 명 정도만 성 아래로 보내 욕을 퍼붓게 하여 엄안의 군사를 끌어낸 뒤 곧바로 맞붙어 싸우게 하는 것이었다. 장비는 주먹을 불끈 쥐며 적군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소수의 군사들이 사흘 내내 욕을 해도 적군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장비는 미간을 찌푸리며 또 다른 계책을 내놓았다.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흩어져서 땔감을 구하러 다니며 길을 찾게 하고, 직접 싸움을 걸러 나가지 않게 한 것이다. 한편 성 안의 엄안은 며칠째 장비가 움직이지 않자 의아하게 여겼다. 그래서 십여 명의 소수의 군사를 보내 장비의 군사들이 땔감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위장하게 한 뒤,

몰래 성 밖으로 나가 장비의 군사들 사이에 섞여 산속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피게 했다.

그날 모든 군사가 진영으로 돌아왔다. 장비는 진영 안에 앉아 발을 구르며 크게 욕을 퍼부었다. “엄언 저 늙은이가 내 기운을 다 꺾어 놓았구나!” 그때 장비의 막사 앞으로 서너 사람이 다가와 말했다. “장군님, 너무 애태우지 마십시오. 요 며칠 정찰해 보니 바군을 몰래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장비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길이 있었으면 왜 이제야 말하는 것이냐?” 부하들이 대답했다. “며칠 전에서야 겨우 찾아낸 길입니다.” 장비가 말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오늘 밤 이경에 저녁을 먹고, 달빛이 밝은 삼경에 맞춰 진영을 걷어 일어난다. 모두 입에는 쪽지를 물고 말의 방울은 가려라. 아주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 내가 앞장서서 길을 열 테니, 너희는 차례대로 뒤를 따르라.” 장비가 명령을 내리자 진영 전체에 그 소식이 빠르게 퍼져 나갔다.

정찰병들이 소식을 듣고 모두 성 안으로 돌아가 엄안에게 보고했다. 엄안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 무식한 놈이 참을성이 없구나! 네가 샛길로 넘어간다면 분명 뒤편에 군량과 수레가 따를 것이다. 내가 그 후로를 끊어버리면 그놈이 어찌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가련한 놈, 내 계책에 걸려들었구나!”

엄안은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적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다. “오늘 밤 두경(밤 9~11시)에 밥을 지어 먹고, 세경(밤 11시~새벽 1시)에 성을 나가 나무가 우거진 곳에 매복하라. 장비가 좁은 길을 지나 수

레 행렬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북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돌격하라!"

명령을 내린 뒤 밤이 깊어지자, 엄안은 모든 군사에게 배불리 먹이고 무기를 갖추게 한 뒤 조용히 성을 나가 곳곳에 매복시켰다. 엄안 자신도 수십 명의 부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말을 내려 숲속에 숨어 북소리만을 기다렸다.

새벽 세경 무렵, 멀리서 장비가 직접 앞장서서 창을 휘두르고 말을 달리며 조용히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는 모습이 보였다. 장비가 3, 4리쯤 나아갔을 때, 뒤이어 수레와 인마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상황을 파악한 엄안이 일제히 북을 치자 사방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모두 일어났다.

군사들이 수레를 약탈하려던 찰나, 뒤쪽에서 징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들이닥치며 크게 외쳤다. "이 도적놈아, 거기 서라! 마침 잘 만났다!" 엄안이 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맨 앞에 선 장수는 표범 같은 머리에 눈은 부릅떴고, 턱은 제비처럼 날렵하며 수염은 호랑이처럼 덥수룩했다. 그는 장팔모를 휘두르며 검은 말을 타고 있었는데, 바로 장비였다.

사방에서 징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군사들이 몰려왔다. 엄안은 장비를 보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말을 타고 맞붙어 싸우려 했으나 한 합도 채 되지 않아 장비가 일부러 빈틈을 보였다. 엄안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장비가 재빨리 피하며 엄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장비

는 엄안의 갑옷 틈새를 잡아채 그대로 생포하여 땅바닥에 내동댕이쳤고, 뒤따라온 군사들이 밧줄로 엄안을 꽁꽁 묶었다.

알고 보니 먼저 지나갔던 것은 가짜 장비였다. 엄안은 북소리를 신호로 삼았으나, 장비는 징 소리를 신호로 삼았던 것이다. 징 소리가 울리자 장비의 군사들이 일제히 도착했고, 촉나라 군사들 태반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고 말았다.

장비가 파군 성 아래까지 들이닥치자, 후방의 군사들은 이미 성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장비는 백성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고 방을 붙여 민심을 달랬다. 곧 무장들이 엄안을 끌고 왔다. 장비가 대청에 앉아 있자 엄안은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았다. 장비가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크게 꾸짖었다.

"대장군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항복하지 않고 감히 적을 거스르려 하는가!"

엄안은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이 오히려 장비를 향해 꾸짖었다.

"너희는 의리가 없으니 우리 주와 군을 침범한 것이다! 여기에는 목을 내놓을 장군은 있어도, 항복할 장군은 없다!"

장비가 크게 노하여 좌우의 부하들에게 명해 그를 베라고 했다. 그러자 엄안이 소리쳤다.

"이 도적놈아! 베려거든 그냥 베어라,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

장비가 엄안의 목소리가 웅장하고 안색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노여움을 거두고 오히려 기뻐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장비는 좌우의 부하들을 물러나게 한 뒤, 직접 엄안의 포박을 풀어주고 옷을 입혀준 다음, 정중앙의 높은 자리에 앉히고 고개를 숙여 절하며 말했다.

"방금 드린 말씀이 무례하였으니 부디 꾸짖지 마십시오. 저는 평소 노장군께서 호걸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안은 장비의 은혜와 의리에 감동하여 결국 항복했다. 후대의 사람들이 엄안을 찬양하며 지은 시가 이러하다.

"백발의 노장은 서촉에 살며, 맑은 명성은 나라를 뒤흔드네. 충심은 밝은 해와 같고, 호기는 장강을 휘감도다. 차라리 목이 잘려 죽을지언정, 어찌 무릎 꿇고 항복하랴? 파주의 노장군, 천하에 다시 없을 인물이로다."

또한 장비를 찬양하는 시도 있다.

"살아서 엄안을 사로잡은 용맹은 비할 데 없고, 오직 의기로 군사와 백성을 복종시켰네. 지금도 사당의 모습은 파촉에 남아 있고, 제사 음식이 매일같이 풍성하구나."

장비가 익주로 들어갈 계책을 묻자 엄안이 말했다.

"패한 장수로서 과분한 은혜를 입었으니 보답할 길이 없어, 그저 미천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활을 쏘고 화살을 날릴 필요 없이, 곧장 성도로 가십시오."

이는 바로 다음과 같다.

“장수의 마음이 움직이니, 성 하나를 손쉽게 얻게 되었구나.”

그 계책이 과연 어떠할지는 결국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4회 — 공명이 계책을 세워 장임을 잡고, 양부가 병사를 빌려 마초를 격파하다

孔明定計捉張任 楊阜借兵破馬超

한편, 장비가 엄언에게 계책을 묻자 엄언이 대답했다. "여기서 낙성까지 지키고 있는 모든 관문은 모두 이 노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군들이 모두 제 손바닥 안에 있으니, 장군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다면 제가 앞장서서 길을 열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군사들을 불러내어 항복을 받아내겠습니다." 장비는 거듭 감사를 표했다. 그리하여 엄언이 앞장서고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그 뒤를 따랐다. 엄언이 관리하는 곳마다 군사들이 속속 투항해 왔다. 혹시라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자가 있으면 엄언이 말했다. "나조차도 항복했는데, 하물며 너희라고 못 하겠느냐?" 그 말을 들은 이들은 모두 기세를 보고 스스로 항복해 왔으니, 단 한 차례의 싸움도 벌어지지 않았다.

한편, 제갈량은 이미 유비에게 출발 날짜를 보고하여 낙성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유비가 여러 장수와 상의하며 말했다. '이제 제갈량과 장비가 두 갈래로 나누어 촉 땅으로 들어와 낙성에서 만나 성도로 함께 진격할 것이오. 수로와 육로의 배와 수레는 이미 7월 20일에 출발했으니, 그때가 되면 도착할 것이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즉시 군사를 일으킵시다.' 그러자 황충이 말했다. '장임이 매일같이 싸움을 걸어오지만, 성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적군이 방심하여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밤 병력을 나누어 적의 진영을 습격한다면, 대낮에 싸우는 것보다 훨씬 쉽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비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황충에게는 왼쪽을, 위연에게는 오른쪽을 맡기고 자신은 중앙로를 택하도록 명령했다. 그날 밤 이경(밤 9시에서 11시 무렵), 세 갈래의 군마가 일제히 출발했다. 장임은 과연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나라 군사들이 적의 본진으로 몰려 들어가 불을 지르자, 거센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촉나라 군사들은 급히 달려가 밤새도록 낙성에 소식을 전했고, 성 안의 병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다. 유비는 중앙로에 진을 쳤고, 다음 날 군사를 이끌고 낙성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장임은 병력을 유지한 채 성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공격이 4일째 되던 날, 유비는 직접 한 부대를 이끌고 서문을 공격했고, 황충과 위연에게는 동문을 공격하게 했다. 그리고 남문과 북문은 군사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비워 두었다. 원래 남문 쪽은 온통 산길이었고, 북문 쪽에는 부수(涪水)가 흐르고 있어 굳이 에워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장임은 유비가 서문 쪽에서 말을 타고 오가며 성을 공격하도록 지휘하는 모습을 보았다. 진시부터 미시까지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자 병사

들과 말들도 점차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장임은 부하 장수인 오란과 뇌동에게 병사를 이끌고 북문으로 나갔다가 동문으로 돌아가 황충과 위연을 상대하게 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남문으로 나가 서문 쪽으로 돌아가 유비를 홀로 맞이했다. 성 안에서는 백성들까지 모두 성벽 위로 올라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전투를 도왔다.

한편, 유비는 붉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보고 후군에게 먼저 퇴각하라고 명령했다. 군사들이 몸을 돌려 물러나는데, 갑자기 성 위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남문 안에서 적군의 군마들이 튀어나왔다. 장임은 곧장 유비의 진영으로 들이닥쳐 유비를 잡으려 했다. 유비의 군대는 큰 혼란에 빠졌다. 황충과 위연마저 오란과 뇌동에게 가로막혀, 서로 도울 겨를도 없이 고전했다. 유비는 장임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말을 몰아 산속의 외진 길로 도망쳤다. 장임은 유비의 뒤를 쫓아왔고, 어느덧 거리가 좁혀졌다. 유비는 말 한 필에 의지해 홀로 도망치고 있었고, 장임은 수하 기병들을 이끌고 바짝 추격해 왔다.

유비가 앞을 내다보며 최대한 채찍질하여 서둘러 나아가는데, 갑자기 산길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들이닥쳤다. 유비는 말 위에서 괴로워하며 외쳤다. "앞에는 복병이 있고 뒤에는 추격병이 있으니, 하늘이 나를 버리려 하는구나!" 그런데 달려오는 군대의 선두에 선 대장은 다름 아닌 장비였다. 알고 보니 장비는 엄언과 함께 그 길로 오던 중이었다. 장비는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촉나라 군사와 싸우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장비가 앞장서서 달려오다 장임과 정면으로 마주치자, 곧바로 말을 몰아 맞붙어 싸웠다. 열 합 남짓 싸우고 있을 때, 뒤에서 엄언이 군사를 이끌고 크게 진격해 왔다. 장임이 급히 몸을 돌려 대응하는 사

이, 장비는 곧장 성 아래까지 쫓아갔다. 장임은 성 안으로 퇴각하며 조교를 끌어올려 다리를 끊어버렸다.

장비가 유비에게 돌아와 말했다. "군사께서 강을 거슬러 오고 계시지만 아직 도착하지도 않으셨는데, 제가 먼저 큰 공을 세워 버렸습니다." 유비가 물었다. "산길이 험하고 험난한데, 어찌 군사들의 도움도 없이 이토록 거침없이 먼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느냐?" 장비가 대답했다. "길목마다 있는 마흔다섯 곳의 관문을 모두 노장 엄언이 열어준 덕분입니다. 덕분에 오는 길에 힘을 조금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엄언이 어떻게 협조하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며 엄언을 유비에게 인도했다. 유비가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노장군이 아니었다면 내 아우가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유비는 즉시 자신이 입고 있던 황금 갑옷을 벗어 엄언에게 하사했다. 엄언은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다.

한창 연회를 준비하려는데, 갑자기 초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황충과 위연이 촉의 장수 오란, 뇌동과 맞붙었는데, 성 안에서 오의와 유궤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가세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협공하는 바람에 우리 군이 버티지 못하고 황충과 위연 두 장군이 패하여 동쪽으로 퇴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비는 즉시 유비에게 청하여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구원을 떠났다. 장비는 왼쪽으로, 유비는 오른쪽으로 나아가 적진을 향해 돌격했다. 오의와 유궤는 뒤쪽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오자 당황하여 성 안으로 황급히 퇴각했다. 오란과 뇌동은 황충과 위연을 뒤쫓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가, 유비와 장비가 퇴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길을 막혔다. 이때 황충과 위연이 다시 말머리를 돌려 공격해 왔다. 오

란과 뇌동은 적을 당해낼 재간이 없음을 깨닫고, 결국 본대의 군마를 이끌고 항복했다. 유비는 이들의 항복을 받아주고, 성 근처에 진을 쳤다.

한편, 장임은 부하 장수 두 명을 잃자 마음속에 의구심과 불안이 생겼다. 이때 오의와 유궤가 말했다. "전세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병력을 거두어 퇴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성도에 있는 주군께 급한 소식을 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책을 써서 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장임이 말했다. "내일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는 척하다가 거짓으로 패하며 성 북쪽으로 유인하겠소. 그사이 성 안에서 다른 군사를 내보내 적의 길목을 끊는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오."

오의가 말했다. "유 장군께서 공자를 도와 성을 지키십시오. 제가 병사를 이끌고 나가 나가 싸우는 것을 돕겠습니다."

전투 날짜가 정해졌다. 다음 날, 장임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깃발을 흔들며 함성을 지르더니, 성 밖으로 나와 싸움을 걸어왔다. 장비가 말을 타고 맞서 나갔으나, 아무런 말도 섞지 않고 곧장 장임과 맞붙었다. 열 합 남짓 싸우던 중 장임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성 주위를 빙빙 돌아 달아나기 시작했다. 장비는 힘껏 그 뒤를 쫓았다. 그때 오의가 이끄는 한 부대가 앞을 가로막자, 장임은 군사를 돌려 다시 공격해 들어왔다. 결국 장비는 적진 한가운데 포위되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다.

막막한 상황에서 갑자기 강가 쪽에서 한 부대가 들이닥쳤다. 앞장선 장수가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오의와 맞붙더니, 단 한 합 만에 오의를 생포하고 적군을 물리치며 장비를 구해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조운이었다. 장비가 물었다. "군사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조운이 대답했다. "군사께서는 이미 도착하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주군을 뵙고 계실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오의를 사로잡아 진영으로 돌아갔고, 장임은 스스로 동문으로 퇴각하여 사라졌다.

장비와 조운이 진영으로 돌아오니, 제갈량과 간옹, 장완이 이미 막사에 들어와 있었다. 장비가 말에서 내려 군사에게 인사를 건넸다. 제갈량이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이리 먼저 도착했습니까?' 유비가 엄언을 의롭게 풀어주어 항복시킨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제갈량이 축하하며 말했다. '장 장군께서 계책을 쓸 줄 아시니, 이는 모두 주군의 크나큰 복입니다.' 조운이 오의를 풀어 유비에게 데려왔다. 유비가 물었다. '그대는 항복하겠는가?' 오의가 대답했다. '이미 붙잡혔는데 어찌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직접 그의 포박을 풀어주었다. 제갈량이 다시 물었다. '성안에 수비하는 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오의가 답했다. '유계옥의 아들 유순과 부장인 유궤, 장임이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궤는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니지만, 장임은 촉군(蜀郡) 사람으로 담력과 지략이 매우 뛰어나니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먼저 장임을 잡은 뒤에 낙성을 취하겠다.' 그러고는 다시 물었다. '성 동쪽에 있는 저 다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의가 말했다. '금안교입니다.'

제갈량은 곧바로 말을 타고 다리 근처까지 가서 강 주변을 샅샅이 살펴본 뒤, 진영으로 돌아와 황충과 위연을 불러 명령을 내렸다. '금안교에서 남쪽으로 5~6리 떨어진 곳을 보면 양쪽 강변에 갈대가 무성하니, 그곳에 매복하기에 적당하다. 위연은 창병 천 명을 이끌고 왼쪽에 매복하여 말 위의 적장만 찌르고, 황충은 도병 천 명을 이끌고 오른쪽에 매복하여 적이 타고 있는 말만 베어라. 적군을 격파하면 장임은 반드시 산 동쪽 샛길로 도망칠 것이다. 그때 장비가 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곳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사로잡도록 하라.' 이어 제갈량은 조운을 불러 금안교 북쪽에 매복하게 하며 다시 말했다. '내가 장임을 유인해 다리를 건너게 하면, 그 즉시 다리를 끊어버려라. 그리고 다리 북쪽에 군사를 배치해 멀리서 기세를 떨쳐라. 그래야 장임이 북쪽으로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남쪽으로 후퇴하게 되어, 우리의 계책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매복 배치를 모두 마친 제갈량은 직접 적을 유인하러 나섰다.

한편, 유장은 장익과 탁응 두 장수를 낙성으로 보내 전투를 돕게 했다. 장임은 장익과 유궤에게 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탁응과 함께 두 부대로 나누어 앞뒤로 나섰다. 장임이 앞 부대를 맡고 탁응이 뒤 부대를 맡아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물리치려 했다. 이때 제갈량이 정비되지 않은 군사 한 부대를 이끌고 금안교를 건너와 장임과 대치했다. 제갈량은 사륜거를 타고 부채를 든 채 나타났는데, 양옆으로 백여 명의 기병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 제갈량이 장임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조조조차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도 내 이름을 듣더니 겁을 먹고 달아났거늘, 네놈은 대체 누구길래 감히 항복하지 않으려 하느냐?"

장임은 제갈량의 군대가 대열이 흐트러진 것을 보고 말 위에서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제갈량이 신기묘산의 병법을 쓴다더니, 알고 보니 이름뿐이었구나!" 그러고는 창을 한 번 휘두르며 크고 작은 군사들을 일제히 몰아붙였다. 제갈량은 네 바퀴 달린 수레를 버려두고 말을 타고 달려 다리를 건너 퇴각했다. 장임이 그 뒤를 바짝 쫓아왔다. 금안교를 지나니 왼쪽에는 유비의 군대가, 오른쪽에는 엄언의 군대가 버티고 서서 돌격해 오고 있었다. 장임은 이것이 함정임을 깨닫고 급히 군사를 돌리려 했으나 이미 다리는 끊어진 뒤였다. 북쪽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조운의 군대가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는, 북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강을 따라 남쪽으로 우회하여 달아났다.

오 리나 육 리쯤 더 가니 마침 갈대숲이 우거진 곳이 나타났다. 이때 위연이 이끄는 군사가 갈대 사이에서 갑자기 일어 일어나며 장창으로 사방을 마구 찔러댔다. 황충이 이끄는 군사는 갈대 속에 매복해 있다가 장도로 말의 발등을 마구 베어 넘겼다. 말들이 힘없이 쓰러지자 병사들은 모두 붙잡혔고, 보병들이 어찌 감히 달려들 수 있었겠는가? 장임이 수십 기의 기병을 이끌고 산길로 도망치려다 마침 장비와 맞닥뜨렸다. 장임이 막 퇴각하려 할 때, 장비가 크게 호통을 치자 모든 군사가 일제히 달려들어 장임을 생포했다. 알고 보니 탁응은 장임이 계책에 빠진 것을 보고 이미 조운의 군대 앞으로 가서 항복했으며, 모든 병사가 한꺼번에 대영으로 모여든 것이었다.

유비는 탁응에게 상을 내렸고, 이어 장비가 장임을 끌고 왔다. 제갈량 역시 군막 안에 앉아 있었다. 유비가 장임에게 말했다. '촉 땅의 여러 장수가 기세만 보고도 항복하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진작 항복하지 않았는가?' 장임이 눈을 부릅뜨고 분노하며 외쳤다. '충신이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소!' 유비가 말했다. '그대는 천시를 모르는구려. 지금 항복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소.' 장임이 대답했다. '내 설령 오늘 항복한다 해도 훗날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어서 나를 죽이시오!' 유비는 차마 그를 죽이지 못했다. 장임이 서슬 퍼런 목소리로 크게 꾸짖자, 제갈량이 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후대의 사람들이 시를 지어 그를 찬양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열사가 어찌 두 주인을 섬기려 하겠는가, 장군은 충직하고 용맹하여 죽었으나 살아있는 듯하네. 높고 밝은 그 절개가 마치 하늘가의 달과 같으니, 밤마다 그 빛이 낙성을 비추는구나.'

유비는 깊이 탄식하며 그의 시신을 거두어 금안교 근처에 묻어주게 하니, 이는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이튿날, 유비는 엄언과 오의 등 촉 땅에서 항복한 장수들을 선봉으로 삼아 낙성까지 진격하게 했다. 유비의 군사들이 낙성 앞에서 크게 외쳤다. "어서 문을 열고 항복하라! 그러면 성 안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을 면할 수 있다!" 성 안에서 유궤가 크게 욕설을 퍼부으며 맞섰다. 엄언이 화살을 쏘아 그를 맞히려는 찰나, 갑자기 성 위에서 한 장수가 나타나 칼을 휘둘러 유궤를 베어 넘기더니, 이내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 유비의 군대가 낙성에 입성할 때, 유순은 서문을 통해 탈출하여 성도로 도망쳤다. 유비는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유궤를 죽인 장수는 무양 사람인 장익이었다.

유비는 낙성을 점령한 뒤 장수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제갈량이 말했다. "낙성이 함락되었으니 이제 성도는 눈앞에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와 군의 정세가 불안할까 걱정됩니다. 장익과 오의에게 조운을 거느리고 나가 외곽의 물길을 살피게 하여 강양과 견위 등 소속 주와 군을 안정시키도록 하십시오. 또한 엄언과 탁응에게는 장비를 따라 파서와 덕양 소속의 주와 군을 안정시키게 하십시오. 그곳의 관리를 임명하고 다스려 평정하게 한 뒤,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성도로 돌아와 합류하게 하면 됩니다." 장비와 조운이 명을 받들어 각자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제갈량이 물었다. "앞으로 가려면 어떤 관문들을 지나야 합니까?" 촉 땅의 항복한 장수가 대답했다. "면죽에 중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면죽을 얻는다면 성도는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갈량이 즉시 진군을 논의하자, 법정이 말했다. "낙성이 함락되었으니 이제 촉 땅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주군께서는 인의로써 사람들을 복종시키려 하시니, 우선 진군을 멈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유장에게 서신을 보내 이익과 손해를 상세히 설명한다면, 유장도 자연히 항복할 것입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법정의 말이 가장 옳소." 그러고는 즉시 서신을 써서 사람을 보내 성도로 보냈다.

한편, 유순이 성도로 도망쳐 돌아와 아버지에게 낙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유장은 급히 관리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종사 정도가 계책을 올리며 말했다.

"지금 유비가 성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고는 있으나, 군사 수가 그리 많지 않고 백성들도 아직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군량을 보충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형편입니다. 차라리 파서와 자통의 백성들을 모두

몰아 부수강 너머 서쪽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그곳의 창고와 곡식은 모조리 태워 없애고, 깊은 해자와 높은 성벽을 쌓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유비가 공격해 오더라도 응전하지 마십시오. 보급이 끊겨 백 일도 채 버티지 못하면 그들은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빈틈을 노려 공격하면 유비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유장이 말했다. "그건 안 될 말이오. 나는 적을 막아내어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적을 대비하겠다고 백성을 움직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소. 그대의 말은 나라를 보존할 계책이 아니오."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중, 법정이 보낸 서신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장이 법정을 불러들이고 서신을 건네주자, 유장이 그것을 펼쳐 내용을 살펴보니 대략 이러했다.

"예전에 사신을 보내 형주와 우호 관계를 맺으려 했으나, 뜻밖에도 주공의 곁에 적절한 인물이 없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형주에서는 옛 정을 생각하며 일가친척의 의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공께서 마음을 돌려 귀순하신다면 결코 홀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여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유장은 크게 노하여 법정의 서신을 찢어버리며 호통을 쳤다. "법정은 주인을 팔아 영광을 좇는, 은혜를 저버리고 의리를 배신한 도적놈이로구나!" 유장은 사자를 성 밖으로 쫓아버린 뒤, 즉시 처남인 비관을 보내 군사를 이끌고 면죽을 지키게 했다. 비관은 남양 출신의 이엄을

추천하여 함께 군사를 거느리게 했다. 이로써 비관과 이엄은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면죽을 수비하기 위해 나섰다.

한편, 익주의 태수 동화는 한중의 장루에게 군사를 빌려달라는 상소를 유장에게 올렸다. 유장이 말했다. "장루는 나와 대대로 원수 사이인데, 그가 어찌 나를 도와주겠는가?" 그러자 동화가 대답했다. "비록 원수 사이라 할지라도, 지금 유비의 군대가 낙성을 공략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니, 이해득실을 따져 설득한다면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장은 서신을 작성하여 사자를 한중으로 보냈다.

한편, 마초는 전쟁에서 패한 뒤 강족의 땅으로 들어가 2년 넘게 머물며 강족 병사들과 친교를 맺고 농서 지역의 주와 군을 차례로 공격해 점령했다. 마초가 가는 곳마다 모두 항복했으나, 오직 기성만은 함락시키지 못했다. 기성의 자사 위강은 하후연에게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후연은 조조의 허락을 받지 못해 감히 군사를 움직일 수 없었다. 위강은 구원병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장수들과 상의하며 말했다. "차라리 마초에게 항복하는 게 좋겠소." 이때 참군 양부가 울면서 간언했다. "마초 같은 반역자들에게 어찌 항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강이 대답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항복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소?" 양부가 간곡히 말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위강은 성문을 활짝 열고 마초에게 항복했다. 마초는 크게 노하며 말했다. "그대는 지금 상황이 급박하여 항복하는 것이니 진심이 아니로구나!" 그러고는 위강을 비롯한 40여 명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참수했다. 어떤 이가 "양부가 위강에게 항복하지 말라고 권

했으니 그를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마초가 말했다. "이 사람은 의리를 지켰으니 죽여서는 안 된다." 마초는 다시 양부를 참군으로 삼았다. 양부가 양관과 조구 두 사람을 추천하자 마초는 그들을 모두 군관으로 임명했다. 양부가 마초에게 말했다. "제 아내가 임조에서 죽었으니, 두 달간 휴가를 내어 아내를 장사 지내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마초가 그 청을 허락했다. 양부는 역성을 지나 무이장군(撫彝將軍) 강서를 만나러 갔다. 강서와 양부는 고종사촌 사이였다. 강서의 어머니가 곧 양부의 고모였는데, 당시 나이가 이미 여든둘이었다. 그날 양부가 강서의 집 안채로 들어가 고모를 뵙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성을 지키려 했으나 지켜내지 못했고, 주군이 돌아가셨음에도 따라 죽지 못했으니 고모를 뵐 면목이 없습니다. 마초는 임금을 배반하고 군수를 함부로 죽였으니, 이 주의 선비와 백성들 중에 그를 원망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형님은 역성을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도적을 토벌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신하의 도리라 하겠습니까?' 말을 마친 양부는 피눈물을 흘렸다. 강서의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강서를 불러 꾸짖었다. '위 사군(韋使君)이 변을 당한 것도 다 네 죄다.' 그러고는 다시 양부에게 말했다. '너는 이미 적에게 항복하여 그 녹을 먹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다시 토벌할 마음을 품느냐?' 양부가 대답했다. '제가 도적을 따르는 것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훗날 주군을 위해 원수를 갚기 위함입니다.' 강서가 말했다. '마초는 용맹하니 급히 도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양부가 말했다. '용맹하기만 하고 지략이 없으니 도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양관과 조구를 몰래 포섭해 두었습니다. 형님께서 군사를 일으키기만 하신다면, 두 사람이 반드시 안에서 호응할 것입니다.' 강서의 어머니가 말했

다. '진작에 도모하지 않고 무엇을 더 기다리느냐? 누군들 죽지 않겠느냐? 충성과 의리를 위해 죽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마땅한 죽음이다. 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만약 네가 의산(義山, 양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죽어서라도 네 미련을 끊어놓겠다.'

강서는 윤봉, 조앙과 함께 군사를 일으키기로 상의했다. 알고 보니 조앙의 아들 조월은 현재 마초를 따라 부장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조앙은 그날 결심을 굳히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 왕씨에게 말했다. "오늘 강서, 양부, 윤봉과 함께 모여 위강의 원수를 갚기로 논의했소. 그런데 내 아들 조월이 마초를 따르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군사를 일으키면 마초가 분명 내 아들을 먼저 죽일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아내 왕씨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께서 겪으신 수치는 크나큰 치욕입니다.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해도 아깝지 않을 텐데, 하물며 자식 하나뿐이겠습니까? 만약 서방님께서 자식 때문에 일을 추진하지 못하신다면, 저는 먼저 죽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조앙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다음 날 그들은 함께 군사를 일으켰다. 강서와 양부는 역성에 주둔했고, 윤봉과 조앙은 기산에 진을 쳤다. 왕씨는 자신이 가진 장신구와 비단 등을 모두 챙겨 직접 기산의 군영으로 찾아가 군사들에게 상을 내리며 사기를 북돋웠다.

마초는 강서와 양부가 윤봉, 조앙과 힘을 합쳐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즉시 조월을 베어 죽였다. 이어 방덕과 마대에게 명령하여 군마를 모두 몰아 역성을 향해 돌격하게 했다. 강서와 양부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두 진영이 마주하게 되자, 양부와 강서가 흰 옷을 입고 나타나 크게 꾸짖었다. '임금을 배반한 의리 없는 도적놈

같으니라고!' 마초는 격노하여 직접 말을 몰아 돌진했고, 양측 군사들이 뒤섞여 난전이 벌어졌다. 강서와 양부가 마초를 어떻게 버텨내나 싶더니, 결국 대패하여 달아나기 시작했다. 마초가 군사를 몰아 뒤쫓던 중, 등 뒤에서 함성이 들리더니 윤봉과 조앙이 습격해 왔다. 마초가 급히 몸을 돌려 대응하려 했으나, 양쪽에서 협공을 가하니 앞뒤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한창 싸우고 있을 때, 옆쪽에서 대규모 군마가 몰려왔다. 알고 보니 하후연이 조조의 명령을 받고 마초를 격파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었다. 마초가 이 세 갈래의 군사를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그는 대패하여 밤새도록 도망쳤다. 날이 밝아 기성에 도착해 성문을 두드렸으나, 성 위에서는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성 위에 서 있던 양관과 조구가 마초를 향해 크게 욕설을 퍼부으며, 마초의 아내인 양씨(楊氏)를 칼로 베어 성 아래로 던져버렸다. 또한 마초의 어린 아들 세 명과 가까운 친척 십여 명도 모두 성 위에서 칼로 하나하나 베어 성 밖으로 내던졌다.

마초는 울화가 치밀어 가슴이 막히고 숨이 가빠져, 하마터면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뒤에서는 하후연이 군사를 이끌고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었다. 마초는 적세가 너무 강한 것을 보고 감히 싸움을 이어갈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방덕, 마대와 함께 길을 뚫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앞에서는 강서와 양부를 만나 한바탕 싸웠고, 겨우 빠져나오니 이번에는 윤봉과 조앙을 만나 또다시 싸워야 했다. 이렇게 여기저기 부딪히며 흩어진 끝에 겨우 쉰에서 예순 명 정도의 기병만 남게 되었고, 그들은 밤을 도와 계속 달아났다. 사경(四更, 새벽 1시에서 3시 무렵), 마초 일행이 역성 아래에 이르자 성문을 지키던 이들은 강서의 군대가 돌아온 줄로만 알고 성문을 활짝 열어 그들을 맞아들였다. 마초는 성의

남문 쪽을 통해 난입하여 성안의 백성들을 무참히 살육했다. 마초는 강서의 집까지 들이닥쳐 그의 노모를 붙잡아 왔다. 그러나 노모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마초를 가리키며 크게 꾸짖었다. 이에 격노한 마초는 스스로 칼을 뽑아 어머니를 죽여버렸다. 윤봉과 조앙의 가족들 또한 노인과 아이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마초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다만 조앙의 아내 왕씨는 군중에 머물고 있었던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다음 날 하후연의 대군이 도착하자, 마초는 성을 버리고 뛰쳐나와 서쪽을 향해 도망쳤다. 채 이십 리도 못 가서 앞길이 막혔는데, 그 앞에는 양부가 이끄는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마초는 이를 갈며 분노하여 말을 몰아 창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양부의 형제 일곱 명이 일제히 달려들어 전투를 도왔고, 마대와 방덕은 후군을 막아섰다. 그러나 양부의 형제 일곱 명은 모두 마초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양부 또한 마초의 창에 다섯 번이나 찔리면서도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뒤이어 하후연의 대군이 몰려오자 마초는 결국 도망쳤고, 방덕과 마대 등 대여섯 명의 기병만이 그 뒤를 따랐다. 하후연은 직접 서쪽 여러 주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강서 등에게 각 지역을 나누어 지키게 했다. 또한 수레에 양부를 태워 허도로 압송하여 조조를 만나게 했다. 조조는 양부를 관내후로 봉했다. 양부가 말하기를, "저는 적을 막아낸 공도 없고,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의리도 없으니 법대로라면 마땅히 죽어야 할 몸입니다. 어찌 염치없이 관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러나 조조가 그를 높이 평가하여 결국 작위를 내렸다.

한편, 마초는 방덕, 마대와 상의하여 곧장 한중으로 가서 장루에게 몸을 의탁하기로 했다. 장루는 마초를 얻게 되면 서쪽으로는 익주를 삼키고 동쪽으로는 조조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크게 기뻐했다. 이에 장루는 자신의 딸을 마초에게 시집보내 사위로 삼을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대장 양백이 간언했다. "마초의 처자식이 비참한 화를 당한 것은 모두 마초가 불러온 재앙 때문입니다. 주공께서 어찌 딸을 그에게 주려 하십니까?" 장루는 양백의 말을 따랐고, 결국 사위로 삼으려던 계획을 접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양백의 말을 마초에게 전했다. 마초는 크게 분노하며 양백을 죽일 기세로 덤벼들었다. 양백은 이 사실을 알고 형 양송과 상의하여 마초를 해칠 계책을 꾸몄다.

한편, 유장이 장루에게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으나 장루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유장이 다시 황권을 보내왔다는 소식이 급히 전해졌다. 황권은 먼저 양송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동쪽과 서쪽의 두 땅은 서로 입술과 이빨 같은 관계입니다. 서쪽 땅이 무너지면 동쪽 땅 또한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 구원해 주신다면, 마땅히 스무 개의 주를 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송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황권을 장루에게 안내했다. 양송은 장루에게 양측의 이해관계를 설명하며, 스무 개의 주를 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 장루는 그 이익에 마음이 움직여 황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때 파서(巴西)의 염포가 나서서 간언했다. '유장은 주공과 대대로 원수 사이입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땅을 떼어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며 구원해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떤 이

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의 재주가 비록 부족하나, 부디 군사 한 부대를 내어주신다면 반드시 유비를 생포해 오겠습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땅을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정한 주인이 서촉으로 찾아오고, 한중에서 정예병이 출정하는구나. 그 인물이 누구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진다.

제65회 — 마초가 가맹관에서 크게 싸우고, 유비가 스스로 익주목을 맡다

馬超大戰葭萌關 劉備自領益州牧

한편, 염보는 장루에게 유장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권하고 있었다. 이때 마초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는 주공의 은혜에 깊이 감동하여 이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원컨대 저에게 군사를 맡겨 주시면 가맹관을 공격하여 유비를 생포하겠습니다. 반드시 유장이 이십 개 주를 떼어 주공께 바치도록 만들겠습니다."

장루는 크게 기뻐하며, 먼저 황권을 보내 샛길로 돌아가게 한 뒤 곧바로 이만 명의 병사를 뽑아 마초에게 주었다. 이때 방덕은 병이 들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에 한중에 머물러 있었다. 장루는 양백을 보내 군사를 감독하게 했다. 마초는 동생 마대와 함께 날을 잡아 길을 떠났다.

한편, 유비의 군대는 낙성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 법정이 보낸 전령이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다. "정도라는 자가 유장에게 들판의 곡식과 곳곳의 창고를 모두 불태우고, 파서 지역의 백성들을 이끌고 부수 서쪽으로 피난하여, 깊은 해자와 높은 성벽을 쌓고 싸움을 피하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와 제갈량은 모두 크게 놀라며 말했다. "만약 유장이 그 말대로 한다면 우리 형세가 매우 위험해지겠구나!" 그러자 법정이 웃으며 말했다. "주공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계책이 비록 독하긴 하나, 유장이 결코 따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유장이 백성들을 옮기려 하지 않고 정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비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 제갈량이 말했다. "속히 군사를 움직여 면죽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곳을 얻으면 성도를 차지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에 제갈량은 황충과 위연에게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라고 명했다. 면죽을 지키던 비관은 유비의 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엄을 보내 맞이하게 했다. 이엄은 삼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진을 치고 준비를 마쳤다. 황충이 말을 타고 나가 이엄과 사오십 합(40~50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진중에 있던 제갈량이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어들이라고 하자, 황충이 진으로 돌아와 물었다. "이엄을 막 잡아내려던 참인데, 군사께서는 어찌하여 군사를 거두라고 하십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이미 이엄의 무예를 보았는데, 힘으로 억지로 꺾기는 어렵겠소. 내일 다시 싸울 때 그대가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며 적을 산골짜기로 유인하시오. 그러고 나서 기습 부대를 보내 승리를 거두어야 하오."

황충이 계책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이엄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몰려오자 황충이 다시 출전했다. 황충은 열 합도 채 되지 않아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군사를 이끌고 급히 달아났다. 이엄이 그 뒤를 쫓아 산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급히 되돌아가려 했으나, 앞에는 이미 위연이 군사를 이끌고 진을 치고 있었다. 제갈량은 산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외쳤다. "그대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양쪽 길목에 이미 강력한 노(弩)를 매복시켜 두었으니, 우리 방통(방사원)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다!" 이엄은 급히 말에서 내려 갑옷을 벗고 항복하였으며, 군사들 중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제갈량이 이엄을 데리고 유비를 만나게 하니, 유비는 그를 매우 후하게 대접했다. 이엄이 말했다. "비관은 비록 익주의 친척이지만 저와는 매우 가까운 사이이니, 제가 가서 그를 설득하겠습니다." 유비는 즉시 이엄에게 성으로 돌아가 비관을 설득하여 항복시키라고 명했다.

이엄은 면죽성으로 들어간 뒤, 비관에게 유비의 인덕이 이토록 깊으니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권했다. 비관이 그 말을 따랐기에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 유비는 곧 면죽성에 입성하여 군사를 나누어 성도를 공격할 방도를 논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급보가 날아들었다. "맹달과 곽준이 가맹관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한중의 장루가 보낸 마초가 양백, 마대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구원병이 늦어지면 관문이 위험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유비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조운과 장비 정도는 되어야 적을 상대할 수 있을 텐데."

유비가 이어 말했다.

"조운은 군사를 이끌고 밖에 나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으니, 장비가 여기 있으니 어서 조운에게 소식을 전하라."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잠시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직접 조운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한편, 장비는 마초가 관문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외치며 안으로 들어왔다. "형님, 잠시 인사드리고 마초를 치러 가겠습니다!"

제갈량은 못 들은 척하며 유비에게 말했다. "지금 마초가 관문을 침범하고 있으나, 이를 막아낼 만한 적수가 없습니다. 형주에 있는 관우를 데려오지 않는 한, 적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장비가 말했다. "군사께서는 어찌 저를 이리 얕보십니까? 저는 예전에 혼자서 조조의 백만 대군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마초 같은 자 하나가 두려울 것 없습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장비 장군께서 물을 막고 다리를 끊었던 것은 조조가 군사의 허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조가 허실을 알았더라면 장군께서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마초의 용맹함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위교(渭橋)에서의 큰 전투에서 조조가 수염을 자르고 옷을 버리며 겨우 목숨을 구했을 정도이니,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관우라 해도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장비가 다시 말했다. "저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만약 마초를 이기지 못한다면 군령대로 처벌받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장군께서 서신을 써서 보내주신다면 선봉으로 나서게 하겠습니다. 주공께서는 직접 가보셔야겠습니다. 저는 면죽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조운이 도착하면 그때 다시 의논하도록 하시지요."

그러자 위연이 말했다. "저 또한 가고 싶습니다."

제갈량은 위연에게 정찰 기병 오백을 이끌고 앞서 나가라 명했고, 장비가 그 뒤를 따랐으며 유비가 후방을 맡아 가맹관을 향해 진군했다. 위연이 정찰 기병을 이끌고 관문 아래에 도착하니 마침 양백과 마주쳤다. 위연과 양백이 맞붙어 싸웠으나 열 합을 채 넘기지 못하고 양백이 패하여 달아났다. 위연은 장비보다 먼저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기세를 몰아 뒤쫓아갔다. 그때 앞쪽에서 한 부대가 진을 치고 나타났는데, 그 선두에 선 이는 마대였다. 위연은 그가 마초인 줄로만 알고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맞섰다. 위연과 마대가 열 합도 안 되어 싸우다 마대가 패하여 물러났다. 위연이 다시 뒤쫓아가자 마대가 몸을 돌려 쏜 화살에 위연의 왼쪽 팔을 맞혔다. 위연은 급히 말을 돌려 도망쳤다. 마대가 관문 앞까지 쫓아갔을 때, 갑자기 천둥 같은 함성과 함께 한 장수가 관 위에서 말을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눈앞까지 달려 내려왔다. 알고 보니 장비가 막 관문에 도착했다가 관문 아래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살펴보던 중, 위연이 화살에 맞는 것을 보고 급히 말을 달려 내려와 위연을 구한 것이었다.

장비가 소리치며 마대에게 말했다. "너는 누구냐? 먼저 성명을 밝히고 나서 싸우자!" 마대가 대답했다. "나는 서량의 마대다!" 장비가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마초가 아니었구나! 어서 돌아가라!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 마초 그놈더러 직접 오라고 해라! 연나라 사람 장비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마대가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네가 감히 나를 업신여기다니!" 그러고는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장비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열 합도 채 되지 않아 마대는 패하여 달아났다. 장비가 뒤쫓으려 하는데, 누군가 관 위에서 말을 타고 내려오며 외쳤다. "형제여, 그만 쫓아가시오!" 장비가 돌아보니 유비가 도착해 있었다. 장비는 추격을 멈추고 유비와 함께 관 위로 올라갔다. 유비가 말했다. "네 성격이 급할까 봐 내가 뒤따라 서둘러 왔다. 이미 마대를 이겼으니 오늘은 일단 쉬고, 내일 마초와 싸우자꾸나."

다음 날 날이 밝자, 관문 아래에서 북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더니 마초의 군대가 도착했다. 유비가 관 위에서 살펴보니, 깃발 그림자 사이로 마초가 말을 타고 창을 치켜든 채 나타났다. 사자 모양의 투구에 짐승 가죽을 두르고 은빛 갑옷에 흰 도포를 입은 모습은, 그 기세가 비범할 뿐만 아니라 인물 또한 매우 출중했다. 유비가 감탄하며 말했다. "사람들이 '금마초'라 칭송하는 것이 과연 빈말이 아니구나!"

장비가 즉시 관 아래로 내려가려 하자, 유비가 급히 말리며 말했다. "잠시 출전은 참아라. 우선 저들의 기세를 피해야 한다." 관 아래에서는 마초가 혼자서 장비를 상대하려 했고, 관 위의 장비는 마초를 단숨에 집어삼키고 싶은 심정으로 몇 차례 달려들었으나 그때마다 유비가 가로막았다.

어느덧 오후가 되었을 때, 유비가 마초의 진영에 있는 군사들과 말들이 모두 지쳐 있는 것을 보고는, 기병 오백 명을 선발하여 장비를 따라 관 아래로 돌격시켰다. 마초는 장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창을 뒤로 휘둘러 신호를 보내자, 약 화살 한 발 거리만큼 군대를 물렸다. 그러자 장비의 군마들도 일제히 멈춰 섰고, 관 위의 군사들도 속속들이 내려왔다.

장비가 창을 곧게 세우고 말을 몰아 나가며 크게 외쳤다. "연나라 사람 장익덕을 알아보겠느냐!" 그러자 마초가 말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공후를 지낸 명문가인데, 어찌 시골뜨기 같은 자를 알겠느냐!" 장비가 크게 노하여 두 장수가 동시에 말을 몰아 두 창을 휘둘렀다. 백여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를 지켜보던 유비가 "정말 호랑이 같은 장수로구나!"라며 감탄하면서도, 혹여 장비에게 변이라도 생길까 걱정되어 급히 징을 쳐서 군사를 물렸다. 두 장수는 각자 진영으로 돌아갔다.

장비가 진영으로 돌아와 잠시 말의 갈기를 다듬으며 숨을 돌렸다. 그는 투구도 쓰지 않고 머리에 수건만 질러맨 채 다시 말에 올라 전장으로 나아가 마초와 맞붙었다. 마초 역시 말을 몰아 나오니, 두 사람이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 유비는 장비가 다칠까 걱정되어 직접 갑옷을 갖춰 입고 성문을 내려와 진영 앞까지 내려왔다. 장비와 마초가 백여 합을 더 싸우는 동안 두 사람의 기세는 더욱 드높아졌고, 이를 본 유비가 징을 울려 군사를 물리고자 했다. 두 장수는 서로 떨어져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날이 이미 저물고 있었다. 유비가 장비에게 말했다. "마초가 매우 용맹하니 적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우선 성 위로 올라가 물러나 있자꾸나. 내일 다시 싸우자." 장비는 싸움에 한창 흥이 올라 도저히 그만둘 기색이 없었다. 그는 크게 외쳤다. "죽어도 못 물러납니다!" 유비가 다시 말했다.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더 싸울 수 없다." 장비가 대답했다. "그럼 횃불을 더 많이 준비해서 밤에 싸우면 됩니다!"

그때 마초 또한 말을 갈아타고 다시 전장으로 나서며 크게 외쳤다. "장비! 밤에 싸울 배짱은 있느냐?" 성미가 급한 장비는 유비에게서 타고 있던 말을 바꿔 탄 뒤 곧장 달려 나가며 외쳤다. "너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절대 성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마초도 지지 않고 말했다.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절대 진영으로 물러나지 않겠다!"

양쪽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수천 개의 횃불을 밝히니, 그 빛이 마치 대낮처럼 환했다. 두 장수는 다시 진영 앞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스무 합 넘게 합을 겨루던 중, 마초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장비가 크게 소리쳤다. "어디를 도망가느냐!"

알고 보니 마초는 장비를 상대로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속임수를 써서 일부러 패하는 척하며 장비를 유인하려 한 것이었다. 장비가 쫓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구리 망치를 손에 쥐고, 몸을 돌려 장비를 겨냥해 내리치려 했던 것이다. 장비는 마초가 달아나는 것을 보고 미리 경계하고 있었기에, 구리 망치가 날아오는 순간 몸을 살짝 비틀어 귀 옆으로 피했다. 장비가 말머리를 돌리자 마초가 다시 달려들었고, 장비가 말을 멈추고 활을 들어 마초를 향해 화살을 쏘았으나 마초가 이를 피하면서 두 장수는 각자 진영으로 물러났다.

유비가 진영 앞에서 외쳤다. "나는 인의로 사람을 대할 뿐,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마초, 그대는 군사를 거두고 휴식을 취하라. 내가 기세를 몰아 그대를 공격하지 않겠다." 마초가 이 말을 듣고 직접 후방을 지키며 퇴각하자, 모든 군사도 점차 물러났다. 유비 역시 군사를 거두고 관문으로 올라갔다.

다음 날, 장비가 다시 관문을 내려가 마초와 싸우려 할 때, 군사 제갈량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비는 제갈량을 맞이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마초가 천하의 용맹한 장수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약 장비와 죽기 살기로 싸운다면 반드시 한쪽은 크게 다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조운과 황충에게 면죽을 지키게 하고, 제가 밤을 도와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작은 계책을 하나 써서 마초가 주공께 항복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비가 물었다.

"내가 보기에 마초는 매우 용맹하여 참으로 아끼는 인물인데, 어떻게 하면 그를 얻을 수 있겠소?"

제갈량이 대답했다.

"듣기로 동천의 장루가 스스로 '한녕왕'이라 칭하며 자립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의 수하 모사인 양송은 뇌물을 무척 밝히는 자입니다. 사람을 시켜 샛길로 한중에 몰래 보내 먼저 금은보화로 양송의 마음을 사십시오. 그런 다음 장루에게 서신을 보내 이렇게 전하게 하십시오. '나는

지금 유장과 서천을 두고 다투고 있으니, 이는 곧 그대의 원수를 갚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이간질하는 말을 믿지 마라. 일이 마무리되면 그대를 한녕왕으로 보장해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를 통해 마초의 군사를 물러나게 만드십시오. 마초가 군사를 거두어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계책을 써서 그를 항복시키면 됩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편지를 쓰고, 손건에게 금과 구슬을 들려 작은 길을 통해 한중으로 보내 마침 양송을 만나게 했다. 손건은 양송에게 이 일을 알리고 금과 구슬을 전달했다. 양송은 크게 기뻐하며 먼저 손건을 장루에게 데려가 이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설명했다. 장루가 말했다. "유비는 그저 좌장군일 뿐인데, 어떻게 나를 한녕왕으로 보장할 수 있겠소?" 그러자 양송이 대답했다.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숙부이시니, 그가 상소를 올린다면 왕의 자리를 지키기에 딱 알맞은 분입니다." 장루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사람을 보내 마초에게 군사를 거두라고 명령했다. 손건은 양송의 집에 머물며 답신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가 돌아와 보고했다. "마초가 아직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군사를 물릴 수 없다고 합니다." 장루가 다시 사람을 보내 달랬으나 마초는 끝내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세 번이나 거듭 요청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이때 양송이 말했다. "저 사람은 평소 신의가 없는 자라 군사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보니, 필시 배반할 속셈입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사람을 풀어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했다. "마초가 서천을 빼앗아 스스로

촉나라의 주인이 되려 한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하니 한중의 신하로 남지 않겠다는 것이다."

장루가 이 소식을 듣고 양송에게 계책을 물었다. 양송이 답했다. "우선 사람을 보내 마초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그대가 정말로 공을 세우고자 한다면 한 달의 기한을 주겠소. 다만 내 요구 세 가지를 들어주어야 하오. 만약 이를 지키면 상을 내릴 것이나,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처벌할 것이오. 첫째는 서천을 차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유장의 머리를 가져오는 것이며, 셋째는 형주의 군사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오. 만약 이 세 가지를 이루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그대의 머리를 바치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장위에게 군사를 시켜 관문을 엄중히 지키게 하여, 마초가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꾀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양송의 말을 믿은 마초는 크게 놀라며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라고 외쳤다. 그는 곧바로 마대와 상의하여 "차라리 군사를 거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송은 다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마초가 군사를 돌린다면 분명 딴마음을 품었을 것이다"라고 이간질했다. 그러자 장위는 군사를 일곱 갈래로 나누어 요충지를 굳게 지키며 마초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마초는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제갈량이 유비에게 말했다. "지금 마초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마초의 진영으로 가서 저의 말솜씨로 마초를 설득해 항복하게 하겠습니다." 유비가 걱정하며 말했다. "선생은 저의 가장 소중한 심복이신데, 만약 무슨 변이라도 생기면 제가 어찌합

니까?" 그러나 제갈량은 반드시 가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유비는 몇 번이고 그를 보내지 않으려 만류했다.

망설이던 차에, 갑자기 조운이 서천에서 항복해 오려는 인물이 한 명 있다는 서신을 보내왔다. 유비가 그를 불러 물으니, 그는 건녕군 유원현 사람으로 성은 이, 이름은 회, 자는 덕앙이었다.

유비가 물었다. "전에는 유장이 다스리는 익주에서 충직하게 간언했다 들었는데, 이제 어찌하여 나에게 귀순하려는 것이오?"

이회가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 '어진 새는 나무를 골라 둥지를 틀고, 현명한 신하는 주군을 골라 섬긴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유장에게 신하로서 도리를 다해 간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반드시 패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장군께서 인덕을 촉 땅에 널리 펼치시니, 일이 반드시 성공할 것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선생이 오신 것은 분명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오."

이회가 다시 말했다. "지금 마초가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롱서(隴西)에 있을 때 그와 안면이 있는데, 제가 가서 마초를 설득해 항복하게 하고자 합니다. 어떠하겠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마침 저를 대신해 가줄 사람이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 선생께서 마초를 어떻게 설득하실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회가 제갈량의 귓가에 대고 설득할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제갈량이 매우 기뻐하며 즉시 길을 떠날 채비를 시켰다.

이회는 마초의 진영으로 가서 먼저 사람을 보내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마초가 말했다. "이회가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들었으니, 필시 나를 설득하러 왔을 것이다." 마초는 즉시 스무 명의 도부수를 불러 장막 아래 매복시킨 뒤, 이렇게 명령했다. "내가 베라고 명하면 즉시 베어 고기반죽으로 만들어라!"

잠시 후, 이회가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마초는 장막 안에 단정히 앉아 움직이지 않더니 이회를 꾸짖듯 물었다. "그대는 무엇 하러 왔는가?" 이회가 대답했다. "특별히 설득하러 온 사절입니다." 마초가 말했다. "내 상자 속에 새로 간 보검이 하나 있다. 어디 한번 말해 보아라. 만약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 그 칼을 시험해 보게 할 것이다!" 이회가 웃으며 말했다. "장군께 닥칠 재앙이 머지않았습니다! 다만 새로 간 그 칼이 제 머리를 베지 못하고, 장군께서 스스로 칼을 시험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마초가 물었다. "내게 무슨 재앙이 있단 말이냐?" 이회가 말했다. "월나라의 서시(西子)는 흠을 잡으려 해도 그 아름다움을 가릴 수 없고, 제나라의 무염은 칭송하려 해도 그 추함을 덮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기울고, 달이 차면 이지러지는 법'이니, 이것이 천하의 이치입니다. 지금 장군께서는 조조에게 부친을 잃은 원수가 있고, 롱서 지역에서도 이를 가는 원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장을 구하여 형주의 병사들을 물러나게 하지 못했고, 지금은 양송을 제어하지 못해 장루의 눈치를 보고 계시니, 현재 천하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이 몸 하나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위교에서 패

하고 기성까지 잃는다면, 무슨 면목으로 천하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마초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공의 말씀이 지극히 옳소. 하지만 내게는 갈 길이 없구려." 이회가 다시 물었다. "제 말을 듣기는 하셨으면서, 장막 밖에 도부수를 매복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초는 크게 부끄러워하며 즉시 병사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다. 이회가 말을 이었다. "유비 황숙께서는 인재를 예우하고 선비를 귀하게 여기시니, 저는 그분이 반드시 대업을 이룰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유장을 버리고 그분께 귀순한 것입니다. 공의 부친께서도 예전에 유 황숙과 함께 역적을 토벌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어둠을 버리고 밝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래야 위로는 부친의 원수를 갚고 아래로는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칠 수 있습니다."

마초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양백을 불러들여 칼로 베어 죽였다. 그리고 그 머리를 이회와 함께 가지고 관 위로 올라가 유비에게 항복했다. 유비는 직접 마초를 맞이하며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예로써 환대했다. 마초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이제 명군을 만났으니, 마치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푸른 하늘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한편, 손건이 돌아오자 유비는 호준과 맹달에게 관문을 지키게 한 뒤, 군사를 거두어 성도를 점령하러 출발했다. 조운과 황충은 면죽까지 마중을 나왔다. 그때 "촉나라 장수 유준과 마한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다"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운이 "제가 가서 저 두 사람을 사로잡아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곧장 말을 타고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유비는 성 위에서 마초를 대접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아직

자리가 채 정돈되기도 전에 조운이 이미 두 사람의 머리를 베어 연회석 앞으로 가져왔다. 마초 또한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유비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마초가 말했다. "주공께서 직접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유장을 불러 항복하게 하겠습니다.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저와 제 동생 마대가 성도를 빼앗아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그날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한편, 패배하여 돌아온 군사들이 익주에 도착해 유장에게 보고했다. 유장은 크게 놀라 문을 닫아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성 북쪽에 마초의 구원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제야 유장은 성루에 올라 밖을 내다보았다. 성 아래에 마초와 마대가 서 있는 것을 본 유장이 크게 외쳤다. "유장께서는 대답해 주시오!" 유장이 성 위에서 물었다. 마초는 말 위에서 채찍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본래 장루의 군사를 이끌고 익주를 구하러 왔으나, 장루가 양송의 참언을 믿고 도리어 나를 해치려 하기에 이제 유비에게 귀순했다. 그대는 어서 인재를 받아들여 항복함으로써 백성들이 고통받는 일을 면해야 할 것이다. 만약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먼저 성을 공격하겠다!" 유장은 얼굴이 흙빛이 될 정도로 놀라 성 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신하들이 달려들어 그를 깨우자 유장이 말했다. "나의 어리석음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후회해도 소용없구나! 차라리 문을 열고 항복하여 성 안의 백성들을 구하는 편이 낫겠다." 그러자 동화가 말했다. "성 안에는 아직 삼만여 명의 군사가 있고, 재물과 군량도 일 년은 버틸 수 있는데 어찌 벌써 항복하려 하십니까?" 유장이 대답했다. "나와 내 아들이 촉 땅에 머문 지 이십여 년이 되었으나, 백성들에게 은덕을 베푼 적이 없다. 삼 년 동안 전쟁을 치르며 백성들이 들판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

나간 것은 모두 나의 죄다. 내 마음이 어찌 편안하겠느냐? 차라리 항복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낫겠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아와 말했다.

"주공의 말씀은 참으로 하늘의 뜻에 부합합니다."

그를 살펴보니, 파서군 서충국현 사람으로 성은 초, 이름은 주, 자는 윤남이었다. 이 사람은 평소 천문에 밝았다. 유장이 그에게 물으니, 초주가 대답했다.

"제가 어느 날 밤 하늘의 형상을 관찰하니, 별들이 촉군 지역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별의 빛이 마치 밝은 달과 같으니, 이는 제왕이 나타날 징조입니다. 하물며 일 년 전부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새 밥을 먹으려면 선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이 돌았으니, 이는 이미 예견된 징조입니다. 하늘의 도리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황권과 유파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그를 베려 했으나, 유장이 만류하였다. 그때 갑자기 급보가 전해졌다.

"촉군 태수 허정이 성을 넘어 항복했습니다!"

유장은 크게 통곡하며 관아로 돌아갔다.

다음 날, 유비의 옛 참모인 간옹이 성문 아래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장은 문을 열어 그를 맞이하게 했다. 간

옹은 수레에 앉아 거만한 태도로 주위를 훑어보며 여유를 부렸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크게 외쳤다.

"네 이놈, 뜻을 얻었다고 남을 안중에 두지 않는구나! 감히 우리 촉나라의 인물들을 업신여기는 것이냐!"

간옹은 깜짝 놀라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했다. 이 사람은 광한 면죽 출신의 진복으로, 자는 자칙이었다. 간옹이 웃으며 말했다.

"현명한 형님을 몰라뵈었으니, 부디 꾸짖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함께 들어가 유장을 만났다. 간옹은 유비가 너그럽고 도량이 넓어 결코 해칠 뜻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유장은 항복하기로 결심하고 간옹을 극진히 대접했다. 다음 날, 유장은 직접 인장과 문서들을 챙겨 간옹과 함께 수레를 타고 성을 나와 항복하러 갔다. 유비가 진영 밖으로 나와 그들을 맞이하며, 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인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세가 어쩔 수 없었을 뿐이오!"

그들은 함께 진영으로 들어가 인장과 문서를 넘겨주고,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유비가 성도에 입성하자 백성들은 꽃과 등불을 밝혀 문밖까지 나와 유비를 맞이했다. 유비가 공청에 도착하여 당상에 올라 자리를 잡자, 군 안의 모든 관리가 당 아래에서 절을 올렸다. 오직 황권과 유파만이

문을 닫아걸고 나오지 않았다. 이를 본 장수들이 분노하며 그들을 죽이려 가려 하자, 유비가 황급히 명령을 내렸다. "만약 이 두 사람을 해치는 자가 있다면, 그 삼족을 멸할 것이다!" 유비는 직접 그들의 집을 찾아가 정중히 두 사람을 불러냈다. 황권과 유파는 유비의 은혜로운 예우에 감동하여 마침내 밖으로 나왔다.

이때 제갈량이 말했다. "이제 서천이 평정되었으니, 두 명의 주인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유장을 형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내가 이제 막 촉 땅을 얻었는데, 유장을 너무 멀리 보내버릴 수는 없소."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유장이 기반을 잃은 것은 모두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주공께서 만약 부녀자의 어진 마음으로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신다면, 이 땅을 오래도록 지키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유비는 그 뜻을 따라 성대한 잔치를 열고, 유장에게 재물을 챙겨 떠날 것을 권했다. 유장에게는 진위장군(振威將軍)의 인수를 채워 주었고, 유장의 처자식과 가솔들을 모두 남군의 공안으로 옮겨 머물게 한 뒤 즉시 출발하도록 했다. 유비는 스스로 익주 목이 되었으며, 항복한 문무 관리들에게는 모두 큰 상을 내리고 관직과 작위를 정해 주었다.

엄안을 전장군으로, 법정을 촉군 태수로, 동화를 장군중랑장으로, 허정을 좌장군 장사로, 방희를 영중사마로, 유파를 좌장군으로, 황권을 우장군으로 삼았다. 그 외에 오의, 비관, 팽약, 탁응, 이엄, 오란, 뇌동, 이회, 장익, 진복, 초주, 여의, 곽준, 등지, 양홍, 주군, 비의, 비시, 맹달 등 항복한 문무 관리 60여 명도 모두 등용하였다.

제갈량은 군사로, 관우는 탕구장군 겸 한수정후로, 장비는 정원장군 겸 신정후로, 조운은 진원장군으로, 황충은 정서장군으로, 위연은 양무장군으로, 마초는 평서장군으로 삼았다. 또한 손건, 간옹, 미축, 미방, 유봉, 오반, 관평, 주창, 요화, 마량, 마속, 장완, 이적을 비롯하여 예전부터 함께했던 형주의 문무 관리들도 모두 승진시켜 상을 내렸다. 유비는 사신을 보내 황금 500근, 백은 1,000근, 돈 5,000만, 촉나라 비단 1,000필을 관우에게 하사하였고, 나머지 장수들에게도 차등을 두어 상을 내렸다. 유비가 소와 말을 잡아 군사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제하니,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익주가 평정되자 유비는 성도의 유명한 토지와 저택을 관료들에게 나누어 주어 상으로 내리려 했다. 그러자 조운이 간언했다. "익주의 백성들은 거듭 전쟁과 불길을 겪어 토지와 집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지금은 백성들에게 돌려주어 편히 살며 생업에 종사하게 해야 민심이 비로소 안정될 것입니다. 이를 빼앗아 사사로운 상으로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조운의 말을 따랐고, 제갈량에게 나라를 다스릴 법령을 세우도록 맡겼다.

법령은 다소 엄격했다. 법정이 말했다. "옛날 고조(高祖)께서 약법삼장으로 백성들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군사께서 형벌을 완화하고 법을 간소화하여 백성들의 기대를 달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그대는 한 가지는 알지만, 다른 하나는 모르고 있소. 진나라가 가혹한 법을 써서 만백성의 원망을 샀기에, 고조께서는 너그러움과 인자함으로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오. 지금 유장은 어리석고 약하여 덕치도 펼치지 못했고 위엄 있는 형벌도 세우지 못했

으니, 군신 사이의 도리가 점차 무너지고 있소. 지위로 총애하면 지위가 극에 달했을 때 잔인해지기 마련이고, 은혜로 순응시키면 은혜가 다했을 때 오만해지기 마련이라오. 폐단이 생기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소. 나는 이제 법으로 위엄을 세우려 하니, 법이 시행되면 백성들은 은혜를 알게 될 것이오. 작위로 제한하면, 작위가 더해질 때 영광을 알게 될 것이오. 은혜와 영광을 병행해야 위아래에 절도가 생기는 법이니, 다스림의 도리는 바로 여기에 있소." 법정은 이에 크게 감복했다.

이후 군사와 백성들은 안정을 되찾았다. 사십일 주에 이르는 땅에 군사를 나누어 배치하여 다스리니 모두 평정되었다. 법정은 촉군 태수가 되었는데, 평소 식사 한 끼를 대접받은 은혜나 눈을 한 번 부라린 원한까지도 하나하나 보복하지 않는 법이 없었다. 어떤 이가 제갈량에게 고했다. "법정이 너무 독단적이니 조금 견제해야 합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옛날 주군께서 형주에 고립되어 북으로는 조조를 두려워하고 동으로는 손권을 경계할 때, 법정이 보좌해 준 덕분에 비로소 큰 뜻을 펼칠 수 있었으니 이제 와서 어찌 그를 막겠소? 그의 뜻을 조금 펼치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소?"라고 말하며 아예 묻지 않았다. 법정은 이 말을 듣고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하며 절제하게 되었다.

어느 날, 유비가 제갈량과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관우가 보낸 관평이 유비에게 받은 금과 비단을 사례하러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비가 관평을 불러들였다. 관평은 절을 올린 뒤 서신을 바치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마초의 무예가 남다르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마초가 익주로 들어와 겨루어보고자 하니, 백부님께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유비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만약 관우가 익주로 들어와 마초와 겨룬다면, 두 사람의 기세가 부딪쳐 양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갈량이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답장을 쓰겠습니다." 유비는 관우의 성미가 급할까 봐 걱정되어, 얼른 제갈량에게 편지를 쓰게 한 뒤 관평을 통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형주로 보냈다.

관평이 형주에 도착하자 관우가 물었다. "내가 마초와 겨루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느냐?" 관평이 대답했다. "군사께서 쓰신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관우가 편지를 펼쳐 읽으니 다음과 같았다.

"장군께서 마초와 실력을 겨루고자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마초가 비록 용맹함이 남다르다 하나 경포나 팽월 같은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장비와 함께 앞서 나가려 다투겠지만, 미염공(관우)의 독보적인 실력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장군께서 형주를 맡고 계시니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익주로 들어가셨다가 형주를 잃게 된다면 그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부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우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스스로 수염을 만지며 웃으며 말했다. "제갈량이 내 마음을 정확히 아는구나." 그는 편지를 손님들에게 보여주며, 더는 익주로 들어갈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

한편, 동오의 손권은 유비가 서천을 차지하고 유장을 공안으로 쫓아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손권은 장소와 고옹을 불러 모아 의논하며 말했다.

"유비가 우리에게 형주를 빌려 갈 당시에는 서천을 차지하면 형주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소. 그런데 이제는 파촉의 41개 주를 모두 손에 넣었으니, 마땅히 한나라의 여러 군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오.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즉시 군사를 일으켜 싸워야 할 것이오."

그러자 장소가 말했다.

"강동의 형세가 이제 막 안정되었으니, 함부로 군사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유비가 두 손을 들어 형주를 주군께 바치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촉에 새로운 해와 달이 뜨는 시기에, 동오에서는 다시 옛 땅을 요구하고 있었다. 과연 장소의 계책은 무엇일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6회 — 관운장이 홀로 칼을 들고 모임에 나가고, 황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關雲長單刀赴會 伏皇后為國捐生

한편, 손권이 형주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장소가 계책을 내며 말했다. '유비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제갈량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인 제갈근이 지금 오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으니, 제갈근의 노소(가족)들을 붙잡아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여 제갈근을 서천으로 보내 동생에게 알리게 하면, 제갈근이 유비를 설득해 형주를 넘겨주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가족이 화를 입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제갈량이 형제간의 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손권이 말했다. '제갈근은 참으로 정직한 군자인데, 어찌 그의 가족들을 붙잡아 두는 일을 차마 할 수 있겠소?' 장소가 대답했다. '제갈근에게 이것이 계책임을 분명히 알려주면, 그가 자연히 마음을 놓을 것입니다.' 손권은 그 말을 따랐다. 그는 제갈근의 가족들을 거짓으로 관부에 감금해 두고, 한편으로는 편지를 써서 제갈근

을 서천으로 보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갈근이 성도에 도착하자, 먼저 사람을 보내 유비에게 소식을 전했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자네 형님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가?' 제갈량이 대답했다. '형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러 온 것입니다.' 유비가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제갈량이 말했다. '그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책이 결정되자 제갈량이 성 밖으로 나가 제갈근을 맞이했다. 제갈근은 사저에 들르지도 않고 곧장 빈객용 숙소로 들어갔다. 예법에 따라 인사를 마친 제갈근은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제갈량이 물었다. '형님, 무슨 일이 있기에 이토록 슬프게 우십니까?' 제갈근이 대답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끝장나게 생겼네!' 제갈량이 말했다. '혹시 형주를 돌려주지 못하는 일 때문입니까? 저 때문에 형님의 가족이 인질로 잡혔으니 제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형주를 되찾을 계책이 있습니다.' 제갈근은 크게 기뻐하며 곧장 제갈량과 함께 유비를 찾아가 손권이 보낸 편지를 올렸다. 유비는 편지를 읽더니 분노하며 말했다. '손권이 내게 누이를 시집보내더니, 내가 형주를 비운 틈을 타서 몰래 내 누이를 데려가다니!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나는 지금 당장 서천의 군사를 일으켜 강남을 치고 이 원한을 갚으려 하는데, 감히 형주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는가?' 제갈량이 땅에 엎드려 울며 간청했다. '오나라 군주가 저희 형님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으니, 만약 형주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희 형님과 가족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형님이 돌아가시는데 제가 어찌 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부디 주공께서 저의 면목을 봐서라도 형주를 오나라에 돌려주어, 저희 형제의 정을 지켜주십시오!' 유비가 몇 번이고 거

절했으나 제갈량이 계속 울며 매달리자, 유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 그렇다면 군사의 체면을 봐서 형주의 절반을 나누어 돌려주겠다. 장사, 영릉, 계양 세 군을 그들에게 주도록 하라.' 제갈량이 말했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즉시 관우에게 편지를 써서 세 군을 인도하라고 명령하겠습니다.' 유비가 덧붙였다. '자유(제갈근)가 그곳에 가거든 반드시 좋은 말로 내 동생을 설득해야 할 것이네. 내 동생은 성격이 불꽃처럼 급하여 나조차 두려울 정도이니, 부디 각별히 주의하라 이르게.'

제갈瑾은 서신을 받은 뒤 유비에게 작별을 고하고 제갈량과도 헤어져 곧장 형주로 향했다. 관우는 그를 중당으로 모셔 손님과 주인으로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갈瑾이 유비의 서신을 꺼내 읽으니 다음과 같았다. "황숙께서 먼저 장사, 영릉, 계양의 세 군을 오나라에 돌려주기로 약속하셨으니, 장군께서는 즉시 영토를 넘겨주어 제가 무사히 주군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관우의 안색이 변하며 말했다. "나는 우리 형님과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으며 한나라를 함께 일으키기로 맹세했소. 형주 땅은 본래 한나라의 강토인데, 어찌 함부로 얼마간의 땅을 남에게 줄 수 있겠소? '장수가 현장에 있을 때는 군주의 명령이라도 받들지 않을 수 있다'고 했소. 비록 형님의 서신이 왔다 해도, 나는 결코 땅을 돌려줄 수 없소."

제갈瑾이 다시 말했다. "지금 오나라 군주가 저와 제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 형주를 돌려주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장군께서 부디 가엽게 여겨 주십시오!"

관우가 말했다. "이것은 오나라 군주의 속임수인데, 어찌 나를 속일 수 있겠소!"

제갈瑾이 다시 말했다. "장군께서는 어찌 이리도 체면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관우가 칼을 손에 쥐며 말했다. "그만 말하시오! 이 칼에는 체면 따위는 없소!"

곁에 있던 관평이 나서서 말했다. "군사님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부디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관우가 말했다. "군사님의 체면을 봐서라도, 너는 오나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제갈瑾은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져 급히 배에서 내렸다. 그는 다시 서천으로 가서 제갈량을 만나려 했으나, 제갈량은 이미 순찰을 나간 뒤였다. 제갈瑾은 어쩔 수 없이 유비만을 다시 만나 관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울며 고했다.

유비가 말했다. "내 동생은 성격이 급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네. 자유(제갈瑾의 자)는 우선 돌아가 있게나. 내가 동천과 한중의 여러 군을 먼저 정리한 뒤, 관우를 그곳을 지키도록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형주를 넘겨줄 수 있을 것이네."

제갈瑾은 하는 수 없이 오나라로 돌아가 손권에게 앞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손권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자유가 이토록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혹시 모두 제갈량의 계책이 아니겠는가?"

제갈瑾이 대답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유비에게 울며 사정을 말했더니, 우선 세 군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관우가 완고하게 버티며 듣지 않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손권이 말했다. "유비가 이미 세 군을 먼저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니, 관리를 보내 장사, 영릉, 계양 세 군에 임명하여 부임하게 하면 어떠하겠는가?"

제갈瑾이 말했다. "주공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손권은 즉시 제갈瑾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하고, 한편으로는 관리를 보내 세 군에 부임하도록 명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세 군에 보냈던 관리들이 모두 쫓겨 돌아왔다. 관리들이 손권에게 보고했다. '관우가 도저히 받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밤사이에 우리 오나라 사람들을 모두 쫓아버렸으며, 조금이라도 늦게 가는 자는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손권이 크게 노하여 사람을 보내 노숙을 불러 꾸짖었다. '자네가 예전에 유비를 위해 보증을 서서 내게 형주를 빌려주게 하지 않았나? 이제 유비가 서천까지 차지하고도 형주를 돌려주려 하지 않는데, 자네가 어찌 이를 보고만 있겠는가?' 노숙이 대답했다. '이미 계책을 하나 생각해 두었으니, 곧 주군께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손권이 어떤 계책인지 묻자 노숙이 말했다. '지금 육구에 군사를 주둔시켜 놓고, 사람을 보내 관우를 잔치에 초대하겠습니다. 만약 관우가 온다면 좋은 말로 설득하고,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매복해

있던 칼과 도끼를 든 병사들을 시켜 그를 죽이겠습니다. 만약 그가 오지 않는다면 즉시 군사를 일으켜 승부를 겨루고 형주를 빼앗으면 됩니다.' 손권이 말했다. '내 뜻과 딱 맞는구나. 즉시 실행하라.' 이때 감택이 나서서 말했다. '안 됩니다. 관우는 세상에 보기 드문 용맹한 장수라 예사로운 방법으로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일이 잘못되어 오히려 우리가 해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손권이 노하며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형주는 언제 얻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는 노숙에게 즉시 그 계책을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노숙은 손권에게 작별을 고하고 육구로 가서 여몽, 감녕과 함께 의논했다. 그리고 육구채 밖 강변 정자인 임강정에 잔치를 베풀고 초대장을 만들었다. 이어 부하들 중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사람 한 명을 사신으로 뽑아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했다. 강 어귀에서 관평이 사신의 목적을 물은 뒤, 그를 형주로 안내하여 관우를 뵙게 했다. 사신이 노숙의 초대 목적을 상세히 밝히며 초대장을 올리자, 관우는 그것을 다 읽고 사신에게 말했다. '노숙이 정중히 청하니, 내 내일 잔치에 가겠노라. 너는 먼저 돌아가 보아라.'

사자가 물러갔다. 관평이 말했다. '노숙이 (아버지를) 초대한 것은 분명 좋은 뜻이 아닐 텐데, 어찌하여 응낙하셨습니까?' 관우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제갈근이 손권에게 내가 세 군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보고하니, 손권이 노숙을 시켜 육구에 군사를 배치하고 나를 불러 모아 형주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려는 것이다. 만약 내가 가지 않는다면 겁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지. 나는 내일 작은 배 한 척에 친히 따르는 사람 열댓 명만 데리고 단도부회하여, 노숙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관평이 간언했다. '아버님, 어찌하여 그 귀한 몸을 이끌고 호랑이굴로 직접 들어가려 하십니까? 이는 백부님

(유비)의 부탁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처사일까 두렵습니다.' 관우가 말했다. '나는 수천 개의 창과 칼이 날아들고 화살과 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말 한 필에 의지해 아무도 없는 곳을 다니듯 누볐다. 어찌 강동의 쥐새끼들을 두려워하겠느냐!' 마량 또한 간언했다. '노숙이 비록 어른스러운 풍모를 지녔으나,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여 딴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관우가 말했다. '옛날 전국시대 조나라의 인상여는 닭 한 마리 묶을 힘도 없었으나, 민지의 회합에서 진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대했다. 하물며 일찍이 만인을 대적하는 법을 배운 나야 어떠하겠느냐? 이미 약속했으니 신의를 저버릴 수는 없다.' 마량이 말했다. '장군께서 가시더라도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관우가 말했다. '그저 내 아들에게 빠른 배 열 척을 준비하게 하고, 물길에 능한 수군 오백 명을 뽑아 강 위에서 대기하게 하라. 내 붉은 깃발이 올라가는 것을 보는 즉시 강을 건너오게 하면 된다.' 관평은 명을 받들어 준비하러 물러갔다.

한편, 전령이 노숙에게 보고하기를, 관우가 기분 좋게 승낙하며 내일 오겠다고 했다. 노숙이 여몽과 상의하며 "그가 오면 어떻게 할까?"라고 묻자, 여몽이 대답했다. "그가 군마를 이끌고 온다면, 나와 감녕이 각각 군사를 하나씩 거느리고 강가에 매복했다가 신호탄을 쏘아 올린 뒤 습격합시다. 만약 군사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정자 뒤에 도끼와 칼을 든 무사 쉰 명을 매복시켰다가 연회 중에 그를 죽이면 됩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워졌다.

다음 날, 노숙은 사람을 시켜 강 어귀를 멀리서 살피게 했다. 진시(오전 7~9시)가 지난 뒤, 강 위로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배에는 사공과 선원 몇 명뿐이었고, 붉은 깃발 하나가 바람에 휘날리며 커다란 '관(關)' 자를 드러내고 있었다. 배가 점점 강가로 가까워지자, 푸른 수건에 초록색 도포를 입은 관우가 배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곁에는 주창이 커다란 칼을 받쳐 들고 있었고, 여덟아홉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다. 노숙은 깜짝 놀라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그를 정자로 맞이했다. 인사를 마친 뒤 술자리가 이어졌고, 노숙은 잔을 들어 권하면서도 감히 관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반면 관우는 여유롭게 웃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술이 반쯤 취했을 무렵, 노숙이 말했다. "군주께 드릴 말씀이 하나 있으니, 부디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예전에 유비께서 저를 통해 저희 주군께 형주를 잠시 빌려 달라고 요청하며, 서천을 얻은 뒤에는 반드시 돌려주겠노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천은 이미 얻었는데 형주는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이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이것은 국가의 중대사니, 연회 자리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오."

노숙이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주군께서는 그저 강동의 작은 땅을 다스릴 뿐인데도 형주를 기꺼이 빌려주신 것은, 유비께서 전쟁에서 패해 멀리서 떠밀려 오느라 의지할 곳이 없음을 가련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익주를 얻었으니 형주를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유비께서는 고작 장사, 영릉, 계양의 세 군만을 먼저 떼어

주려 하고, 관우 당신은 이를 따르지 않으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관우가 말했다. "오림 전투에서 좌장군께서 화살과 칼날이 빗발치는 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드셨고, 힘을 합쳐 적을 격파하셨는데, 어찌 그 노력이 헛되이 끝나고 얻은 땅도 하나 없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노숙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군께서 처음 유비를 따라 장판파에서 패했을 때, 계책도 다하고 힘도 다하여 멀리 달아나려 하셨지요. 저희 주군께서는 유비가 머물 곳이 없는 것을 가련히 여기어 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유비가 의지할 곳이 생겨 훗날 큰 뜻을 도모할 수 있게 하려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유비는 덕을 어기고 신의를 저버린 채 이미 서천을 얻고 형주까지 차지하였으니, 탐욕에 눈이 멀어 의리를 배반하여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장군께서도 이 점을 살펴주십시오."

관우가 말했다. "그것은 모두 내 형의 일이니,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오."

노숙이 다시 말했다. "장군께서 유비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의형제를 맺고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유비가 곧 장군이신데, 어찌 이를 회피하려 하십니까?"

관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계단 아래에 있던 주창이 매서운 목소리로 외쳤다. "천하의 땅은 오직 덕이 있는 자가 차지하는 법이다. 어찌 너희 동오만이 가질 수 있단 말이냐!" 관우는 안색이 변하며 일어나 주창

이 들고 있던 큰 칼을 빼앗아 들고는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러고는 주창을 노려보며 꾸짖었다. "이것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거늘, 네가 어찌 감히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주창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먼저 강가로 가서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 그러자 관평이 탄 배가 화살처럼 쏘아져 나가 강동을 향해 달려갔다. 관우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는 노숙의 손을 붙잡은 채, 술에 취한 척하며 말했다. "노숙 선생, 오늘 나를 연회에 초대했으니 형주 이야기는 꺼내지 마시오. 내가 지금 이미 취했으니, 괜히 옛 정을 상하게 할까 두렵구려. 다음에 사람을 보내 선생을 형주로 모실 테니, 그때 다시 상의합시다."

노숙은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관우에게 끌려 강가로 갔다. 여몽과 감녕이 각자 자기 부대를 이끌고 나서려 했으나, 관우가 커다란 칼을 손에 들고 노숙을 직접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고 노숙이 다칠까 두려워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관우는 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손을 놓았는데, 그사이 이미 배 앞머리에 서서 노숙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노숙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관우의 배가 바람을 타고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후대의 어떤 이가 관우를 찬양하며 지은 시는 이러하다. '오나라 신하들을 어린아이처럼 업신여기며, 홀로 칼 한 자루 들고 모임에 나가 거리낌 없이 그들을 내리눌렀네. 그해에 보여준 영웅의 기개는, 옛날 인상여가 민지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욱 뛰어났도다.'

관우가 형주로 돌아간 뒤, 노숙과 여몽이 함께 의논했다. '이번 계책이 또 실패했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여몽이 말했다. '주군께 보고를 드려, 군사를 일으켜 관우와 결전을 벌여야 합니다.' 노숙은 즉시

사람을 보내 손권에게 보고했다. 손권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나라의 모든 군사를 동원해 형주를 빼앗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갑자기 조조가 다시 30만 대군을 일으켜 몰려온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손권은 크게 놀라, 우선 노숙에게 형주의 군사는 건드리지 말게 하고 군대를 합비와 유수 쪽으로 옮겨 조조를 막도록 명령했다.

한편, 조조가 남쪽으로 군사를 일으키려 하자 참군 부간(자는 언재)이 상소를 올려 조조를 간언했다. 상소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했다. '부간이 듣기로, 무력을 쓸 때는 위엄을 먼저 세워야 하고, 문치를 펼칠 때는 덕을 먼저 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엄과 덕망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왕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날 천하가 크게 어지러웠을 때, 명공께서 무력을 사용하여 이를 평정하셨고 그중 아홉은 이미 평정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명을 받들지 않고 버티는 곳은 오나라와 촉나라뿐입니다. 그러나 오나라는 장강의 험난한 물줄기를 끼고 있고, 촉나라는 높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어 무력만으로는 정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생의 생각으로는, 우선 문덕을 쌓는 데 힘쓰며 무기를 거두고 군대를 쉬게 하여 군사를 쉬이고 인재를 길러 때를 기다려 움직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지금 수십만 대군을 일으켜 장강 가에 주둔시켰는데 적들이 험한 지형을 이용해 깊숙이 숨어버린다면, 우리 군사들이 그 능력을 떨치지 못하고 기묘한 변화를 부릴 권도(權道)도 쓸 데가 없게 되어, 천하의 위엄이 꺾이고 말 것입니다. 부디 명공께서 깊이 살피어 결정해 주십시오.'

조조가 이를 살펴본 뒤, 남쪽으로 군사를 일으키려던 계획을 그만두었다. 대신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예법에 밝은 선비들을 불러

모았다. 이때 시중인 왕찬, 두습, 위개, 화흡 네 사람이 조조를 위왕으로 높이 받들려 하자, 중서령 순유가 말했다. '안 됩니다. 승상의 관직은 이미 위공에 이르렀고 영예로 구석(九錫)까지 더해져 지위가 이미 더할 나위 없이 높으니, 이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려 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조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외쳤다. '이 자가 순욱을 흉내 내려는구나!' 순유는 조조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병을 얻었다. 그는 열흘 남짓 누워 앓다가 결국 쉰여덟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조조는 순유를 정중히 장사 지내 주었고, 이후 위왕으로 추대하려던 일도 마침내 그만두었다.

어느 날, 조조가 칼을 찬 채 궁궐로 들어서니 헌제는 마침 복후와 함께 앉아 있었다. 복후는 조조가 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헌제는 조조를 보자 몸을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조조가 말했다. "손권과 유비가 각자 한 축을 차지하고 세력을 떨치며 조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헌제가 대답했다. "모든 것은 위공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소." 그러자 조조가 화를 내며 말했다. "폐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밖에서 듣는 이들이 저를 황제를 속이는 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헌제가 다시 말했다. "그대가 기꺼이 나를 도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다행이겠으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부디 은혜를 베풀어 나를 놓아주길 바라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부릅뜨며 황제를 노려보더니,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버렸다. 곁에 있던 신하들이 황제에게 아뢰기를, "최근 듣기로 위공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니, 머지않아 반드시 황

제의 자리를 찬탈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와 복후는 이를 듣고 크게 통곡했다.

복후가 말했다. "제 아버지 복완은 평소 조조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신을 한 통 써서 아버지께 몰래 보내 조조를 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예전에 동승이 일을 도모하다가 치밀하지 못해 도리어 큰 화를 당하지 않았느냐. 지금 또 일이 새어 나가면 짐과 그대 모두 끝장이고 말 것이다!"

복후가 대답했다. "매 순간 가시방석에 앉은 듯 괴로워하느니, 저런 자 밑에서 사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환관 중에서 충성스럽고 의로운 이를 믿고 맡길 만한 자는 오직 목순뿐입니다. 그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목순을 불러 병풍 뒤로 들여보낸 뒤, 곁에 있던 근처 시종들을 모두 물러나게 했다. 황제와 복후가 크게 통곡하며 목순에게 말했다.

"조조라는 도적놈이 위왕이 되려 하니, 조만간 반드시 황위를 빼앗으려 들 것이다. 짐은 황후의 아버지 복완에게 몰래 서신을 보내 저 도적을 치게 하려 하나, 곁에 있는 자들이 모두 조조의 심복이라 믿고 맡길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네가 황후의 밀서를 복완에게 전해주어라. 너의 충성심과 의리를 믿으니, 결코 짐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목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신이 폐하의 큰 은혜에 감격하여 어찌 죽음으로써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즉시 다녀오겠습니다."

복후는 즉시 편지를 써서 목순에게 건네주었다. 목순은 편지를 머리카락 사이에 숨긴 채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 곧장 복완의 집으로 가서 편지를 올렸다. 복완이 이를 보니 복후가 직접 쓴 것이 맞았다. 그는 목순에게 말했다. '조조는 수하에 심복이 매우 많으니 서둘러 도모해서는 안 된다. 강동의 손권과 서천의 유비, 이 두 곳에서 밖으로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 한 어렵다. 그리되면 조조가 반드시 직접 출정할 것이다. 바로 그때 조정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신하들을 찾아 함께 모의하여, 안팎에서 동시에 공격해야 비로소 승산이 있을 것이다.' 목순이 말했다. '국구(황장)께서 황제와 황후께 답신을 써서 밀지를 내려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리고 몰래 사람을 오나라와 촉나라로 보내, 두 나라가 약속하여 함께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치고 황제를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완은 즉시 종이를 가져와 편지를 써서 목순에게 주었다. 목순은 이를 머리 상투 속에 숨기고 복완에게 작별을 고한 뒤 궁으로 돌아갔다.

이미 누군가가 조조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렸다. 조조는 궁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오는 목순을 마주쳤다. 조조가 물었다.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냐?' 목순이 대답했다. '황후께서 병이 나셔서 의원을 부르러 가는 길입니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의원을 불렀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목순이 말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좌우의 부하들에게 호통을 치며 목순의 몸을 샅샅이 뒤졌으나, 숨겨온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일단 길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목순의 모자가 떨어졌다. 조조가 다시 그를 불러 세워 모자를 가져오게

한 뒤 살펴보았으나,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조조가 모자를 돌려주며 다시 쓰라고 하자, 목순은 두 손으로 모자를 거꾸로 썼다. 조조는 의심이 생겨 좌우에게 명하여 목순의 머리카락 사이를 뒤지게 했고, 그곳에서 복완의 편지를 찾아냈다. 조조가 읽어보니, 그 편지에는 손권과 유비를 결탁시켜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조는 크게 분노하여 목순을 밀실로 끌고 가 추궁했으나, 목순은 끝내 자백하지 않았다. 조조는 그날 밤 즉시 갑옷을 입은 병사 삼천 명을 동원해 복완의 사저를 포위하게 했고, 노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들였다. 그 과정에서 복후가 직접 쓴 편지까지 찾아내자, 곧바로 복씨 일족 삼족을 모두 옥에 가두었다. 다음 날 새벽, 조조는 어림군 치려에게 부절을 들려 궁으로 들여보내 황제의 인장을 먼저 거두게 했다.

그날 황제가 외전에 있는데, 치려가 갑옷을 입은 군사 삼백 명을 거느리고 곧장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황제가 물었다. "무슨 일이냐?" 치려가 대답했다. "위공의 명을 받들어 황후의 인장을 거두러 왔나이다." 황제는 일이 탄로 났음을 깨닫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치려가 후궁에 이르자 복후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치려는 즉시 인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불러 옥새를 찾아내어 가지고 나갔다. 복후는 일이 터졌음을 직감하고, 전각 뒤쪽 방의 벽 틈 사이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상서령 화흠이 오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후전으로 들어와 궁녀들에게 물었다. "복후는 어디 있느냐?" 궁녀들은 모두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다. 화흠이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붉은 문을 부수고 뒤졌으나 찾을 수 없었다. 화흠은 복후가 벽 속에 숨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군사들에게 소리를 질러 벽을 허물고 수색하게 했다. 화흠은 직접 손을 뻗

어 복후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끌어냈다. 복후가 "제발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화흠이 꾸짖었다. "네 죄를 위공께 직접 고하거라!" 복후는 머리가 풀어헤쳐지고 맨발인 채로, 두 군사에게 밀려 밖으로 끌려 나갔다.

한편, 화흠은 본래 문명이 높기로 이름난 선비여서 병원, 관녕과 서로 친하게 지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일컬어 '한 마리의 용'이라 불렀는데, 화흠은 용의 머리요, 병원은 용의 몸통이며, 관녕은 용의 꼬리라는 뜻이었다.

어느 날, 관녕과 화흠이 함께 채소를 심으려고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금덩이를 발견했다. 관녕은 괭이질을 계속하며 아랑곳하지 않았으나, 화흠은 그것을 집어 들고 한참을 살펴보더니 다시 내팽개쳤다. 또 어느 날, 관녕과 화흠이 함께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문밖에서 귀한 분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관녕은 단정히 앉아 움직이지 않았지만, 화흠은 읽던 책을 내던지고 구경하러 나갔다. 관녕은 이때부터 화흠의 인격을 경멸하여 자리를 갈라앉고는 다시는 친구로 지내지 않았다.

훗날 관녕은 요동으로 떠나 은거하며 늘 흰 모자를 쓰고 다녔다. 그는 누각 위에 앉거나 누워 지내며 발이 땅에 닿는 것조차 꺼렸고, 평생 위나라의 벼슬을 받지 않았다. 반면 화흠은 먼저 손권 밑에 있다가 나중에 조조에게 귀순하였는데, 그가 조조를 섬기며 복후를 잡아들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후대의 어떤 이가 화흠을 비판하며 지은 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화흠이 그날 흉악한 꾀를 부려, 벽을 부수고 황후를 잡아 가두었네. 포악한 자를 도와 호랑이 날개를 달아주니, 용의 머리라 불리던 자가 천 년의 욕을 먹는구나."

또 어떤 시인이 관녕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요동에 관녕의 누각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사람은 떠나고 빈 누각만 이름 남았구나. 부귀를 탐한 자어(子魚, 화흠)를 우습게 여기노니, 어찌 흰 모자 쓰고 스스로 풍류를 즐긴 관녕만 하겠는가.'

한편, 화흠이 복후를 끌고 외전으로 나갔다. 헌제가 이를 보고 전각 아래로 내려와 복후를 껴안고 통곡했다. 화흠이 말했다. "위공의 명이니 어서 가십시오!" 복후는 울면서 헌제에게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헌제가 대답했다. "나의 목숨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겠구나!" 무장들이 복후를 강제로 끌고 가자, 헌제는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했다. 곁에 있던 치려를 본 헌제가 말했다. "치공!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는 울다 못해 땅에 쓰러졌다. 치려가 좌우의 부하들에게 명하여 헌제를 부축해 궁 안으로 모시게 했다.

화흠이 복후를 붙잡아 조조에게 끌고 가니, 조조가 꾸짖으며 말했다. "내가 진심으로 너희를 대하였거늘, 너희는 도리어 나를 해치려 드는구나!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나를 죽이려 들 것이로다." 말을 마친 조조는 곁에 있던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마구 때려죽이게 했다. 그러고는 즉시 궁으로 들어가 복후가 낳은 두 아들을 모두 독살했다. 그날 밤, 복완과 목순을 비롯한 일가친척 200여 명을 모두 시장터에서 참수하니, 조정과 민간의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 때는 건안 19년 11월이었다. 후대의 어떤 이가 시를 지어 탄식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조조의 흉악함은 세상에 유례가 없고, 복완의 충의는 어찌 다 말하리오. 가련한 황제와 황후의 이별은, 차라리 민간의 부부가 헤어지는 것만 못하구나."

헌제는 복후를 폐한 뒤로 며칠째 식사도 하지 못했다. 이때 조조가 들어오며 말했다. "폐하, 근심하지 마십시오. 신에게는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신의 딸을 폐하의 귀인으로 삼았는데, 아이가 어질고 효성이 지극하니 마땅히 정궁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헌제가 어찌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리하여 건안 20년 정월 초하루, 새해를 축하하는 명절을 맞아 조조의 딸인 조 귀인을 정식 황후로 책봉하였다. 신하들 중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어 반대하지 못했다.

이 무렵 조조의 위세는 날로 높아져, 대신들을 모아놓고 오나라를 치고 촉나라를 멸망시킬 방책을 논의했다. 가후가 말했다. '하후돈과 조인, 이 두 사람을 불러들여 이 일을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조조는 즉시 사신을 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불러들였다. 하후돈이 도착하기 전에 조인이 먼저 도착하여, 그날 밤 곧장 조조의 부중으로 들어갔다. 조조는 막 술에 취해 누워 있었고, 허저는 칼을 든 채 대청 문 안에서 지키고 있었다. 조인이 들어가려 하자 허저가 앞을 막아섰다. 조인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조씨 가문의 종친인데, 네가 감히 누구를 막아서느냐?' 그러자 허저가 말했다. '장군께서 아무리 친족이라 해도 변방을 지키는 관리이시고, 저 허저는 비록 사이가 멀어도 지금은 안에서 모시는 몸입니다. 주군께서 대청에 술에 취해 누워 계시니

감히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조조가 이 말을 듣고 탄식하며 말했다. '허저는 참으로 충직한 신하로구나!'

며칠 지나지 않아 하후돈도 도착하여 함께 정벌 계획을 논의했다. 하후돈이 말했다. '오나라와 촉나라는 급히 칠 수 없으니, 먼저 한중의 장로를 치고, 거기서 얻은 승전병을 몰아 서천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단번에 서천을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가 대답했다. '내 생각도 바로 그것이다.' 그러고는 곧장 군사를 일으켜 서쪽으로 정벌을 떠났다. 과연 흉악한 계책으로 약한 군주를 속이려 하더니, 또 정예병을 몰아 변방을 휩쓸려 하는구나. 결국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7회 — 조조가 한중 땅을 평정하고, 장료가 소요진에서 위엄을 떨치다

曹操平定漢中地 張遼威震逍遙津

한편,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서쪽으로 정벌을 떠나며 세 갈래로 군대를 나누었다. 앞장서는 선봉에는 하후연과 장합을 배치했고, 조조는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중간에서 직접 군대를 이끌었으며, 뒤편에서는 조인과 하후돈이 군량과 군수품을 운반하며 뒤를 받쳤다.

이 소식은 이미 한중에 있는 첩자를 통해 전해졌다. 장로와 그의 동생 장위는 적을 물리칠 계책을 논의했다. 장위가 말했다. "한중에서 지형이 험한 곳을 꼽으라면 양평관만 한 곳이 없습니다. 관문 좌우의 산과 숲을 따라 열 개 남짓한 보루를 세워 조조의 군사를 맞이해야 합니다. 형님께서는 한녕에 계시니, 군량을 넉넉히 보내 이 상황에 대비해 주십시오."

장로는 그 말에 따라 대장 양앙과 양임, 그리고 동생을 즉시 출발시켰다. 군마가 양평관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채비를 마쳤을 때, 하후연

과 장합이 이끄는 전군도 뒤따라 도착했다. 양평관이 이미 방비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 관문에서 15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그날 밤, 군사들이 피곤에 지쳐 각자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진영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더니, 양앙과 양임이 이끄는 두 갈래의 병사들이 진영을 습격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하후연과 장합이 급히 말에 올라탔으나, 사방에서 대군이 밀려드는 바람에 조조의 군대는 크게 패하여 조조에게 퇴각했다. 조조가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너희 둘은 수년간 군사를 이끌어온 자들이면서, '군사가 먼 길을 오느라 지쳤을 때는 반드시 진영 습격을 경계해야 한다'는 법도도 모르느냐? 어찌하여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단 말이냐!" 조조는 군법을 세우기 위해 두 사람을 베려 했으나, 여러 장수와 관원들이 간청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다.

조조는 다음 날 직접 선봉 부대를 이끌고 나아갔다. 그런데 산세가 험하고 숲이 무성하여 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자, 혹시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진 조조는 즉시 군대를 돌려 진영으로 돌아왔다. 조조가 허저와 서황 두 장수에게 말했다.

"이곳이 이토록 험악한 줄 알았다면 결코 군사를 일으켜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자 허저가 말했다.

"이미 여기까지 군사가 왔으니, 주공께서는 수고로움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 조조는 말을 타고 허저, 서황 두 사람만 데리고 장위의 진영 울타리를 살펴보러 나갔다. 말 세 마리가 산비탈을 돌아가자 멀리서

장위의 진영 울타리가 보였다. 조조는 채찍을 들어 멀리 가리키며 두 장수에게 말했다.

"저렇게 견고하니 급히 공격하기가 참으로 어렵겠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편에서 고함이 터져 나오더니,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양앙과 양임이 두 갈래 길로 나누어 습격해 온 것이었다. 조조가 크게 놀라자, 허저가 크게 외쳤다. “내가 적들을 막을 테니, 서황 공은 주군을 잘 보살피시오!” 말을 마친 허저는 칼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앞으로 나아가 두 장수를 상대로 용맹하게 맞섰다. 양앙과 양임은 허저의 기세에 눌려 말머리를 돌려 퇴각했고, 나머지 군사들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사이 서황은 조조를 보호하며 산등성이를 넘어 달렸는데, 앞쪽에서 또 다른 군대가 나타났다. 살펴보니 하후연과 장합이었다. 두 장수는 함성 소리를 듣고 지원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달려온 것이었다. 덕분에 양앙과 양임의 군대를 격퇴하고 조조를 무사히 진영으로 구출할 수 있었다. 조조는 공을 세운 네 장수에게 큰 상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오십여 일 동안 대치했으나, 서로 싸우지는 않았다. 그러다 조조가 군대를 물린다는 명령을 내렸다. 가후가 물었다. “적의 세력이 강한지 약한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스스로 물러나려 하십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적병들이 매일같이 경계하며 대비하고 있으니, 급히 승부를 내기는 어렵다. 일단 군대를 물리는 척하여 적의 경계심을 늦추고 방심하게 만든 뒤, 가벼운 기병을 나누어 적의 후방을 기습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가후가 감탄하며 말했다. “승상의 지략은 참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조조는 하후연과 장합에게 병력을 나누어 맡겼다. 각각 가벼운 기병 삼천 명을 이끌고 샛길로 양평관 뒤를 기습하게 했다. 한편 조조 본인은 대군을 이끌고 진영을 걷어 올리며 전진했다.

양앙은 조조군이 퇴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양임을 찾아가 상의하며, 이 기세를 몰아 공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양임이 말했다. "조조는 속임수가 매우 많아 진의를 알 수 없으니, 함부로 뒤쫓아서는 안 됩니다." 양앙이 대답했다. "공께서 가지 않으신다면, 저라도 혼자 가겠습니다." 양임이 간곡히 만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양앙은 다섯 개 진영의 군마를 모두 이끌고 전진했으며, 진영에는 소수의 병사들만 남겨두었다.

이날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맞은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양앙의 군사가 길 중간쯤 이르렀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일단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

한편, 하후연의 군대가 산을 돌아 넘어갔을 때, 하늘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고 어디선가 사람의 말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후연은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서둘러 군사들을 몰아 움직이게 했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한 탓에 그만 양앙의 진영 앞으로 잘못 들어서고 말았다. 진영을 지키던 병사들은 말발굽 소리를 듣고 양앙의 부대가 돌아오는 줄로만 알고 문을 열어 들여보냈다. 조조의 군대가 한꺼번에 밀고 들어갔으나 그곳이 빈 진영임을 알게 되자, 곧바로 진영 안에 불을 질렀다. 다섯 진영의 병사들은 모두 진영을 버리고 달아났다.

안개가 걷힐 무렵, 양임이 병사들을 이끌고 구하러 왔으나 하후연과 몇 합 싸우지 못하고, 마침 뒤에서 장합의 군대가 도착했다. 양임은 퇴로를 찾아 남정으로 급히 도망쳤다. 양앙이 돌아가려 했을 때는 이미 하후연과 장합 두 장수가 진영을 점령한 뒤였다.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조조의 대부대가 들이닥쳤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니 사방에 길이 없었다. 양앙이 적진을 뚫고 나가려다 마침 장합과 맞닥뜨렸는데,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다 결국 장합에게 죽임을 당했다.

패잔병들은 양평관으로 도망쳐 장위를 찾아갔으나, 알고 보니 장위는 이미 두 장수가 패퇴하고 여러 진영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관문을 버려둔 채 도망친 상태였다. 이로써 조조는 양평관과 주변의 여러 진영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장위와 양임이 장로를 뵙기 위해 돌아왔다. 장위가 두 장수가 요충지를 잃었기에 관문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고하자, 장로는 크게 노하여 양임을 베려 했다. 이때 양임이 간청했다.

"제가 예전에 양앙에게 조조의 군대를 쫓지 말라고 간언했으나, 그가 듣지 않아 이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제게 다시 군사를 주시면 적진으로 달려가 조조를 반드시 베어 오겠습니다.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기꺼이 군령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장로는 양임의 청을 받아 군령장을 써 주었다. 양임은 곧바로 말을 타고 이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정에서 떠나 진을 쳤다.

한편, 조조가 군사를 몰아 진격하려 하자, 먼저 하후연에게 군사 5천을 주어 남정으로 가는 길목을 정찰하게 했다. 마침 양임의 군마와 딱

마주치자 양측 군대가 진을 치고 대치했다. 양임이 부장 창기를 내보내 하후연과 맞붙게 했으나, 채 세 합도 가기 전에 하후연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양임이 직접 창을 들고 달려 나와 하후연과 서른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때 하후연이 일부러 패하는 척하며 도망치자 양임이 그 뒤를 쫓아왔는데, 하후연이 묘수를 써서 양임을 말 아래로 베어 넘겼다. 결국 양임의 군대는 크게 패하여 퇴각했다.

조조는 하후연이 양임을 베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군사를 몰아 남정까지 진격하여 진을 쳤다. 장로는 당황하여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염포가 말했다. "제가 한 사람을 천거하니, 그 사람이면 조조 휘하의 여러 장수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누구냐고 묻자, 염포가 대답했다. "남안 출신의 방덕입니다. 예전에 마초를 따르다가 주군께 항복했습니다. 그 후 마초가 서천으로 떠날 때 방덕은 병이 들어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군의 은혜로 보살핌을 받고 있으니, 어찌 이 사람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장로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방덕을 불러들여 상을 두둑이 내리고 격려했다. 그러고는 군사 만 명을 선발하여 방덕에게 맡겨 출정시켰다. 방덕이 성을 떠나 십여 리쯤 나아갔을 때 조조의 군사와 마주치자, 방덕은 말을 몰아 싸움을 걸었다. 조조는 위교에 있을 때부터 방덕의 용맹함을 깊이 알고 있었기에 장수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방덕은 서량의 용맹한 장수로 원래 마초의 부하였다. 지금은 비록 장로에게 의탁하고 있으나 아직 그 마음에 흡족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저 사람을

얻고 싶으니, 너희는 반드시 모두 적당히 싸우며 방덕의 힘을 빼놓은 뒤에 사로잡도록 하라."

장합이 먼저 나가 몇 합을 겨루더니 물러났다. 하후연 역시 몇 합을 싸우다 물러났고, 서황도 서너 합을 싸우다 물러났다. 이어 허저가 쉰 합 넘게 싸우고 나서야 물러났다. 반면 방덕은 네 명의 장수를 상대로 힘껏 맞서 싸우면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기색이 없었다. 장수들은 모두 조조 앞에서 방덕의 무예가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조조는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장수들과 의논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항복시킬 수 있겠는가?" 가후가 말했다. "장로의 수하에 양송이라는 모사가 있는데, 그자는 뇌물을 매우 밝힙니다. 지금 몰래 금과 비단 같은 재물을 보내 양송이 장로에게 방덕을 모함하게 만든다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조조가 물었다. "어떻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가후가 대답했다. "내일 전투에서 일부러 패하는 척하며 진영을 버리고 도망치십시오. 그리하여 방덕이 우리 진영을 차지하게 만든 뒤, 우리가 밤중에 군사를 이끌고 그 진영을 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덕은 반드시 성 안으로 퇴각할 것입니다. 그때 말을 잘하는 군사를 골라 적군으로 변장시켜 적의 무리 속에 섞이게 하면 성 안으로 잠입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그 계책을 듣고 정예병을 선발하여 큰 상을 내린 뒤, 금으로 만든 갑옷을 한 벌 주며 몸에 밀착해 입고 그 위에 한중 군사의 군복을 덧입게 했다. 그리고는 길 중간에서 기다리게 했다. 이튿날, 먼저 하후연과 장합의 군사 두 부대를 멀리 보내 매복하게 한 뒤, 서황을 보내 도전하게 하여 채 몇 합도 되지 않아 패하며 도망치게 했다. 그러자 방덕

이 군사를 몰아 습격해 왔고, 조조의 병사들은 모두 퇴각했다. 방덕은 기세를 몰아 조조의 진영을 빼앗았다. 진영 안에 군량이 아주 많은 것을 본 방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장로에게 보고하는 한편, 진영에서 잔치를 베풀어 승리를 축하했다.

그날 밤 이경(二更)이 지난 뒤, 갑자기 세 방향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중앙에서는 서황과 허저가, 왼쪽에서는 장합이, 오른쪽에서는 하후연이 각각 군마를 몰고 몰려와 진영을 습격했다. 방덕은 미처 대비할 겨를도 없이 급히 말을 타고 달려 나와 성을 향해 도망쳤다. 뒤에서는 세 갈래의 군사들이 거세게 추격해 왔다. 방덕은 즉시 성문을 열라고 명령한 뒤,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때 첩자가 이미 성안으로 잠입하여 곧장 양송의 집으로 찾아가 인사를 올리며 상세히 보고했다. "위공이신 조조 승상께서 평소 귀공의 높은 덕망을 들어 오셨습니다. 특별히 저를 시켜 금갑을 보내 신의를 표하셨으며, 비밀 편지도 함께 올리라 하셨습니다." 양송은 크게 기뻐하며 비밀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고는 첩자에게 말했다. "위공께 전하라. 부디 안심하시라고 말이다. 내 반드시 좋은 계책을 세워 보답하겠다." 양송은 첩자를 먼저 돌려보낸 뒤, 그날 밤 즉시 장로를 찾아가 방덕이 조조에게 뇌물을 받고 이번 전투에서 일부러 져 주려 한다고 고했다. 장로는 크게 분노하여 방덕을 불러 꾸짖으며 당장 목을 베려 했다. 이에 염포가 간곡히 만류했으나, 장로는 "그대는 내일 출전하라. 만약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베어버릴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방덕은 원한을 가슴에 품은 채 물러났다.

다음 날, 조조의 군사가 성을 공격하자 방덕이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돌격해 나왔다. 조조는 허저에게 명령하여 그와 맞붙게 했다. 허저가 일부러 패하는 척하자 방덕이 그 뒤를 쫓아 달려왔다. 조조는 언덕 위에서 말을 타고 외쳤다. "방덕, 자네는 이름난 장수인데 어찌하여 진작 항복하지 않았는가!" 방덕은 속으로 '조조를 붙잡기만 하면 상장(上將) 천 명에 맞먹는다!'라고 생각하며 말을 몰아 언덕 위로 뛰어올랐다. 그 순간 커다란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하더니, 사람과 말이 줄줄이 함정 속으로 떨어졌다. 이어 사방에서 갈고리와 밧줄이 동시에 날아와 방덕을 생포하여 언덕 위로 압송해 왔다. 조조는 말에서 내려 군사들을 물러가게 한 뒤, 직접 방덕의 결박을 풀어주며 항복할 뜻이 있는지 물었다. 방덕은 장로가 어질지 못하다고 생각했기에 기꺼이 항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조는 방덕을 직접 부축하여 말에 태운 뒤 함께 대영으로 돌아갔는데, 이는 성 위에서 이 광경을 보게 하려는 의도였다. 장로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방덕은 조조와 나란히 말을 타고 이동했다. 장로는 양송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믿게 되었다.

다음 날, 조조는 세 방향에서 운제(사다리차)를 세우고 비포(투석기)를 동원해 맹렬히 공격했다. 장로가 그 기세를 보니 상황이 매우 절박함을 느끼고 동생 장위와 상의했다. 장위가 말했다. "창고와 부고를 모두 불태워 버리고, 남산으로 도망쳐 파중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양송이 말했다. "차라리 문을 열고 항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장위가 다시 말했다. "그저 다 태워버리고 떠나면 됩니다." 장로가 말했다. "본래 나는 나라에 귀순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되었으니,

나라의 자산인 창고와 부고를 허무하게 버릴 수는 없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창고를 봉쇄했다.

그날 밤 이경(밤 9시~11시 사이)이 되자, 장로는 온 가족과 노소들을 이끌고 남문을 열어 탈출했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추격하지 말라고 명한 뒤 병사를 이끌고 남정으로 들어갔다. 장로가 창고를 봉쇄하고 재물을 쌓아둔 것을 본 조조는 그를 가엾게 여겨, 사람을 파견해 파중으로 보내 항복을 권유하게 했다. 장로는 항복하려 했으나, 장위가 이를 거부했다. 이때 양송이 조조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 안에서 돕겠다고 알리자, 조조는 즉시 군사를 진격시켰다. 양송이 안에서 내응하기로 한 것이다. 조조는 편지를 받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파중으로 향했다. 장로는 동생 장위를 보내 적을 공격하게 했으나, 장위는 허저와 맞붙다 말 아래에서 베여 죽고 말았다. 패배하여 돌아온 군사들의 보고를 들은 장로는 성을 굳게 지키려 했다. 그러자 양송이 말했다. "지금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죽기만을 기다리는 꼴이 됩니다. 제가 성을 지킬 테니, 주공께서는 직접 나가서 결사전을 치르셔야 합니다."

장로가 그 말을 따랐다. 염포는 장로에게 나가지 말라고 간언했으나, 장로는 듣지 않고 끝내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맞서려 했다. 그러나 채 칼을 맞붙이기도 전에 후방의 군사들이 먼저 달아나 버렸다. 장로가 급히 퇴각하는데 뒤에서는 조조의 군사가 맹렬히 추격해 왔다. 장로가 성문에 다다랐으나, 양송은 문을 닫아걸고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장로가 더는 갈 곳이 없어 막막해 있을 때, 조조가 뒤쫓아와 크게 외쳤다. "어찌하여 진작 항복하지 않았는가!" 이에 장로는 말에서 내려 조조에게 항복하며 절을 올렸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장로가 창고를 봉인

해 두어 물자를 보존해 둔 마음을 높이 평가하여 정중하게 대접하고 장로를 진남장군으로 봉했다. 염포 등도 모두 열후로 봉해졌다. 이로써 한중 땅이 모두 평정되었다. 조조는 각 군에 태수를 나누어 임명하고 도위를 두게 했으며, 병사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오직 주인을 팔아 영광을 꾀한 양송만은 즉시 명을 내려 저잣거리에서 참수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였다. 후대의 사람들이 시를 지어 그를 탄식하며 읊었다. "현명한 이를 가로막고 주인을 팔아 기묘한 공을 세웠으나, 쌓아 둔 금은보화는 모두 헛것이로다. 집안은 번창하기는커녕 몸은 죽임을 당했으니, 천 년 동안 사람들이 양송을 비웃으리라."

조조가 이미 동천(한중)을 손에 넣었다. 이때 주부 사마의가 나아가 말했다. "유비가 속임수와 힘으로 유장의 땅을 빼앗았으니, 촉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공께서 한중까지 차지하셨으니 익주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군사를 일으켜 공격한다면 적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타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조조가 탄식하며 말했다. "사람은 참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는구나. 농(隴) 땅을 얻고 나니 이제는 촉나라까지 바라는 것인가?" 유엽이 거들었다. "사마중달의 말이 옳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제갈량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데 밝은 자가 재상이 되고 관우와 장비처럼 용맹이 삼군을 압도하는 자들이 장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촉나라 백성들이 안정을 찾고 요충지를 지키기 시작하면 그때는 침범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군사들이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으니, 우선은 그들을 보살피며 쉬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말을 마친 조조는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다.

한편, 서천의 백성들은 조조가 이미 동천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가 반드시 서천까지 쳐들어올 것이라 예상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공포에 떨었다. 유비는 군사인 제갈량에게 이 일을 논의하자고 청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으니, 이를 쓰면 조조가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유비가 어떤 계책인지 묻자 제갈량이 답했다. "조조가 군사를 나누어 합비에 주둔시키는 것은 손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하, 장사, 계양의 세 군을 오나라에 돌려보내고, 말솜씨 좋은 사신을 보내 이해득실을 설명한다면, 오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합비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조조의 기세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조는 반드시 군사를 거두어 남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유비가 "누가 사신으로 가는 것이 좋겠소?"라고 묻자, 이적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나섰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편지와 예물을 준비하여, 이적에게 먼저 형주로 가서 관우에게 알린 뒤 오나라로 들어가라고 명했다. 이적이 말릉에 도착하여 손권을 알현하고 먼저 성명을 밝히자, 손권이 이적을 불러들였다. 이적이 예를 갖추자 손권이 물었다. "그대는 여기까지 무엇 하러 왔는가?" 이적이 대답했다. "지난번 제갈자유께서 장사 등 세 군을 받으러 오셨을 때 군사께서 자리를 비우신 탓에 제대로 인계하지 못하여, 이제 서신을 전하며 돌려드리려 합니다. 본래 형주의 남군과 영릉도 돌려드리려 했으나, 조조가 동천을 습격하여 차지하는 바람에 관 장군께서 발붙일 곳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합비 쪽이 비어 있으니, 부디 군후께서 군사를 일으켜 그곳을 공격함으로써 조조가 군사를 거두어 남쪽으로 돌아가게 만드십시오. 저희 주군께서 동천을 차지하시게 되면, 즉시 형주의 모든 땅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손권이 말했다. "그대는 우선 관사로 돌아가 기다리고 있거라. 내가 의논해 보겠다."

이적이 물러가자, 손권은 여러 책사에게 계책을 물었다. 장소가 말했다. "이것은 유비가 조조가 서천을 차지할까 두려워 꾸민 계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조가 한중에 있으니 그 기세를 몰아 합비를 공격하는 것 또한 상책입니다." 손권이 그 말을 따랐다. 이적을 촉나라로 돌려보낸 뒤, 곧바로 조조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킬 논의를 시작했다. 손권은 노숙에게 장사, 강하, 계양의 세 군을 거두어 육구에 주둔하게 하고, 여몽과 감녕을 불러들이며, 또한 여항에 가서 유통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여몽과 감녕이 먼저 도착했다. 여몽이 계책을 올리며 말했다. "지금 조조가 노강태수 주광에게 명령하여 완성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넓은 논을 일구어 곡식을 합비로 거두어들이며 군량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완성을 점령한 뒤에 합비를 공격해야 합니다." 손권이 말했다. "그 계책이 내 뜻과 아주 잘 맞는구나." 손권은 즉시 여몽과 감녕을 선봉으로 삼고, 장흠과 반장을 후군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은 주태, 진무, 동습, 서성을 거느리고 중군이 되어 직접 나섰다. 이때 정보, 황개, 한당은 각지에서 수비 중이었기에 이번 정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군사들은 강을 건너 화주를 점령한 뒤 곧장 완성으로 향했다. 완성의 태수 주광은 사람을 보내 합비에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성을 굳게 지키며 밖으로 나오지 않고 버텼다. 손권이 직접 성 아래까지 가서 살펴보려 했으나, 성 위에서 화살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와 손권의 깃발을 맞혔다. 손권이 진영으로 돌아와 장수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완성을 함락할 수 있겠느냐?"

동습이 말했다. "군사들을 보내 토산을 쌓아 공격해야 합니다."

서성이 말했다. "운梯(구름사다리)를 세우고 무지개다리를 만들어 성 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자 여몽이 말했다. "그 방법들은 모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라, 합비의 구원군이 도착하면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막 도착하여 사기가 드높으니, 바로 이 기세를 몰아 힘껏 공격해야 합니다. 내일 새벽에 진군하여 정오나 미시쯤에는 반드시 성을 함락합시다."

손권이 그를 따랐다. 다음 날 새벽 다섯 시경, 식사를 마친 삼군이 크게 진격했다. 성 위에서는 화살과 돌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감녕은 쇠사슬을 손에 쥐고 화살과 돌을 무릅쓰며 성 위로 치고 올라갔다. 주광이 활 쏘는 병사들에게 일제히 사격하라고 명령했으나, 감녕은 화살의 숲을 헤치며 들어가 쇠사슬로 주광을 때려눕혔다. 여몽이 직접 북을 치며 군사들을 독려하자, 병사들이 모두 한꺼번에 달려들어 주광을 칼로 베어 죽였다. 나머지 병사들은 대부분 항복했고, 완성은 오전 여덟 시경에야 함락되었다. 한편 장료가 군사를 이끌고 중간 지점까지 갔을 때, 초병이 달려와 완성의 성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보고했다. 장료는 즉시 군사를 돌려 합비로 돌아갔다.

손권이 완성에 입성하자 능통도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다. 손권은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뒤, 삼군에 큰 상을 내리고 여몽과 감녕 등 여러 장수에게 두둑한 포상을 내리며 공을 축하하는 연회를 베풀었다. 여몽은 감녕을 상석으로 모시고 그의 공로를 크게 칭송했다.

술기운이 한창 오를 무렵, 능통은 감녕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게다가 여몽이 감녕을 치켜세우는 모습까지 보자 마음속에서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능통은 눈을 부릅뜨고 한참 동안 상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곁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들고 연회석 위에 서서 외쳤다.

"연회에 음악이 없으니, 내가 칼춤을 추는 것을 보시오!"

감녕도 그 뜻을 알아차리고는 술상을 밀쳐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양손에 창 두 자루를 쥐고 성큼성큼 걸어 나가며 말했다.

"내가 연회석 앞에서 창술을 펼치는 것을 보시오!"

여몽은 두 사람 모두 좋은 의도가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는 한 손에는 방패를,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들 사이에 서서 말했다.

"두 분의 솜씨가 뛰어나다 하나, 모두 나만큼 정교하지는 못할 것이오."

말을 마친 여몽은 칼과 방패를 휘두르며 두 사람을 양옆으로 갈라놓았다.

이미 누군가 손권에게 소식을 전했다. 손권은 당황하여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와 연회석 앞에 이르렀다. 장수들은 손권이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각자 들고 있던 무기를 내려놓았다. 손권이 말했다. "내가 평소에 말하지 않았느냐, 두 사람은 옛 원한을 잊어야 한다고. 그런데 오늘 어찌하여 또 이 모양이란 말이냐!" 능통이 바닥에 엎드려 울며 절을 올

리자, 손권은 몇 번이고 그를 만류했다. 다음 날, 손권은 합비로 진격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고, 삼군 전 장병이 출정했다.

장료는 완성을 잃고 합비로 돌아온 뒤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 그러던 중 조조가 설제를 보내 나무 상자 하나를 보냈는데, 상자에는 조조의 봉인이 되어 있었고 그 곁에는 '적이 오면 열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바로 그날, 손권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합비를 공격하러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장료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손권이 도착하면 장료와 이전 두 장군은 출전하여 싸우고, 악진 장군은 성을 지키도록 하라." 장료가 이 명령서를 이전과 악진에게 보여주자, 악진이 물었다. "장군께서는 이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료가 대답했다. "주군께서 멀리 원정을 떠나 계시니, 오나라 군사들은 우리가 반드시 패할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를 일으켜 적을 맞이하며 힘껏 싸워 그 기세를 꺾어 놓아야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킨 뒤에 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은 평소 장료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장료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악진이 이전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는 "적은 많은데 우리 군사는 적으니, 맞서 싸우기보다는 성을 굳게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료가 말했다. "그대들은 모두 사사로운 생각만 할 뿐, 공적인 일은 돌보지 않는구려. 내가 직접 나가 적을 맞이하여 반드시 죽기로 싸울 것이니, 좌우에 명하여 말을 준비시키시오." 이전은 이에 감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장군께서 이토록 결연하시니, 제가 어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일을 잊겠습니까? 장군의 지휘를 따르겠습니다." 장료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만성(이전)이 도와준다니 정말 다행이오. 내일 소요진 북쪽에 군사를 이끌고 가서 매복해 있으시오. 오나라 군사가 몰려오면 먼저 소사교를 끊어버려야 하니, 나와 악문겸(악진)이 함께 적을 격파할 것이오." 이전은 명을 받들어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매복을 준비했다.

한편, 손권은 여몽과 감녕을 앞세워 선봉대로 삼고, 자신은 능통과 함께 중간 부대에 머물렀다. 나머지 장수들도 차례로 군사를 일으켜 합비 쪽으로 진격하며 몰려왔다. 선봉대인 여몽과 감녕의 부대가 나아가자, 마침 악진이 이끄는 군대와 마주쳤다. 감녕이 말을 몰아 악진과 맞붙었는데, 몇 합을 겨루지 않아 악진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달아났다. 이를 본 감녕은 여몽에게 신호를 보내 함께 군사를 몰아 추격했다. 손권은 두 번째 부대에 머물고 있다가 앞선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재촉하여 소요진 북쪽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연달아 포성 소리가 들리더니, 왼쪽에서는 장료가 이끄는 군대가, 오른쪽에서는 이전이 이끄는 군대가 무섭게 달려들었다. 손권이 크게 놀라 급히 사람을 보내 여몽과 감녕에게 돌아와 구원하라고 명령하려 했으나, 이미 장료의 군대가 도착한 뒤였다. 능통의 수하에는 고작 삼백여 명의 기병뿐이었기에,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조조군의 기세를 도저히 막아낼 수 없었다. 능통이 크게 외쳤다. "주군, 어찌하여 어서 소사교를 건너지 않으십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료가 이끄는 이천여 명의 기병이 앞장서서 몰려왔다. 능통은 몸을 돌려 죽을 힘을 다해 맞서 싸웠다. 손권이 말을 몰아 다리로 건너려 했으나, 다리 남쪽은 이미 한 길 넘게 끊어져 있어 판자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 손권은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때 아장 곡리가 크게 외쳤다. "주공, 우선 말을 뒤로 물린 다음, 다시 말을 몰아 앞으로 달려가 다리를 뛰어넘으십시오!" 손권이 말을 돌려 세 길 남짓한 거리를 뒤로 물러난 뒤, 다시 고삐를 당기며 채찍질을 하자 말이 단숨에 훌쩍 뛰어올라 다리 남쪽을 건너갔다. 후대의 시인은 이를 두고 이렇게 읊었다. "그날 적로마가 단계를 뛰어넘더니, 또다시 오후(吳侯)가 합비에서 패하는 것을 보았네. 말을 뒤로 물려 채찍질하며 준마를 달리니, 소요진 위에서 옥룡처럼 날아올랐구나."

손권이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도망치자, 서성과 동습이 배를 몰아 마중 나갔다. 능통과 곡리는 장료를 막아섰다. 여몽과 감녕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돌아왔으나, 뒤쫓아온 악진에게 습격을 당하고 이전에게까지 길을 차단당해 난전이 벌어지면서 오나라 병사들은 태반이 죽거나 다쳤다. 능통이 이끌던 300여 명의 병사는 모두 전사했다. 능통 자신도 여러 발의 창에 찔린 채 다리 근처까지 겨우 도달했으나, 이미 다리가 끊겨버린 탓에 강을 돌아 도망쳐야 했다. 배 위에 있던 손권이 이 광경을 보고 급히 동습에게 명령하여 배를 보내 그를 건져 올렸다. 여몽과 감녕도 죽을 힘을 다해 강을 건너 살아남았다.

이 전투의 참혹한 살육은 강남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으니, 장료의 명성만 들으면 어린아이조차 밤에 울지 못할 정도였다. 여러 장수가 손권을 호위하여 진영으로 돌아갔다. 손권은 능통과 곡리에게 큰 상을 내린 뒤, 군사를 거두어 유수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배를 정비하며 수로와 육로로 동시에 진격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람을 강남으로 보내 다시 병력을 일으켜 전투를 돕게 했다.

한편, 장료는 손권이 유수에서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합비의 병력이 적어 적을 막아내기 어려울까 걱정되었다. 이에 급히 설제를 한중으로 보내 밤낮없이 달려가 조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구원병을 요청하게 했다. 조조가 여러 관리와 함께 의논하며 말했다. "지금 서천을 취해도 되겠느냐?" 유엽이 대답했다. "지금 촉 땅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이미 대비를 갖추고 있으니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군사를 거두어 합비의 급한 상황을 구하러 강남으로 내려가는 것이 낫습니다."

조조는 하후연을 남겨 한중의 정군산 요충지를 지키게 하고, 장합을 남겨 몽두암 등의 길목을 지키게 했다. 그러고는 나머지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진영을 걷어낸 뒤, 유수오를 향해 무섭게 돌격했다.

정말로 이러하니, 철기군이 막 농우를 평정하자마자, 깃발은 다시 강남을 가리키고 있구나. 승부가 어떻게 날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제68회 — 감녕이 백 기로 위나라 진영을 습격하고, 좌자가 술잔을 던지며 조조를 희롱하다

甘寧百騎劫魏營 左慈擲盃戲曹操

한편, 손권이 누수구에서 군마를 정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조가 한중에서 40만 대군을 이끌고 합비 구원을 위해 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손권이 모사들과 대책을 논의한 끝에, 먼저 동습과 서성 두 사람에게 큰 배 50척을 주어 누수구에 매복하게 하고, 진무에게는 인마를 이끌고 강가를 오가며 순찰하도록 명령했다.

장소가 말했다. "지금 조조가 멀리서 오고 있으니, 반드시 먼저 그 기세를 꺾어놓아야 합니다."

손권이 장수들에게 물었다. "조조가 멀리서 오고 있다. 누가 먼저 적을 격파하여 그 기세를 꺾어놓겠느냐?"

그러자 릉통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손권이 물었다. "군사를 얼마나 데려가겠느냐?"

릉통이 대답했다.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자 감녕이 끼어들며 말했다. "기병 100명만 있어도 적을 격파할 수 있는데, 어찌 3천 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에 릉통이 크게 화를 내며, 두 사람은 손권 앞에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손권이 말했다. "조조의 군세가 워낙 크니 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릉통에게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누수구로 나가 정찰을 하다가, 조조의 군사를 만나면 즉시 교전하라고 명령했다.

릉통이 명을 받들어 삼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수오를 떠났다. 그러나 먼지가 일어나는 곳을 보니 조조의 군사가 이미 먼저 도착해 있었다. 선봉장 장료와 릉통이 맞붙어 쉰 합을 겨루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손권은 릉통이 위험에 처할까 염려되어 여몽에게 릉통을 지원하여 진영으로 데려오라고 명했다.

감녕은 릉통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손권에게 보고했다. "제가 오늘 밤 백 명의 병사만 데리고 조조의 진영을 습격하겠습니다. 만약 한 명의 병사와 말 한 마리라도 잃는다면, 그것은 공으로 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손권은 감녕의 기개에 감탄하여, 즉시 자신의 수하에서 정예 기병 백 명을 뽑아 감녕에게 맡기고, 술 쉰 병과 양고기 쉰 근을 내려 군사들에게 상으로 주었다.

감녕이 진영으로 돌아온 뒤, 백 명의 병사를 모두 앉게 했다. 그러고는 먼저 은사발에 술을 가득 따라 두 사발을 연거푸 마신 뒤, 백 명의 병사에게 말했다. "오늘 밤 명을 받들어 적진을 습격할 것이니, 제군들은 모두 술을 한 잔씩 가득 마시고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시오!"

병사들이 이 말을 듣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망설였다. 감녕은 병사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서린 것을 보고는, 칼을 뽑아 손에 든 채 크게 꾸짖었다. "나 또한 장수로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주저하고 있느냐!" 감녕이 노기를 띠며 호통을 치자, 병사들은 모두 일어나 절하며 외쳤다. "죽음을 무릅쓰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녕은 술과 고기를 준비해 백 명의 부하와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뒤, 밤이 두 경(약 밤 10시)쯤 되었을 때 백 명의 군사들에게 흰 거위 깃털 백 개를 가져오게 하여 투구에 꽂아 신호로 삼게 했다. 그들은 모두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타 조조의 진영을 향해 맹렬히 달려갔다. 진영 입구의 장애물을 치워버린 뒤, 크게 한 번 소리를 지르며 진영 안으로 난입한 감녕은 곧장 조조가 있는 중앙 진영을 향해 돌격했다.

본래 조조의 중앙 진영은 수레와 말들이 길을 따라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 마치 철통처럼 견고했기에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감녕은 단 백 명의 기병만을 이끌고 좌우로 거침없이 돌파하며 몰아붙였다. 조조의 군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당황하여 자기들끼리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감녕의 백 명 기병은 진영 안을 종횡무진 누비며 마주치는 적들을 모조리 베어 넘겼다. 각 진영에서는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곳곳에서 횃

불이 별처럼 치솟으며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감녕은 진영의 남문을 통해 당당히 뚫고 나왔는데, 그 기세에 눌려 감히 맞서는 자가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손권은 주태에게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 감녕을 지원하라고 명했다. 감녕은 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무사히 누수구로 돌아왔다. 조조의 군사들은 혹시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감히 추격하지 못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시로 찬양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북소리 요란하게 땅을 흔드니, 오나라 군사 나타난 곳마다 귀신도 슬퍼하네. 백 개의 깃털이 조조의 진영을 꿰뚫으니, 감녕이 용맹한 장수임을 온 세상이 아는구나."

감녕은 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진영에 도착했는데, 단 한 명의 병사나 말도 잃지 않았다. 진영 문에 이르자 감녕은 백 명의 군사에게 북을 치고 피리를 불게 하며 입을 모아 "만세!"라고 외치게 했다. 그 환호성이 천지를 진동시키자 손권이 직접 마중을 나왔다. 감녕이 말에서 내려 절을 올리자, 손권은 그를 부축해 일으키며 감녕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장군이 이번에 보여준 활약은 저 늙은 도적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오. 내가 그대를 사지로 내몰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대의 담력을 시험해 보려 했던 것이었소."

그러고는 비단 천 필과 날카로운 칼 백 자루를 하사했다. 감녕은 절을 하며 물건을 받은 뒤, 곧바로 백 명의 부하에게 나누어 상을 주었다. 손권이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조조에게 장료가 있다면 나에게는 감흥패가 있으니, 충분히 맞설 수 있다"라고 하였다.

다음 날, 장료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싸움을 걸었다. 릉통은 감녕이 큰 공을 세우는 것을 보고 분연히 나서며 말했다. "제가 장료를 상대하겠습니다!" 손권이 이를 허락하자, 릉통은 곧장 군사 오천 명을 거느리고 유수에서 떠났다. 손권은 직접 감녕을 데리고 전장으로 나가 싸움을 지켜보았다.

대치 중인 진영의 맞은편에서 장료가 말을 타고 나왔는데, 왼쪽에는 이전이, 오른쪽에는 악진이 버티고 있었다. 릉통은 말을 달려 칼을 휘두르며 진영 앞까지 나아갔다. 장료는 악진을 보내 그를 맞이하게 했다. 두 장수가 쉰 합을 싸우는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가 직접 말을 타고 깃발 아래로 내려와 구경하다가, 두 장수가 한창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보고 조휴에게 몰래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다. 조휴는 즉시 장료의 뒤쪽으로 몸을 숨긴 뒤 활을 당겨 화살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정확히 릉통이 타고 있던 말의 정중앙에 맞았다. 말이 앞발을 들고 일어서는 바람에 릉통은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악진이 연달아 창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그를 찌르려 했다. 그런데 창이 닿기도 전에 활시위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화살 한 발이 악진의 얼굴을 정면으로 맞혔고, 악진은 몸을 뒤집으며 말에서 떨어졌다.

양쪽 군사가 일제히 달려 나와 각자 자기 장수를 구해 진영으로 물러갔고, 징을 울려 싸움을 멈추었다. 릉통은 진영으로 돌아와 손권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손권이 말했다. "화살을 쏘아 너를 구한 사람은 바로 감녕이다." 릉통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녕에게 절하고 말했다. "공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때부터 릉통은 감녕과 생사를 함께하는 벗이 되었고, 다시는 감녕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

한편, 조조는 악진이 화살에 맞은 것을 보고 직접 막사로 가서 치료했다. 다음 날, 조조는 다섯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누수구를 공격하게 했다. 조조가 직접 중간 길목을 이끌었고, 왼쪽으로는 장료가 첫 번째 길을, 이전이 두 번째 길을 맡았다. 오른쪽으로는 서황이 첫 번째 길을, 방덕이 두 번째 길을 맡았다. 각 길마다 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강변을 향해 무섭게 돌진해 왔다.

이때 동습과 서성 두 장수가 배 위에 있었는데, 다섯 갈래의 군마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모든 군사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성이 말했다. "임금의 녹을 먹는 자로서 임금께 충성하는 일이 어찌 두렵겠는가!" 그러고는 곧장 용맹한 장사 수백 명을 이끌고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이전의 군대 속으로 뛰어들었다. 동습은 배 위에서 군사들에게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기세를 북돋웠다.

그런데 갑자기 강 위에서 거센 바람이 몰아치더니, 하얀 파도가 하늘을 찌를 듯이 일며 물결이 요동쳤다. 군사들은 커다란 배가 뒤집히려는 것을 보고는 앞다투어 작은 배로 옮겨 타 목숨을 구하려 했다. 동습이 칼을 휘두르며 크게 꾸짖었다. "장수로서 임금의 명을 받아 이곳에서 적을 막고 있는데, 어찌 감히 배를 버리고 도망칠 수 있단 말이냐!" 그는 배를 버리고 내리려는 군사 열댓 명을 즉시 베어버렸다. 그러나 잠시 후 바람이 더욱 거세지면서 배가 뒤집혔고, 결국 동습은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서성은 이전의 군대 속에서 적진을 누비며 격렬하게 싸웠다.

한편, 진무는 강가에서 들려오는 싸움 소리를 듣고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가 방덕과 맞닥뜨려 양측 군사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손권은 누수구에 있다가 조조의 군사가 강가까지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주태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지원하러 나섰다. 마침 서성이 이전의 군대 한복판을 휘저으며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손권은 군사를 지휘하여 서성을 도우려 파고들었다. 그러나 장료와 서황이 이끄는 두 갈래의 군사에게 가로막혀 손권은 포위망 한가운데 갇히고 말았다. 언덕 높은 곳에서 손권이 포위된 것을 본 조조는 급히 허저에게 명령을 내려,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군사들 사이로 돌진하게 했다. 이에 허저가 손권의 군대를 두 동강 내버리는 바람에, 양측은 서로를 구해주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한편, 주태가 군사들 사이를 뚫고 나와 강가에 이르렀으나 손권이 보이지 않자, 말머리를 돌려 다시 진영 안으로 돌진하며 자기 부하들에게 물었다. "주군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부하가 병사들이 빽빽하게 모인 곳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주군께서 급히 포위당하셨습니다!" 주태는 몸을 던져 적진으로 뛰어들어 헤치고 나간 끝에 손권을 찾아냈다. 주태가 말했다. "주군, 저를 따라 이곳을 돌파하셔야 합니다." 이에 주태가 앞장서고 손권이 그 뒤를 따르며 힘차게 적진을 뚫고 나갔다. 주태가 강가에 도착해 뒤를 돌아보았으나 또 손권이 보이지 않자, 그는 다시 말머리를 돌려 포위망 속으로 뛰어들어 또다시 손권을 찾아냈다. 손권이 말했다.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져 도저히 나갈 수가 없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주태가 말했다. "주군께서 앞장서시고 제가 뒤를 지킨다면 충분히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손권이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다. 주태는 좌우에서 손권을 호위하며 앞장섰는데, 몸에 여러 차례 창을 맞고 화살이 두꺼운 갑옷을 뚫을 정도였으나 끝내 손권을 구해냈다. 강가에 이르자 여몽이 수군 한 부대를 이끌고 와 배를 맞이하며 손권을 내려주었다. 손권이 말했다. "주태가 세 번이나 목숨을 걸고 싸운 덕분에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구나. 하지만 서성이 적진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있는데, 그를 어떻게 구출하겠느냐?" 주태가 대답했다. "제가 다시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창을 휘두르며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 서성을 구해냈다. 두 장수는 모두 중상을 입었다. 여몽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화살을 퍼부어 강가에 있는 적들을 막아낸 뒤, 두 장수를 무사히 배로 실어 날랐다.

한편, 진무와 방덕이 크게 맞붙어 싸우던 중 뒤에서 지원군이 오지 않자, 진무는 방덕에게 쫓겨 숲이 우거진 골짜기 입구까지 밀려났다. 진무가 다시 몸을 돌려 싸우려 했으나, 나무줄기에 옷소매가 걸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결국 방덕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한편, 조조는 손권이 탈출한 것을 보고 직접 말을 달려 군사들을 몰아 강가까지 쫓아가 화살을 퍼부었다. 여몽은 화살이 다 떨어져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한 무리의 배가 나타났다. 그 선두에 선 대장은 바로 손책의 사위 육손으로, 직접 십만 대군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다. 육손의 군대가 화살을 퍼붓자 조조의 군사들은 뒤로 물러났고, 육손은 그 기세를 몰아 강가에 상륙해 조조의 군사를 추격하며 수천 마리의 말까지 빼앗았다. 조조의 군사들은 부상자가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하여 대패한 채 후퇴했다. 난전 속에서 진무의 시신은 뒤늦게 발견되었다.

손권은 진무가 이미 죽고 동습마저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며 통곡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물속에서 동습의 시신을 찾아내게 한 뒤, 진무의 시신과 함께 정중히 장사 지내주었다. 또한 주태가 자신을 구한 공로에 감격하여 잔치를 베풀고 극진히 대접했다. 손권은 직접 술잔을 들어 주태의 등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그대가 두 번이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해주었으니, 수십 발의 창에 맞아 온몸의 살점이 도려내진 듯 상처투성이로구나. 내가 어찌 그대에게 혈육과 같은 은혜를 베풀지 않고, 군사를 맡기는 중책을 지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나의 공신이니, 마땅히 그대와 함께 영광과 치욕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겠노라."

말을 마친 손권은 주태에게 옷을 벗게 하여 장수들에게 보여주게 했다. 주태의 살갗은 마치 칼로 파낸 듯 상처가 온몸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손권은 손가락으로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어떻게 다쳤는지 물었고, 주태가 전투 중에 입은 상처를 자세히 설명할 때마다 상처 하나당 술을 한 잔씩 마시게 했다. 그날 주태는 크게 취했다. 손권은 주태에게 푸른 비단 우산을 하사하고, 그가 출입할 때마다 장수들이 우산을 받들어 모시게 하여 그 공로를 널리 드러내게 했다.

손권은 누수구에서 조조와 한 달 넘게 맞서 싸웠으나 어느 쪽도 승기를 잡지 못했다. 이때 장소와 고옹이 상소를 올려 말했다. "조조의 세력이 워낙 강하니 무리하게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싸움이 길어지면 병사들의 손실이 너무 커질 것이니, 차라리 화친을 맺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손권이 이 말을 따르기로 하고 보체에게 조조의 진영으로 가서 화친을 청하게 했으며, 매년 조공을 바치기

로 약속했다. 조조는 강남의 형세가 급박하여 당장 아래로 내려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손권이 먼저 군사와 말을 철수하면, 나도 그 후에 군대를 돌리겠다"라고 명령했다. 보체가 돌아와 보고하니, 손권은 장흠과 주태만을 남겨 누수구 입구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모든 대군을 배에 태워 말릉으로 철수시켰다.

조조는 조인과 장료를 합비에 남겨 군사를 주둔시키게 한 뒤, 군대를 이끌고 허창으로 돌아갔다. 조정의 문무 백관은 모두 조조를 위왕으로 세우자고 논의했다. 그러나 상서 최염은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다른 관리들이 "자네만 순문약(순욱)의 일을 보지 못했단 말인가?"라고 했다. 최염이 크게 화를 내며 외쳤다. "때가 오리라! 때가 오리라! 머지않아 반드시 변고가 생길 것이니, 마음대로 해 보아라!" 이때 최염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자가 이 말을 조조에게 고했다. 조조는 크게 노하여 최염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문초했다. 최염은 호랑이 같은 눈과 곱슬곱슬한 수염을 한 채, 그저 조조를 임금을 기만하는 간적이라고 크게 욕할 뿐이었다. 정위(廷尉)가 이 일을 조조에게 아뢰자, 조조는 옥에 있는 최염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게 했다. 훗날 사람들이 그를 기리며 다음과 같이 찬양했다.

"청하의 최염은 천성이 강직하고 곧았으니, 호랑이 같은 눈과 용의 수염을 가진 강철 같은 심장이로다. 간사한 무리가 물러가고 그 절개는 드높으니, 한나라 황제를 향한 충심은 천고에 이름을 떨치리라!"

건안 21년 여름 5월, 신하들이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위공 조조의 공덕을 찬양하였다. 그 공덕은 하늘과 땅에 가득하여 옛 성군인 이윤과 주공조차 미치지 못할 정도이니, 마땅히 작위를 높여 왕으로 삼아야 한

다고 건의하였다. 황제는 즉시 종요에게 명하여 조서를 초안하게 하고, 조조를 위왕으로 책봉하였다. 조조는 겉으로는 사양하는 글을 올렸으나, 세 번이나 조서를 내려 권유함에도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결국 조조는 명을 받아 위왕의 작위를 받았다. 그는 면류관의 술을 열두 줄로 늘어뜨리고 금으로 장식한 수레를 탔으며, 여섯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몰았다. 또한 천자의 의복과 장식까지 갖추어 호위병을 거느리고 위엄 있게 행차하였으며, 업군에 위왕궁을 세우고 세자를 세우는 일을 논의하였다. 조조의 정실인 정 부인은 자식이 없었다. 첩인 유씨가 아들 조앙을 낳았으나, 장수를 정벌하러 갔을 때 완성에서 죽었다. 변씨가 낳은 네 아들은 첫째가 조비, 둘째가 조창, 셋째가 조식, 넷째가 조웅이다. 이에 조조는 정 부인을 폐하고 변씨를 위왕비로 세웠다.

셋째 아들 조식은 자가 자건으로, 매우 총명하여 붓을 들기만 하면 멋진 글이 쏟아져 나왔기에 조조는 그를 후계자로 세우고 싶어 했다. 장남 조비는 조식이 후계자가 될까 두려워져 중대부 가후에게 대책을 물었다. 가후가 이리저리 방책을 일러주었다. 그 후로 조조가 출정할 때마다 아들들이 배웅을 나갔는데, 조식은 조조의 공덕을 찬양하며 말할 때마다 문장력이 넘치는 화려한 말을 내뱉었다. 반면 조비는 아버지를 작별하며 그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할 뿐이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감동하여 슬퍼했다. 그러자 조조는 조식이 영악할 뿐 그 진심은 조비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조비는 또 사람을 시켜 곁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조비의 덕망을 칭송하라고 청탁하기도 했다.

조조는 후계자를 세우려 했으나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가후에게 물었다. "내가 후계자를 세우려 하는데, 누구를 세워야 하겠소?" 가후가 대답하지 않자 조조가 그 이유를 물었다. 가후가 말했다. "생각할 것이 있어 즉시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조가 "무엇을 생각한다는 말이오?"라고 묻자, 가후가 대답했다. "원소와 유표 부자의 사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조가 크게 웃으며 마침내 장남 조비를 왕세자로 세웠다.

겨울 10월, 위왕궁이 완공되자 조조는 사람을 보내 각지에서 기이한 꽃과 열매를 수집하여 후원에 심게 했다. 한편, 오나라로 사절이 가서 손권을 알현하고 위왕의 명령을 전했는데, 온주에서 귤을 가져오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손권은 위왕을 높이 받들고 있었기에, 즉시 성 안에서 커다란 귤 마흔여 짐을 골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군으로 보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짐을 메고 가던 일꾼들이 너무 지친 나머지 산기슭에서 쉬게 되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 한쪽 눈은 멀고 한쪽 다리는 절었으며, 머리에는 흰 등나무 관을 쓰고 푸른 도포를 입고 있었다. 그는 일꾼들에게 다가와 예를 갖추며 말했다.

"짐을 메고 가느라 고생이 많구려. 이 빈도가 대신 한쪽 어깨를 빌려 짐을 들어주면 어떻겠소?"

일꾼들은 크게 기뻐했다. 이에 노인이 짐을 하나씩 들어주며 5리씩 옮겨주었는데, 이상하게도 노인이 먼저 옮겨준 짐은 모두 가벼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의아해했다. 노인은 떠나기 전 귤을 관리하던 관리에게 말했다.

"나는 위왕의 고향 친구라오. 성은 좌 씨요, 이름은 자요, 자는 원방이며, 도호는 오각 선생이라 하오. 만약 업군에 도착하게 되면 좌자가 전해달라는 뜻을 전하시오."

말을 마친 노인은 소매를 휘저으며 홀연히 사라졌다.

귤을 가져온 사람이 업군에 도착하여 조조를 만나 귤을 바쳤다. 조조가 직접 귤을 까보니 속은 텅 비어 있고 알맹이가 전혀 없었다. 조조는 크게 놀라 귤을 가져온 사람에게 이유를 물었다. 가져온 사람은 좌자의 일에 대해 대답했으나, 조조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문지기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어떤 선생이 스스로 좌자라고 칭하며 대왕을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조조가 그를 안으로 불러들이자, 귤을 가져온 사람이 말했다. "이분이 바로 아까 길에서 보았던 그 사람입니다." 조조가 꾸짖으며 물었다. "네놈이 어떤 요술을 부려 나의 좋은 과일을 가로챈 것이냐!" 그러자 좌자가 웃으며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조조가 다시 귤을 까보니, 이번에는 속이 알차게 차 있었고 맛도 매우 달았다. 하지만 조조가 직접 깠던 귤들은 모두 속이 빈 껍데기뿐이었다.

조조는 깜짝 놀라 좌자를 자리에 앉히고 물었다. 좌자가 술과 고기를 청하자 조조는 이를 내어주게 했다. 좌자는 술 다섯 말(五斗)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고, 양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다. 조조가 물었다. "그대는 대체 어떤 술법을 부리기에 이토록 대단한 것이오?"

좌자가 대답했다. "소도는 서천 가릉의 아미산에서 30년 동안 도를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바위 벽 안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간 계속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벼락이 내리쳐 바위 벽이 부서지면서 '둔갑천서'라는 이름의 천서 세 권을 얻었습니다. 상권은 '천둔', 중권은 '지둔', 하권은 '인둔'이라 합니다. 천둔은 구름을 타고 바람을 가르며 허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고, 지둔은 산을 뚫고 바위를 통과할 수 있으며, 인둔은 온 세상을 유람하며 몸을 숨기거나 변신할 수 있고, 날아다니는 검과 칼을 던져 적의 머리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신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셨으니, 어찌 한 걸음 물러나 저와 함께 아미산으로 가서 수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이 천서 세 권을 드리지요."

조조가 말했다. "나 또한 진작에 물러날 생각을 해왔으나, 조정에 그 자리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었을 뿐이오."

좌자가 웃으며 말했다. "익주의 유비는 황실의 후손인데, 어찌하여 그 자리를 그에게 양보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도가 날아다니는 검으로 대왕의 머리를 취할 것입니다."

조조가 크게 화를 내며 외쳤다. "이놈은 분명 유비가 보낸 첩자다! 어서 저놈을 끌어내라!"

좌자는 멈추지 않고 크게 웃어댔다. 조조는 옥졸 열댓 명을 시켜 그를 잡아다가 고문하게 했다. 옥졸들이 온 힘을 다해 매섭게 때렸으나, 좌자를 보니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어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화가 난 조조는 커다란 칼(枷)을 가져오게 하여 철못으로 박고 철사슬로 꽁꽁 묶어 감옥에 가두고 엄중히 감시하게 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칼과 사슬은 모두 땅에 떨어져 있고, 좌자는 땅에 누워 있을 뿐 몸에 상처 하나 없었다.

그렇게 7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가두어 두었다가 살펴보니, 좌자는 땅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는데 얼굴색이 오히려 붉게 빛나고 있었다. 옥졸이 이를 조조에게 보고하자 조조가 직접 나가 물었다. 좌자가 말했다. "제가 수십 년을 먹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듯, 하루에 양 천 마리를 먹는다 해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조조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날, 모든 관리들이 왕궁에 모여 큰 잔치를 벌였다. 한창 술잔을 나누던 중, 좌자가 나무 신발을 신은 채 잔칫상 앞에 우뚝 나타났다. 관리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다. 좌자가 말했다.

"대왕께서 오늘 수로와 육로를 모두 갖추어 신하들과 큰 잔치를 베푸시니, 사방에서 온 진귀한 물건이 참으로 많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빈도가 가져다드리고 싶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나는 용의 간을 탕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데, 네가 가져올 수 있겠느냐?"

좌자가 대답했다. "그게 무슨 어려운 일입니까!"

좌자는 먹과 붓을 가져와 흰 벽에 용 한 마리를 그렸다. 그러고는 도포 소매로 슥 훑으니, 용의 배가 저절로 갈라졌다. 좌자가 용의 배 속에

서 용의 간 한 접시를 꺼내 놓았는데, 아직 선혈이 흐르고 있었다. 조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꾸짖으며 말했다.

"네놈이 미리 소매 속에 숨겨두었구나!"

좌자가 말했다. "지금은 날이 추워 초목이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만, 대왕께서 원하시는 좋은 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조조가 말했다. "나는 모란꽃이 보고 싶구나."

좌자가 말했다. "그것도 쉽지요."

좌자는 큰 화분을 가져와 잔칫상 앞에 놓게 한 뒤, 물을 뿌렸다. 그러자 잠시 후 모란 한 그루가 솟아오르더니 꽃송이가 두 개나 활짝 피어났다. 관리들은 모두 크게 놀라 좌자를 청해 함께 자리에 앉혀 놓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잠시 후, 요리사가 생선회을 가져왔다. 좌자가 말했다. "회는 반드시 송강의 농어여야 맛이 좋은 법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어떻게 가져온단 말이오?" 좌자가 말했다. "그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좌자는 제자에게 낚싯대를 가져오게 하여, 대전 아래에 있는 어항에서 낚아 올리게 했다. 순식간에 커다란 농어 수십 마리가 낚여 올라와 대전 위에 놓였다. 조조가 말했다. "내 연못에는 원래 이런 물고기가 없었소." 좌자가 말했다. "대왕께서 어찌 저를 속이려 하십니까? 천하의 농어는 모두 아가미가 둘뿐이나, 송강의 농어만은 아가미가 넷이니 이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관리들이 살펴보니 과연 아가미가 넷이었다. 좌자가 말했다. "송강의 농어를 요리하려면 반드시

자아강(紫芽薑)을 넣어야 합니다." 조조가 말했다. "그것도 가져올 수 있겠소?" 좌자가 말했다. "식은 죽 먹기지요." 좌자는 금 대야 하나를 가져오게 한 뒤 옷으로 덮었다. 잠시 후, 자아강을 대야 가득 담아 조조 앞으로 가져왔다. 조조가 손을 뻗어 대야를 확인하려는데, 갑자기 대야 안에 '맹덕신서(孟德新書)'라고 적힌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조조가 꺼내 보니 글자 하나 틀림이 없었다. 조조가 크게 의아해하자, 좌자는 탁자 위의 옥잔에 좋은 술을 가득 따라 조조에게 올리며 말했다. "대왕께서는 이 술을 드십시오. 천 년의 수명을 누리실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그대가 먼저 마셔 보시오."

좌자가 관을 벗어 옥비녀를 꺼내더니, 술잔 속에 비녀를 그어 술을 두 갈래로 나누었다. 그러고는 절반은 자신이 마시고, 나머지 절반은 조조에게 권했다. 조조가 크게 꾸짖자, 좌자는 술잔을 공중으로 던졌다. 그러자 술잔은 순식간에 흰 비둘기로 변하더니 전각 주위를 빙빙 돌며 날아갔다. 관리들이 모두 고개를 들어 이를 바라보았으나, 좌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때 곁에 있던 이들이 급히 보고했다. "좌자가 궁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저런 요사스러운 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해를 끼칠 것이다." 조조는 즉시 허저에게 명령하여 철갑을 두른 군사 삼백 명을 이끌고 그를 쫓게 했다. 허저가 말을 타고 군사를 몰아 성문에 다다르니, 멀리 좌자가 나무 신을 신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여러 기병이 말을 달려 그를 뒤쫓았으나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한 산속까지 쫓아갔을 때, 마침 양 떼를 몰고 오는 어린 목동이 있었는데, 좌자가 그 양 떼 속으로 스며들었다. 허저가 화살을 쏘았으나 좌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결국 허저는 양 떼를 모조리 죽이고서야 돌아왔다.

양을 치던 어린 아이가 양을 지키며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땅에 떨어진 양 머리가 사람처럼 말을 하며 아이를 불렀다. "너는 저 죽은 양의 배 속에 양 머리들을 모두 모아 넣거라." 아이는 깜짝 놀라 얼굴을 가린 채 도망쳤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지 말고 돌아보아라, 살아있는 양으로 돌려주마." 아이가 뒤를 돌아보니, 좌자가 이미 땅에 있던 죽은 양을 살아나게 하여 몰고 오고 있었다. 아이가 급히 무언가를 물으려 했으나, 좌자는 이미 소매를 휘저으며 떠나버렸다. 그 움직임이 마치 날아가는 듯하여 순식간에 모습이 사라졌다.

어린 아이가 주인에게 사실을 고하자, 주인은 감히 숨기지 못하고 조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조조는 즉시 그림을 그려 인상착의를 만든 뒤, 곳곳에서 좌자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사흘 사이에 성 안팎에서 외눈박이에 다리 하나가 불편하고, 흰 등나무 관에 푸른 도포를 입었으며 나무 신을 신은 노인의 모습을 한 자들이 삼사백 명이나 잡혀왔다. 거리의 시장통은 이 일로 떠들썩했다. 조조는 장수들에게 명하여 돼지와 양의 피를 그들에게 뿌리게 한 뒤, 성 남쪽의 교장으로 압송하게 했다. 조조가 직접 갑옷을 입은 병사 오백 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에워싼 뒤 모두 참수했다. 그러자 사람들의 목에서 저마다 푸른 기운이 한 줄기씩 솟아올라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한데 모여 좌자의 모습으로 변했다. 좌자는 허공에서 백학 한 마리를 불러 타고 앉아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외쳤다.

"땅속 쥐새끼가 금호(金虎)를 따르다니, 간사한 영웅의 운명이 이제 끝났구나!"

조조가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활과 화살을 쏘게 하자, 갑자기 거센 광풍이 몰아치며 돌이 날아다니고 모래바람이 휘몰아쳤다. 그때 베어진 시체들이 모두 벌떡 일어나더니, 제 머리를 손에 든 채 조조가 있는 무실로 달려들어 공격하기 시작했다. 문관과 무장들은 모두 얼굴을 가린 채 놀라 쓰러지며 서로를 돌볼 겨를조차 없었다.

간웅의 권세가 나라를 뒤흔들 정도라지만, 도사의 신통력은 그보다 더 기이하구나.

과연 조조의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69회 — 주역을 점쳐 관로가 기회를 알고, 한나라의 도적을 토벌하다 다섯 신하가 절개를 지키다

卜周易管輅知機 討漢賊五臣死節

한편, 그날 조조는 검은 바람 속에서 수많은 시체가 일제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너무 놀라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잠시 후 바람이 잦아들자 시체들도 모두 사라졌다. 좌우의 사람들이 조조를 부축하여 궁으로 돌아갔으나, 그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게 되었다. 후대의 어떤 시인은 좌자의 재주를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구주 땅을 누비며 구름 위를 날아다니고, 홀로 도술을 부리며 세상을 유람하네. 신선 같은 술법을 아무렇지 않게 펼치니, 조조의 고집스러운 마음마저 깨우치려 하네."

조조는 병이 깊어져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다. 마침 태사승 허지가 허창에서 조조를 뵙기 위해 찾아왔다. 조조가 허지에게 점을 쳐 보라고 하자, 허지가 말했다.

"대왕께서는 신비로운 점술가인 관루의 명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으나, 그 재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구나. 네가 자세히 말해 보아라."

허지가 말했다. "관루의 자는 공명이며 평원 사람입니다. 생김새는 거칠고 못생긴 데다 술을 좋아하여 성격이 거침없고 광기 어린 구석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낭야군의 구장직을 지냈습니다. 관루는 어릴 때부터 별을 올려다보는 것을 좋아하여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부모님도 이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집닭이나 들백로도 제때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야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웃 아이들과 놀 때도 늘 땅에 천문을 그려 넣어 해와 달, 별들의 위치를 배치하곤 했습니다. 조금 자란 뒤에는 주역에 정통해졌고, 하늘의 기운을 살피는 법을 깊이 깨달았으며, 수학에도 신통한 경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관상술에도 능했습니다."

낭야태수 단자춘은 관루의 명성을 듣고 그를 불러 만났다. 당시 그 자리에는 말솜씨가 뛰어난 손님 백여 명이 모여 있었다. 관루가 단자춘에게 말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 담력이 부족하니, 먼저 좋은 술 세 되를 가져다주십시오. 술을 마신 뒤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단자춘은 이를 신기하게 여겨 즉시 술 세 되를 내주었다. 술을 다 마신 뒤 관루가 단자춘에게 물었다.

"지금 저와 대화를 나누실 분은, 태수 어른의 자리에 모인 저 선비들입니까?"

단자춘이 대답했다.

"나는 자네와 대등하게 겨룰 수 있네."

그리하여 단자춘과 관루는 역학의 이치를 두고 토론을 시작했다. 관루는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이야기를 이어갔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정교하고 오묘했다. 단자춘이 몇 번이고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며 따져 물어도 관루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과 음식도 잊은 채 토론이 계속되자, 단자춘을 비롯한 모든 손님이 감탄하며 굴복했다. 이 일로 관루는 천하에 '신동'이라 불리게 되었다.

"나중에 곽은이라는 백성이 있었는데, 삼 형제가 모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어 관루에게 점을 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관루가 말했습니다. '점괘를 보니 귀댁의 선산 무덤 속에 여자 귀신이 있습니다. 귀댁의 큰어머니 아니면 작은어머니임이 틀림없습니다. 옛날 흉년이 들었을 때, 쌀 몇 되를 더 챙기려는 욕심에 그 여인을 우물에 밀어 빠뜨리고 큰 돌로 머리를 눌러 깨뜨려 죽였습니다. 그 외로운 넋이 고통 속에서 하늘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니 귀댁의 형제들이 이런 응보를 받는 것이라, 어떤 방법으로도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곽은 일행은 눈물을 흘리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안평태수 왕기는 관루의 점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집으로 초빙했다. 마침 신도령의 아내가 늘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아들 또한 가슴과 배가 아픈 통증을 앓고 있어 관루에게 점을 쳐 달라고 청했다.

관루가 말했다. "이 집 서쪽 구석에 시체 두 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을 든 남자이고, 다른 하나는 활과 화살을 든 남자입니다. 머리는 벽 안에 있고 발은 벽 밖에 있습니다. 창을 든 자가 머리를 찔렀기에 두통이 생긴 것이고, 활과 화살을 든 자가 가슴과 배를 찔렀기에 복통이 생긴 것입니다."

말을 마친 관루의 시키는 대로 땅을 파보니, 땅속 여덟 자 깊은 곳에서 과연 관 두 개가 나왔다. 한 관 안에는 창이 들어 있었고, 다른 관 안에는 각궁과 화살이 들어 있었는데 나무는 이미 모두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다. 관루가 유골을 성 밖 십 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 묻으라고 명하자, 아내와 아들의 병은 곧 깨끗이 나았다.

한편, 관도현령이던 제갈원이 신흥태수로 승차하게 되자, 관루가 그를 배웅하러 갔다. 그때 한 손님이 관루에게 그가 물건을 가리고 맞히는 사복(射覆) 재주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제갈원은 믿지 않고 몰래 제비 알과 벌집, 거미라는 세 가지 물건을 가져와 세 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은 뒤, 관루에게 맞혀 보라고 했다. 관루가 점을 친 뒤 상자 위에 각각 네 구절씩 적어 내려갔다.

첫 번째 상자에는 이렇게 적었다. “숨을 머금어 모양이 변하고, 집 모양을 본떠 지었네. 암수 구분이 형태에 있으니, 날개를 펼친 모습이로다. 이것은 제비 알이다.”

두 번째 상자에는 이렇게 적었다. “집이 거꾸로 매달려 있고, 문이 아주 많구나. 독을 품어 정수를 기르니, 가을이 되어야 변화하리라. 이것은 벌집이다.”

세 번째 상자에는 이렇게 적었다. “몸을 떨며 다리는 길고, 실을 토해 그물을 만드네. 거미줄을 찾아 먹이를 구하니, 어두운 밤에 이롭도다. 이것은 거미이다.”

그 모습을 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을에 소를 잃어버린 노파가 있어 점을 쳤다. 관루가 점을 쳐서 말했다. "북쪽 시냇가에서 일곱 명이 고기를 삶고 있으니, 급히 가서 찾아보시오. 그러면 아직 가죽과 살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오." 노파가 실제로 가서 찾아보니, 정말로 초가집 뒤에서 일곱 명이 고기를 삶고 있었고 그 가죽과 살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노파가 이 사실을 본군 태수인 유빈에게 알려 일곱 명을 잡아 죄를 물었다. 유빈이 노파에게 "그대는 어찌하여 이를 알았는가?"라고 묻자, 노파는 관루의 신기한 점괘 덕분이라고 대답했다. 유빈은 믿지 않고 관루를 관아로 불러 인장 주머니와 꿩 깃털을 상자 안에 넣고는 점을 쳐보라고 했다. 관루가 첫 번째 물건을 보고 말했다. "안은 네모나고 겉은 둥글며, 다섯 가지 색이 문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물을 머금고 신의를 지키다가, 밖으로 나가

면 위엄을 떨칠 것입니다. 이것은 인장 주머니입니다." 이어 두 번째 물건을 보고 말했다. "높은 산 바위가 험준한 곳에 붉은 몸을 가진 새가 있으니, 날개는 검고 노란 빛을 띠며 울음소리는 새벽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꿩 깃털입니다." 유빈은 크게 놀라 관루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며 정중히 모셨다.

어느 날 관루가 교외로 나들이를 나갔다가, 한 소년이 밭에서 농사짓는 모습을 길가에 서서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한참 뒤 관루가 다가가 물었다.

"소년아, 성이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냐?"

소년이 대답했다.

"성은 조 씨이고 이름은 안이라 합니다. 열아홉 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관루가 말했다.

"나는 관루라고 한다. 네 눈썹 사이를 보니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구나. 사흘 안에 반드시 죽을 것이니, 모습이 참으로 고운데 수명이 짧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조안은 집으로 돌아가 급히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관루를 뒤쫓아가 땅에 엎드려 울며 빌었다.

"제발 돌아와서 제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관루가 말했다.

"이것은 하늘의 명인데 어찌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간곡히 말했다.

"늙은 저에게는 이 아들뿐입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구해주십시오!"

조안 역시 울며 매달렸다. 관루는 부자의 정이 너무나 애절한 것을 보고 조안에게 말했다.

"너는 깨끗한 술 한 병과 말린 사슴 고기 한 덩이를 준비하거라. 그리고 내일 남산 속 커다란 나무 아래로 가거라. 그곳 바위 위에서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은 남쪽을 향해 앉아 흰 옷을 입었는데 인상이 매우 험악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북쪽을 향해 앉아 붉은 옷을 입었는데 인상이 매우 수려할 것이다. 그들이 바둑에 한창 몰입해 있을 때, 술과 고기를 들고 다가가 무릎을 꿇고 바치거라. 그들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가 울며 빌며 수명을 늘려달라고 청하면 반드시 수명을 늘릴 방법을 얻을 것이다. 다만, 내가 가르쳐준 것이라고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노인은 관루를 집에 남겨두고 떠났다. 다음 날, 조안은 술과 마른 고기, 술잔과 접시를 챙겨 남산으로 향했다. 다섯여섯 리쯤 들어갔을까, 과연 커다란 소나무 아래 바위 위에서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조안은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술과 고기를 올리며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은 바둑에 정신이 팔려 술을 다 마

신 줄도 몰랐다. 조안이 땅에 엎드려 울며 수명을 늘려달라고 간청하자,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붉은 도포를 입은 이가 말했다. "이것은 분명 관루가 한 말일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이 그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이 사람을 가엾게 여겨야 한다." 그러자 흰 도포를 입은 이가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 살펴보고는 조안에게 말했다. "너는 올해 열아홉 살이니 곧 죽을 운명이구나. 내가 지금 '십(十)'이라는 글자에 '구(九)'를 더해 줄 테니, 네 수명은 아흔아홉 살까지 이어질 것이다. 돌아가서 관루를 만나 다시는 천기를 누설하지 말라고 일러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붉은 도포를 입은 이가 붓으로 글자를 써 넣자, 향기로운 바람이 한차례 휘몰아치더니 두 사람은 순식간에 두 마리의 백학으로 변해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조안이 관루에게 물었다. 관루가 말했다. "붉은색을 입은 이는 남두성이고, 흰색을 입은 이는 북두성입니다." 조안이 다시 물었다. "북두칠성의 아홉 별은 어찌하여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관루가 대답했다. "흩어지면 아홉이 되고, 합치면 하나가 되는 법입니다. 북두성은 죽음을 관장하고 남두성은 삶을 관장하는데, 이제 수명을 늘려주는 기운을 더해 넣었으니 그대는 무엇을 더 걱정하겠습니까?" 조안과 그 아버지는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때부터 관루는 천기를 누설할까 두려워하여 다시는 함부로 남의 점을 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지금 평원에 있으니, 대왕께서 길흉화복을 알고 싶으시다면 어찌하여 그를 부르지 않으십니까?"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사람을 평원으로 보내 관루를 불러오게 했다. 관루가 도착하여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리자, 조조는 그에게 점을 쳐보라고 명령했다. 관루가 대답했다.

"이것은 그저 환술일 뿐인데, 어찌 그리 걱정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조조는 마음이 놓여 병이 점차 나아갔다. 조조는 이어 천하의 운세를 점쳐보라고 했다. 관루가 점을 치며 말했다.

"숫자 3과 8이 종횡하며, 누런 돼지가 호랑이를 만날 것이며, 정군 남쪽에서 한 축의 군사가 상하거나 꺾일 것입니다."

이어 관루는 수명이 길고 짧은 운수를 점쳤다. 관루가 말했다.

"사자궁 안에서 신위를 편안히 모시면, 왕도(王道)가 새롭게 세워져 자손들이 매우 귀하게 될 것입니다."

조조가 그 상세한 내용을 묻자 관루가 말했다.

"아득한 하늘의 운명은 미리 다 알 수 없는 법이니,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조조는 관루를 태리로 봉하려 했다. 그러자 관루가 말했다. "운명이 기구하여 이 직책에 어울리지 않으니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조조가 그 이유를 묻자 관루가 대답했다. "제 이마에는 주인을 지키는 뼈가 없고, 눈에는 눈동자를 보호할 기운이 없습니다. 코에는 기둥이 없고, 발에는 하늘의 뿌리가 없습니다. 등에는 세 겹의 갑옷이 없고, 배에는 세 가지 기운이 없습니다. 그저 태산의 귀신을 다스릴 수는 있어도, 살아

있는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조조가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이 보기에 나의 관상은 어떠한가?" 관루가 말했다. "신하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운명이신데, 굳이 점을 쳐서 무엇 하겠습니까?" 조조가 몇 번이고 거듭 물었으나 관루는 그저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조조는 관루에게 문무 관료들을 두루 살피게 했다. 관루는 "모두 세상을 다스릴 만한 신하들입니다"라고 말했다. 조조가 그들의 길흉화복을 자세히 물었으나, 관루는 끝내 다 말해주려 하지 않았다. 후대에 어떤 이가 관루를 찬양하며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동틀 녘 신비로운 점괘를 내놓는 관공명은, 남쪽 별자리와 북두칠성까지 계산해내네. 팔괘의 미묘한 이치로 귀신의 통로를 꿰뚫고, 육효의 심오한 원리로 하늘의 뜻을 연구하네. 상법을 미리 예견하니 수명이 짧을 법도 한데, 스스로 깨달은 마음의 근원은 지극히 영험하구나. 아쉽도다, 당대의 그 기이한 술법이 후세에 전해질 경전이 없으니."

조조는 관루에게 동오와 서촉 두 곳의 형세를 점쳐보라고 명령했다. 관루가 점괘를 세워 말하기를, "동오에서는 큰 장수가 죽을 것이고, 서촉에서는 군대가 국경을 침범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조조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합비에서 비보가 날아들었다. "동오의 육구를 지키던 장수 노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는 소식이었다. 조조는 크게 놀라 즉시 사람을 보내 한중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고가 올라왔다. "유비가 장비와 마초를 보내 하변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관문을 점령하려 합니다." 조조는 크게 분노하여 직접 군사를 이끌고 다시 한중으로 들어가려 했다. 관루에게 다시 점을 치게 하자 관루가 말했다. "대왕께서는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내년 봄, 허도에 반드시 큰 화재가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관루의 말이 번번이 들어맞는 것을 보았기에 감히 경솔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업군에 머물렀다. 조조는 조홍에게 군사 5만 명을 주어 하후연, 장합과 함께 동천을 지키도록 했고, 하후돈에게는 군사 3만 명을 주어 허도를 수시로 순찰하며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게 했다. 또한 장사인 왕필에게 금군과 군마를 총괄하도록 명했다. 이때 주부인 사마의가 "왕필은 술을 즐기고 성품이 너그러워 이 직책을 맡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듯합니다"라고 말했다. 조조가 대답했다. "왕필은 내가 고난을 헤쳐 나갈 때부터 곁을 지켜온 사람으로, 충성스럽고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철석같이 단단하니 이 직책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그리하여 왕필에게 금군과 군마를 맡겨 허도 동화문 밖에 주둔하게 했다.

한편, 낙양에 성은 경, 이름은 기, 자는 계행인 경기가 있었다. 그는 예전에 승상부의 연직을 지내다 나중에 시중과 소부로 옮겼는데, 사직의 위황과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 그는 조조가 왕의 작위를 받고 천자의 수레와 옷을 사용하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매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건안 23년 봄 정월, 경기는 위황과 은밀히 모의하며 말했다. "조조는 간악함이 날로 심해지니, 머지않아 반드시 황제를 몰아내고 반역을 꾀할 것이오. 우리가 한나라의 신하로서 어찌 저 악당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겠소?"

그러자 위황이 대답했다. "내게 심복이 하나 있는데, 성은 김이고 이름은 휘라오. 한나라 재상 김일제의 후손으로 평소 조조를 토벌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 왕필과도 매우 두터운 사이라오. 만약 그와 함께 도모할 수 있다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오."

경기가 물었다. "그가 왕필과 그토록 친한데, 과연 우리와 함께 모의하려 하겠소?"

위황이 말했다. "우선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시다."

두 사람은 함께 금휘의 집으로 찾아갔다. 금휘는 그들을 안채로 들여 자리에 앉혔다. 황이 말했다. "덕위와 왕 장사께서는 저희와 매우 두터운 사이이니, 저희 세 사람이 특별히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금휘가 물었다. "무슨 부탁을 하시려는 겁니까?" 황이 대답했다. "듣기로 위왕이 머지않아 선양을 받아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데, 그러면 공과 왕 장사께서도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금휘는 소매를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침 시종이 차를 가져왔는데, 금휘는 그 차를 바닥에 확 뿌려버렸다. 황이 놀란 척하며 말했다. "덕위, 옛 친구 사이에 어찌 이리 정이 없으십니까?" 금휘가 말했다. "나는 그대들과 두터운 사이였으나, 그대들은 한나라의 신하이자 재상들의 후손이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 근본을 갚을 생각은커녕 반역자를 돕겠다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대들을 친구라 부르겠는가!" 경기가 말했다. "천명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금휘가 크게 노하자, 경기와 황은 금휘에게 정말로 충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우리는 본래 도적을 토벌하고자 발을 뗀 것이며,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방금 한 말은 특별히 당신

을 시험해 본 것뿐입니다." 금휘가 말했다. "나는 대대로 한나라의 신하 집안인데 어찌 도적을 따르겠는가? 공들이 한나라 황실을 돕고자 한다면 어떤 계책이 있는가?" 황이 말했다.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은 간절하나, 아직 도적을 토벌할 구체적인 방책이 없습니다." 금휘가 말했다. "내가 안에서 응하고 밖에서 호응하여 왕필을 죽이고 그 병권을 빼앗은 뒤, 황제를 보필하면서 유비 숙부를 외부의 지원군으로 끌어들인다면 조조를 멸할 수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며 옳다며 찬성했다.

금휘가 말했다. "제게 심복이 두 명 있는데, 조조와는 부친을 죽인 원수지간이라 지금 성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 군의 날개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누구냐고 묻자 금휘가 대답했다. "태의 길평의 아들들입니다. 첫째는 이름이 길묘이고 자는 문연이며, 둘째는 길목이고 자는 사연입니다. 옛날 조조가 동승의 의대조 사건을 일으키며 그들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두 형제는 멀리 도망쳐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이제 몰래 허도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조조를 치는 일을 돕게 한다면 따르지 않을 이가 없을 것입니다."

경기와 위황은 크게 기뻐했다. 금휘는 즉시 사람을 보내 길묘와 길목 형제를 비밀리에 불러들였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도착하자 금휘가 모든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두 사람은 분노에 차 눈물을 흘리며, 원한이 하늘을 찌를 듯해 반드시 나라의 도적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금휘가 말했다. "정월 대보름 밤, 성안에 등불을 크게 밝혀 대보름을 축하할 때 움직입시다. 경기 소부와 위 사직, 두 분은 각각 가솔들을 거느리고 왕필의 진영 앞까지 살금살금 접근하십시오. 그러다 진영에 불이 나면 두 갈래로 나누어 쳐들어갑시다. 왕필을 죽인 뒤에는 곧장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천자를 오봉루로 모시고, 백관을 불러 조조를 치라는 명을 내리게 합시다. 길묘 형제는 성 밖에서 쳐들어오며 불을 놓아 신호를 보내고, 각자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조조를 처단하라 외치며 성안으로 들어오는 구원군을 차단해야 합니다. 천자의 조서가 내려져 상황이 정리되면, 즉시 군사를 일으켜 업군으로 쳐들어 가 조조를 사로잡고, 곧바로 사신을 보내 유비에게 조서를 전달해 불러들입시다. 오늘 약속한 대로 정월 대보름 밤 이경(밤 9시~11시 사이)에 거사를 치러야 합니다. 동승처럼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사람은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피를 나누어 마시며 결의를 다진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가 군사와 무기를 정비하며 거사 날만을 기다렸다.

한편, 경기와 위황은 각각 삼사백 명의 가솔을 모아 무기를 준비했다. 길묘와 길목 형제 역시 삼사백 명의 사람을 불러 모아 사냥을 나가는 것처럼 위장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금휘는 미리 왕필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천하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위왕의 위엄이 온 세상에 떨치고 있습니다. 마침 정월 대보름 명절을 맞이했으니, 등불을 밝혀 태평성대의 기운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왕필은 그 말을 옳게 여

기고 성 안의 주민들에게 알려, 모두가 등불을 달고 장식을 하여 명절을 축하하게 했다.

정월 보름밤, 날씨는 맑게 개어 별과 달이 함께 빛났다. 여섯 거리와 세 시장에서는 저마다 꽃등을 내걸고 축제를 벌였다. 그야말로 금오위의 단속도 없고 밤을 알리는 종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흥겨운 밤이었다! 왕필은 어림군 장수들과 함께 진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경(밤 9~11시)이 지나자 갑자기 진영 안에서 함성이 들리더니, 진영 뒤편에 불이 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왕필이 황급히 막사 밖으로 나가 보니 불길이 거세게 치솟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진영에 변고가 생겼음을 직감한 왕필은 급히 말을 타고 남문으로 나가려 했으나, 마침 경기와 마주쳤다. 경기가 쏜 화살에 어깨를 맞은 왕필은 말에서 떨어질 뻔하며 서쪽 문을 향해 달아났다.

뒤에서는 수레가 무서운 기세로 쫓아왔다. 당황한 왕필은 말을 버려두고 뛰어갔다. 그러다 금휘의 집 앞에 이르러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다. 알고 보니 금휘는 한편으로는 사람을 시켜 진영에 불을 지르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가솔들을 이끌고 뒤를 따르며 전투를 도왔으며, 집에는 여자들만 남겨두었던 것이다. 집안사람들은 왕필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금휘가 돌아온 줄로만 알았다. 금휘의 아내가 문 너머로 "왕필 그놈은 죽였느냐?"라고 물었다. 왕필은 크게 놀라 금휘가 공모자임을 깨닫고, 곧장 조휴의 집으로 달려가 금휘와 경기 등이 반란을 꾀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조휴는 급히 갑옷을 갖춰 입고 말을 타고 나가 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 안에서 적을 막아냈다. 성 안 곳곳에서 불이 나 오봉루까지 타

올랐고, 황제는 깊은 궁궐 안으로 몸을 피했다. 조씨 가문의 심복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궁궐 문을 지켰다. 성 안에서는 "조씨 도적들을 모조리 죽여 한나라를 바로 세우자!"라는 외침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하후돈은 조조의 명을 받아 허도를 순찰하던 중이었다. 그는 3만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서 5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멀리 성안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는 즉시 대군을 이끌고 달려와 허도를 포위했다. 동시에 한 부대를 성안으로 보내 지원하게 했다.

조휴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사람들을 베며 싸우는 사이 날이 밝았다. 경기와 위황 등은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금휘와 두 길씨 형제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와 위황은 도망칠 길을 찾아 성문을 돌파하려 했으나, 마침 하후돈의 대군이 성을 에워싸고 있어 결국 생포되고 말았다. 그들의 수하 백여 명도 모두 죽임을 당했다.

하후돈이 성안으로 들어가 남은 불길을 모두 끄고, 반란에 가담한 다섯 집안의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한 일가족을 모조리 잡아들인 뒤 조조에게 급히 보고하게 했다. 조조는 명령을 내려 경기와 위황, 그리고 그 다섯 집안의 일가족을 모두 저잣거리에서 처형하게 했다. 또한 조정의 크고 작은 관리들을 모두 잡아 업군으로 압송하여, 그 처벌을 엄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하후돈은 경기와 위황 두 사람을 끌고 저잣거리 형장으로 갔다. 경기는 큰 소리로 악을 쓰며 외쳤다. "조조! 내가 살아생전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죽어서는 반드시 악귀가 되어 너를 치리라!" 망나니가 칼로

그의 입을 찔러 넣자 피가 땅에 가득 흘렀으나, 경기는 끝까지 욕설을 퍼부으며 죽어갔다. 위황은 뺨을 땅에 찧으며 "가증스럽구나! 가증스러워!"라고 울부짖었다. 그는 이를 너무 세게 악물어 이가 모두 부서진 채로 숨을 거두었다.

후세의 사람들이 이들을 기리며 시를 지어 찬양했다. "경기는 충절이 높고 위황은 어질었으니, 각자 빈손으로 하늘을 받들려 했네. 누가 알았으랴, 한나라의 운수가 다해가는 줄을. 구천에 가서도 가슴 속 한은 가시지 않으리."

하후돈은 경기와 위황 일가의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그 일가친척을 모두 참수하고, 나머지 관리들은 업군으로 압송했다. 조조는 연무장에 왼쪽에는 붉은 깃발을, 오른쪽에는 흰 깃발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경기와 위황 등이 반란을 일으켜 허도에 불을 질렀을 때, 너희 중에는 불을 끄러 나선 자도 있었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은 자도 있었다. 불을 끄는 데 힘쓴 자는 붉은 깃발 아래에 서고, 불을 끄지 않은 자는 흰 깃발 아래에 서라." 관리들은 불을 끄는 데 힘썼다면 분명 죄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대부분 붉은 깃발 아래로 달려갔다. 그런데 세 무리 중 오직 한 무리만이 흰 깃발 아래에 서 있었다. 조조는 붉은 깃발 아래에 선 자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관리들이 저마다 죄가 없다고 항변하자 조조가 말했다. "너희가 당시 가졌던 마음은 불을 끄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도적을 도우려 했던 것이다." 조조는 그들을 모두 장수 하천가로 끌고 가 처형하게 했으니, 죽은 자가 300여 명에 달했다. 반면 흰 깃발 아래에 섰던 자들은 모두 상을 내리고 다시 허도로 돌려보냈다. 이때 왕필은 화병이 도져 이미 죽은 상태였기에 조조는

그를 후하게 장사 지내주었다. 이어 조조는 조휴에게 어림군과 군마를 총괄하게 하고, 종요를 상국으로, 화흠을 어사대부로 삼았다. 또한 후작을 6등 18급으로 나누고, 관중 후작을 17급으로 정하여 모두 금인과 자수(자줏빛 끈)를 주게 했으며, 관내외 후작 16급은 은인과 거북 모양의 끈이 달린 검은 끈을 주게 했다. 5대부는 15급으로 정하여 구리 인장과 쇠고리가 달린 끈을 주게 했다. 이처럼 작위와 관직을 새로 정비하자 조정의 인물들도 새롭게 바뀌었다. 조조는 그제야 관루가 예언했던 화재 사건이 사실임을 깨닫고 관루에게 큰 상을 내리려 했으나, 관루는 이를 받지 않았다.

한편, 조홍이 군사를 이끌고 한중에 도착하여 장합과 하후연에게 각각 요충지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직접 군사를 몰아 적을 막아섰다. 이때 장비는 뇌동과 함께 파서를 지키고 있었다. 마초의 군대가 하판에 이르자, 마초는 오란을 선봉으로 삼아 군사를 내보내 경계를 서게 했는데, 마침 조홍의 군대와 마주쳤다. 오란이 퇴각하려 하자 장수 임규가 말했다.

"적군이 막 도착했는데, 먼저 그 기세를 꺾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마초 장군을 뵙겠습니까?"

말을 마친 임규는 말을 달려 창을 내지르며 조홍과 싸웠다. 조홍 역시 칼을 들고 말을 달려 나갔다. 두 사람이 세 차례 합을 겨루는 사이, 조홍이 임규를 말 아래로 베어 넘기고 그 기세를 몰아 몰아붙였다. 결국 오란은 크게 패하여 마초에게 돌아갔다. 마초가 꾸짖으며 말했다.

"내 명령도 받지 않고 어찌 적을 얕보아 패배를 자초했느냐?"

오란이 대답했다.

"임규가 제 말을 듣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패했습니다."

마초가 말했다.

"앞으로는 험한 길목을 엄중히 지키고, 함부로 적과 맞서 싸우지 마라."

그러고는 성도에 상황을 보고하며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조홍은 마초가 며칠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혹시라도 함정이 있을까 두려워, 군사를 이끌고 남정으로 퇴각했다. 장합이 조홍을 찾아와 물었다.

“장군께서 이미 적의 장수를 베셨는데, 어찌하여 군사를 물리려 하십니까?”

조홍이 대답했다.

“마초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다른 계략을 꾸미는 듯하여 두렵구나. 게다가 내가 업군에 있을 때, 신기한 점술가인 관루가 이곳에서 대장 하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기에 감히 함부로 진격하지 못하는 것이다.”

장합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장군께서는 평생 군사를 지휘해 오신 분이 어찌 점쟁이의 말에 휘둘려 마음을 어지럽히십니까? 제가 비록 재주는 부족하나, 제 부하들

을 이끌고 파서를 취하겠습니다. 파서만 얻으면 촉나라 땅을 얻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조홍이 만류했다.

"파서를 지키는 장수 장비는 보통내기가 아니니, 결코 적을 얕보아서는 안 된다."

장합이 호언장담했다.

"남들이 다 장비를 두려워하지만, 제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그를 사로잡겠습니다!"

조홍이 물었다.

"만약 실수라도 하게 되면 어찌할 셈이냐?"

장합이 대답했다.

"군령에 따라 처벌받겠습니다."

조홍이 장합에게 출병 명령을 내리자, 장합은 곧바로 군사를 움직였다.

옛적부터 교만하게 군사를 부리는 자는 패하기 쉽고, 적을 얕보는 자는 성공하기 어렵다더니.

과연 승패가 어떻게 갈릴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0회 — 장비가 지혜로 와구애를 취하고, 노황충이 계책으로 천탕산을 빼앗다

猛張飛智取瓦口隘 老黃忠計奪天蕩山

한편, 장합의 군사 3만 명은 세 곳의 요새로 나뉘어 각각 험준한 산세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나는 당거채, 또 하나는 몽두채, 나머지 하나는 탕석채였다. 그날 장합은 세 요새에 각각 병력의 절반을 나누어 배치하여 파시를 공격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요새를 지키게 했다. 그런데 일찍이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장합이 군사를 이끌고 파시로 오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이를 들은 장비는 급히 뇌동을 불러 의논했다. 뇌동이 말했다. "낭중 땅은 지세가 험하고 산이 깊으니 매복하기에 좋습니다. 장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시면, 제가 기습 부대를 이끌고 도와 장합을 사로잡겠습니다."

장비는 정예병 오천 명을 뽑아 뇌동에게 맡겨 보냈다. 장비 스스로는 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낭중에서 30리 떨어진 곳으로 나갔다가 장합의 군대와 맞닥뜨렸다. 양군이 진을 펼치며 대치하자, 장비가 말을 타고 나가 장합을 단독으로 상대하려 했다. 장합 역시 창을 치켜들고

말을 몰아 달려 나갔다. 두 사람이 서른 합 넘게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후방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산등성이 너머로 촉나라 군대의 깃발이 보이는 것을 보고 후군이 동요한 것이었다. 장합은 싸움을 계속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말을 돌려 퇴각했다. 장비가 그 뒤를 쫓아 몰아치며 공격했다. 이때 앞쪽에서도 뇌동이 병사를 이끌고 나타나 공격해 왔다.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자 장합의 군대는 대패했다. 장비와 뇌동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추격하여 당거산까지 몰아붙였다. 장합은 여전히 병력을 나누어 세 곳의 진영을 지키게 하고, 나무와 돌을 떨어뜨리는 장치를 많이 설치한 채 굳게 버티며 싸우지 않았다. 장비는 당거산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다음 날 병사를 이끌고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장합은 산 위에서 큰 소리로 악기를 울리며 술만 마실 뿐,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장비가 군사들에게 크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하게 했으나, 장합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장비는 진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뇌동이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 싸움을 걸었다. 하지만 장합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뇌동이 군사들을 몰아 산 위로 올라가려 하자, 산 위에서 통나무와 돌덩이를 굴려 내려보내 공격했다. 뇌동은 급히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탕석채와 몽두채에서 병사들이 쏟아져 나와 뇌동의 군대를 패퇴시켰다.

다음 날, 장비가 다시 싸움을 걸러 나갔으나 장합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장비가 군사들을 시켜 온갖 욕설을 퍼붓자, 산 위에 있던 장합 역시 맞서 욕을 해댔다. 장비는 속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50여 일 동안 대치하게 되자, 장비는 산 앞에 큰 진영을 치

고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술에 잔뜩 취할 때까지 마신 뒤, 산 앞에서 앉아 욕설을 퍼부으며 장합을 도발했다.

유비가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장비가 온종일 술만 마시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유비는 크게 놀라 서둘러 제갈량을 찾아가 물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과연 그렇군요. 군영에 좋은 술이 없을까 걱정된 모양입니다. 성도에는 맛 좋은 술이 아주 많으니, 쉰 가마 정도를 세 수레에 나누어 실어 장비 장군에게 보내 주십시오."

유비가 말했다. "내 동생은 예전부터 술 때문에 일을 그르치곤 했는데, 군사께서는 어찌하여 도리어 술을 보내려 하십니까?"

제갈량이 웃으며 대답했다. "주공께서는 장비와 오랜 세월 형제의 인연을 맺어오셨는데, 아직도 그의 사람됨을 모르십니까? 장비는 본래 성격이 강직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사천을 차지할 때 엄언을 의리로 감화시켰으니, 이는 단순히 힘만 센 무부의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장합과 쉰 날 넘게 대치하며 술에 취한 척 산 앞에 앉아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욕설을 퍼붓는 것은, 술을 탐해서가 아니라 장합의 계책을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그렇다 해도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위연을 보내 그를 돕게 하십시오."

제갈량은 즉시 위연을 시켜 술을 챙겨 군영으로 보내게 했다. 수레에는 노란 깃발을 꽂고 '군영에서 공용으로 쓰는 맛 좋은 술'이라고 크

게 써 붙였다. 위연이 명을 받들어 술을 가지고 진영에 도착해 장비를 만나니, 장비는 주공이 술을 내리셨다는 말을 듣고 절을 하며 받았다. 그러고는 위연과 뇌동에게 각각 한 부대씩 군사를 이끌어 좌우 날개가 되어 달라고 지시했다. 곧 군영에 붉은 깃발이 휘날리면 각자 진격하기로 한 것이다. 장비는 술을 막사 아래 차려 놓게 하고, 군사들에게 깃발과 북을 크게 울리며 술을 마시게 했다.

첩자가 산으로 올라와 보고를 하자, 장합은 직접 산 정상에 올라가 아래를 살폈다. 멀리 장비가 막사 앞에 앉아 술을 마시며, 두 병사에게 앞마당에서 씨름을 시키며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장합이 말했다. "장비가 나를 너무도 업신여구는구나!" 장합은 즉시 명령을 내려 오늘 밤 산을 내려가 장비의 진영을 습격하라고 했다. 또한 몽두채와 탕석채의 병사들에게도 좌우에서 지원하러 나오라고 명했다. 그날 밤, 장합은 희미한 달빛을 타고 군사를 이끌고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가 곧장 장비의 진영 앞에 이르렀다. 멀리서 보니 장비는 등불을 밝게 켜놓은 채 막사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장합이 앞장서서 크게 한 번 외치자, 산 아래에서 북소리가 울리며 호응했고, 군사들은 그대로 장비의 중군을 향해 돌격했다.

그런데 장비는 미동도 없이 단정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장합이 말을 몰아 눈 깜짝할 사이에 장비의 코앞까지 다가가 창을 내질렀으나, 그것은 허수아비였다. 장합이 급히 말 고삐를 당겨 물러나려는데, 막사 뒤편에서 연달아 포성이 울려 퍼졌다. 한 장수가 앞장서서 길을 가로막더니, 부릅뜬 눈과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며 달려들었다.

바로 장비였다. 장비는 창을 치켜들고 말을 뛰어올라 장합을 몰아붙였다. 두 장수는 불길 속에서 서른에서 쉰 합을 넘도록 싸웠다.

장합은 오직 두 채의 구원병이 오기만을 바랐으나, 뜻밖에도 구원병은 이미 위연과 뇌동 두 장수에게 격퇴당해 두 채를 모두 빼앗긴 뒤였다. 장합은 구원병이 오지 않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차에, 산 위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았다. 장비의 후군이 이미 산 위의 진영을 점령해 버린 것이었다. 장합은 세 채의 진영을 모두 잃고 결국 와구관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장비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성도로 전해지자,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장비가 술을 마신 것이 장합을 산 아래로 유인하기 위한 계책이었음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한편, 장합은 와구관으로 물러나 수비에 들어갔으나, 이미 3만 명의 군사 중 2만 명이나를 잃은 상태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 조홍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그러자 조홍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군사를 몰아붙이더니, 결국 중요한 요충지를 잃고 이제 와서 구원을 요청하는가!"

조홍은 군사를 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을 보내 장합에게 어서 나가 싸우라고 재촉했다. 장합은 마음이 몹시 초조해져 어쩔 수 없이 계책을 세웠다. 그는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관문 앞 산골짜기에 매복하게 한 뒤 이렇게 명령했다.

"내가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면 장비가 반드시 뒤쫓아올 것이다. 너희는 그놈이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라."

그날 장합이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다가 마침 뇌동과 맞닥뜨렸다. 몇 합을 싸우지 못해 장합이 패하여 달아나자, 뇌동이 뒤쫓아 나갔다. 이때 양쪽 군대가 일제히 출동하여 돌아가는 길을 끊어버렸다. 장합은 다시 되돌아와 말 아래에 있는 뇌동을 찔러 죽였다. 패배한 군사가 돌아가 장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장비가 스스로 장합에게 도전하러 나서자, 장합은 또 거짓으로 패하며 도망쳤다. 장비는 쫓아가지 않았다. 장합이 다시 돌아와 싸웠으나, 몇 합을 가지 못하고 또다시 패하여 달아났다. 장비는 이것이 계책임을 알아차리고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와 위연과 상의하며 말했다.

"장합이 매복을 써서 뇌동을 죽이고 또 나를 속이려 하니, 차라리 이 계책을 역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위연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장비가 대답했다.

"내일 내가 먼저 군사 일부를 이끌고 나아갈 테니, 너는 정예병을 이끌고 뒤를 따르거라. 복병이 나타나면 너는 병력을 나누어 그들을 쳐야 한다. 또한 수레 열댓 대를 준비하여 각각 땔감을 숨긴 뒤, 좁은 길목에 진을 치고 불을 질러라. 나는 그 기세를 몰아 장합을 사로잡아 뇌동의 원수를 갚겠다."

위연이 이 계획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전진했다. 장합의 군사가 다시 도착하여 장비와 맞붙었다. 열 합쯤 싸우다가 장합이 또 거짓으로 패하며 달아났다. 장비가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쫓아가자, 장합은 싸우면서도

계속 도망쳤다. 장합은 장비를 산골짜기 입구까지 유인한 뒤, 후군을 전군으로 바꾸어 다시 진을 치고 장비와 싸웠다. 장합은 복병이 나타나 장비를 포위하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복병이 나타나기는커녕, 위연의 정예병이 먼저 도착하여 골짜기 입구로 들이닥쳤다. 위연은 수레로 산길을 막아선 뒤 불을 질렀다. 산골짜기의 풀과 나무가 모두 타올랐고, 연기가 길을 가로막아 병사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 장비는 그 기세를 몰아 군사를 몰아 몰아쳤고, 장합은 대패하여 죽을 힘을 다해 길을 뚫고 와구관으로 도망쳤다. 장합은 남은 병사들을 모아 와구관에서 굳게 성을 지키며 나오지 않았다.

장비와 위연은 며칠 동안이나 관문을 공격했으나 좀처럼 함락시키지 못했다. 장비는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깨닫고 군대를 20리 뒤로 물렸다. 그러고는 위연과 함께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양쪽 초소 사이의 좁은 길을 살피며 정찰을 나섰다.

그러다 갑자기 남녀 몇 사람이 작은 짐을 등에 지고 산속 외진 길을 따라 덩굴을 헤치며 급히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장비가 말 위에서 채찍으로 그들을 가리키며 위연에게 말했다. "와구관을 함락시킬 열쇠가 바로 저 백성들에게 있구나."

장비는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저들을 놀라게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불러오너라."

군사들이 서둘러 그들을 말 앞으로 불러냈다. 장비는 부드러운 말투로 그들을 안심시키며 어디서 오는 길인지 물었다. 백성들이 대답했

다. "저희는 모두 한중 주민들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대군이 싸우는 바람에 낭중의 관도가 막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계를 지나 자동산 회천천을 통해 한중으로 들어가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장비가 물었다. "이 길로 가면 와구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백성들이 대답했다. "자동산 소로를 통하면 바로 와구관 뒷길로 이어집니다."

장비는 크게 기뻐하며 백성들을 진영으로 데려가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러고는 위연에게 군사를 이끌고 관문을 공격하라고 지시하며 말했다. "나는 직접 경기병을 이끌고 자동산을 넘어 관문 뒤를 치겠다."

장비는 백성들에게 길을 안내하게 하고, 경기병 500명을 선발하여 소로를 통해 진격했다.

한편, 장합은 구원병이 오지 않자 마음속으로 몹시 답답해하고 있었다. 그때 사람이 달려와 "위연이 관문 아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장합이 갑옷을 갖춰 입고 말을 타고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관문 뒤쪽 네다섯 군데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디서 군사가 나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장합이 직접 병사를 이끌고 맞서러 나갔으나, 깃발이 펼쳐진 곳에는 이미 장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합은 크게 놀라 급히 샛길로 도망치려 했으나, 말이 그 거친 길을 견디지 못했다. 뒤에서는 장비가 무섭게 추격해 오자, 장합은 결

국 말에서 내려 산길을 찾아 헤맨 끝에 간신히 목숨만 건져 빠져나왔다.

함께 온 부하도 겨우 열 명 남짓뿐이라, 그는 걸어서 남정으로 들어가 조홍을 만났다. 조홍은 장합이 겨우 열 명 남짓의 병사만 데리고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가지 말라고 했거늘, 네가 스스로 군령장을 써 가며 기어이 가겠다고 하더니, 오늘 대군을 다 잃고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다니, 대체 무엇 하러 온 것이냐!" 그러고는 좌우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끌어내 처형하려 했다.

이때 행군 사마 곽회가 간청했다. "'삼군을 얻기는 쉬워도, 한 명의 장수를 얻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합이 비록 죄를 지었으나 위왕께서 매우 아끼시는 장수이니, 곧바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병사 오천 명을 더 주어 가맹관을 공격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촉군의 병력을 곳곳으로 분산시킨다면 한중은 저절로 평안해질 것입니다.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때 두 가지 죄를 모두 물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조홍은 곽회의 말을 따랐다. 그는 병사 오천 명을 더 붙여주며 장합에게 가맹관을 공격하라고 명했다. 장합은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났다.

한편, 가맹관을 지키던 맹달과 곽준은 장합의 군대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곽준은 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맹달은 반드시 나가서 적을 맞서 싸워야 한다고 고집했다. 결국 맹달이 군사를

이끌고 관 밖으로 나가 장합과 맞붙었으나, 크게 패하고 도망쳐 돌아왔다. 곽준은 급히 성도에 서신을 보내 상황을 알렸다.

유비가 이 소식을 듣고 군사에게 상의를 청했다. 제갈량은 장수들을 모두 불러 모아 대청에 앉히고는 말했다. "지금 가맹관의 상황이 매우 급박합니다. 낭중에 있는 장비를 데려와야만 장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법정이 말했다. "지금 장비의 군사가 와구관에 머물며 낭중을 지키고 있으니, 그곳 또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장비를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장수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장합을 격파하게 합시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장합은 위나라의 이름난 명장이니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장비가 아니고서야 그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서며 외쳤다. "군사께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경시하십니까? 제가 비록 재주는 부족하나, 장합의 머리를 베어 군사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니 바로 노장 황충이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황충 장군이 비록 용맹하시나 나이가 많으시니, 장합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일까 걱정됩니다."

황충은 그 말을 듣고 하얀 수염을 바짝 세우며 말했다. "소장 비록 늙었으나, 두 팔로 여전히 삼석(三石)의 강궁을 당길 수 있고 온몸에

천 근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어찌 장합 같은 필부를 상대하지 못하겠습니까?"

제갈량이 다시 물었다. "장군께서 일흔을 바라보시는데, 어찌 늙지 않으셨다 하십니까?"

황충은 급히 강당 아래로 내려가 거치대에 놓인 대도를 집어 들고는 마치 날아다니듯 휘둘러 보였다. 이어 벽에 걸린 단단한 활을 연달아 당기더니 활 두 장을 꺾어버렸다.

제갈량이 말했다. "장군께서 가신다면 부장은 누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황충이 대답했다. "노장 엄언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먼저 이 백발의 머리를 바치겠습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엄언과 황충에게 장합과 싸우러 가라고 명했다.

그러자 조운이 간언했다. "지금 장합이 가맹관을 직접 공격하고 있으니, 군사께서는 장난처럼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가맹관을 잃게 되면 익주가 위태로워집니다. 어찌하여 두 노장에게 이 큰 적을 맡기려 하십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그대는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 일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나, 나는 한중을 반드시 이 두 사람의 손으로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오."

조운과 다른 장수들은 모두 비웃으며 물러났다.

한편, 황충과 엄언이 관문에 이르자 맹달과 곽준은 제갈량이 군사를 배치하는 모양새를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이렇게 긴박한 곳에 어찌하여 노인 둘만 보낸단 말인가!" 그때 황충이 엄언에게 말했다. "여보게, 저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가? 저들이 우리 두 사람을 늙었다고 비웃었으니, 이번 기회에 큰 공을 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세." 엄언이 대답했다. "장군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을 모으고 황충이 군사를 이끌고 관문을 내려가 장합과 맞섰다. 장합이 말을 타고 나와 황충을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이가 그토록 많은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직도 싸우러 나오려 하는가!" 황충이 노하며 외쳤다. "이놈이 감히 나를 늙었다고 업신여기느냐! 내 손에 든 보도(寶刀)는 결코 늙지 않았다!" 말을 마친 황충은 즉시 말을 달려 장합과 결전을 벌였다. 두 장수가 맞붙어 스무 합 넘게 싸우던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알고 보니 엄언이 샛길을 통해 장합의 군대 뒤편을 기습한 것이었다. 양쪽에서 몰아치는 공격에 장합은 크게 패했다. 장합이 밤새 도망치느라 군사들은 80~90리나 뒤로 물러났다. 황충과 엄언은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온 뒤, 모두 잠시 움직이지 않고 대기했다.

조홍은 장합이 한 차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죄를 물으려 했다. 그러자 곽회가 말했다. "장합이 몰리고 있으니 반드시 서촉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지금 장수를 보내 곁에서 감독하게 한다면, 딴마음을 품지 못할 것입니다." 조홍이 그 말을 따랐다. 곧바로 하후돈의 조카인 하후상과 항복한 장수 한현의 동생 한호를 보내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전투를 돕게 했다. 두 장수가 즉시 길을 떠나 장합의 진영에 도착하여 군사 상황을 물었다. 장합이 말했다. "노장 황충은 매우 영웅적인 인물이며, 엄언까지 도와주고 있으니 결코 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한호가 말했다. "제가 장사에서 저 노적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자가 위연과 함께 성을 내주고 제 형님을 해쳤으니, 오늘 마침 만났으니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말을 마친 한호는 하후상과 함께 새 군사를 이끌고 진영을 떠나 전진했다.

알고 보니 황충은 연일 정찰을 반복하며 이미 길을 파악해 둔 상태였다. 엄언이 말했다. "저쪽으로 가면 천탕산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그 산은 조조의 군대가 군량과 풀을 쌓아두는 곳입니다. 만약 그곳을 점령하여 적의 군량을 끊어버린다면, 한중을 차지하는 것은 따 놓은 당상입니다." 그러자 황충이 말했다. "장군의 말씀이 내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오. 나와 함께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엄언은 황충의 계책을 따르기로 하고, 직접 군사 한 부대를 이끌고 길을 떠났다.

한편, 황충은 하후상과 한호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진영 밖으로 나갔다. 한호는 진영 앞에서 황충을 향해 "의리도 없는 늙은 도둑놈 같으니라고!"라며 크게 욕을 퍼붓더니, 말을 달려 창을 내지르며 황충을 공격했다. 하후상 또한 그 곁에서 협공을 펼쳤다. 황충은 두 장수와 힘껏 맞서 싸우며 열 합 넘게 버텼으나, 결국 패하여 퇴각하고 말았다. 두 장수는 황충을 쫓아 이십 리 넘게 달려가 그의 진영을 점령했다. 황충은 다시 급히 새로운 진영을 차려 세웠다. 이튿날, 하후상과 한호가 다시 몰려오자 황충이 또다시 진영을 나가 싸웠으나, 몇 합을 겨루지 못하고 또다시 패하여 달아났다. 두 장수는 다시 이십

리를 추격하여 황충의 진영을 빼앗은 뒤, 장합을 불러 후방 진영을 지키게 했다. 장합이 앞 진영으로 와서 간언했다. "황충이 이틀 연속으로 후퇴하는 것을 보니, 분명 그 속에 무슨 계책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후상이 장합을 꾸짖으며 말했다. "네놈이 어찌 그리 겁이 많느냐! 번번이 싸움에서 지는 것이 다 네놈 때문이다. 이제 더는 입을 놀리지 말고, 우리 둘이 공을 세우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아라!" 장합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다.

다음 날, 두 장수가 다시 맞붙었으나 황충이 또 이십여 리를 패하며 물러났다. 두 장수는 그 뒤를 바짝 뒤쫓았다. 이튿날 두 장수가 다시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자, 황충은 바람을 타고 달아나듯 연이어 여러 번 패하며 관문 앞까지 밀려났다. 두 장수가 관문을 두드리며 진을 치자, 황충은 굳게 성을 지키며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맹달은 몰래 서신을 보내 유비에게 보고했다. "황충이 연달아 여러 번 패하여 지금 관문에 퇴각해 있습니다." 유비가 당황하며 제갈량에게 물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이것은 노장인 황충이 부리는 교병(驕兵)의 계책입니다." 조운 등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유비는 유봉을 보내 관문에서 황충을 지원하게 했다.

황충이 유봉을 만나 묻기를, "소장군께서 어찌하여 싸움을 도우러 오셨소?"라고 하자, 유봉이 대답했다. "아버님께서 장군께서 여러 번 패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황충이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이 늙은이가 부리는 교병의 계책이라오. 오늘 밤 한 차례만 제대로 몰아붙이면 적의 진영을 완전히 되찾고 군량과 말까지 빼앗을 수 있을 것이오. 저들이 진영을 빌려 우리 군수 물자를 쌓아두고 있는 격

이지. 오늘 밤 곽준을 남겨 관문을 지키게 하고, 맹달 장군께서는 저와 함께 군량과 말을 탈취하러 가십시다. 소장군께서는 제가 적을 깨뜨리는 것을 지켜보시오."

그날 밤 2경이 되자, 황충은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관문을 열고 곧장 내려갔다. 알고 보니 하후상과 한호 두 장수는 며칠 동안 관문 위에서 적이 나오지 않자 모두 방심하고 있었다. 황충이 그들의 진영을 격파하며 돌진해 들어오자, 두 장수는 갑옷을 갖춰 입을 겨를도, 말 안장에 올라탈 겨를도 없이 각자 목숨을 구하려 달아났다. 그 과정에서 군마들이 서로 짓밟혀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날이 밝을 무렵에는 세 곳의 진영을 연달아 함락했다. 진영 안에는 수많은 무기와 말, 안장이 버려져 있었는데, 이를 모두 맹달이 관문 안으로 옮겨 실었다. 황충은 군사들을 독려하며 뒤따라 전진했다. 이때 유봉이 "군사들이 지쳤으니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황충이 말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호랑이 새끼를 잡겠느냐!" 황충이 말을 몰아 앞장서 나가자, 병사들도 모두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장합의 군사들은 오히려 아군 패잔병들이 밀려오는 바람에 진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뒤로 도망치기 바빴으며, 수많은 초소를 버려둔 채 한수 근처까지 달아났다.

장합이 하후상과 한호를 찾아가 논의하며 말했다. "이곳 천탕산은 군량미가 모이는 곳이고, 바로 옆 미창산 또한 군량을 쌓아둔 곳이라네. 이곳은 한중의 군사들이 먹고살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과 같으니, 만약 여기서 실책이 생긴다면 한중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네. 반드시 이 산을 지켜낼 방도를 찾아야 하네."

그러자 하후상이 대답했다. "미창산은 제 숙부인 하후연이 병력을 나누어 지키고 있고, 그곳은 정군산과도 맞닿아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천탕산은 제 형인 하후덕이 지키고 있으니,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합류한다면 충분히 이 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장합은 두 장수와 함께 밤을 도와 천탕산으로 달려가 하후덕을 만났다. 장합이 앞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자, 하후덕이 말했다.

"내가 이곳에 10만 대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니, 그대를 데리고 가서 원래의 진영을 다시 되찾도록 하시오."

장합이 대답했다.

"그저 굳게 지키기만 해야지,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갑자기 산 앞에서 북과 징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사람이 달려와 보고했다.

"황충의 군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하후덕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 늙은 도적놈은 병법도 모르고 그저 용맹함만 믿고 덤비는구나!"

장합이 말했다.

"황충은 계책이 있는 자라 단순히 용맹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후덕이 다시 말했다.

"촉나라 병사들이 멀리서 찾아왔으니 연일 피로가 쌓였을 터인데, 적진 깊숙이 들어오는 것은 아무런 계책도 없는 무모한 짓이다."

장합이 거들었다.

"그래도 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굳게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한호가 말했다.

"정예병 3천 명만 빌려주신다면, 나가서 공격하여 반드시 격파하겠습니다."

한호는 부하들을 나누어 산 아래로 내려갔다. 황충은 군사를 정비하여 맞이하러 나갔다. 이때 유봉이 간언했다. "해가 이미 서산으로 기울었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멀리서 오느라 지치고 고단하니, 잠시 쉬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황충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이니, 이를 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말을 마친 황충은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크게 진격했다. 한호가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웠으나, 황충이 칼을 휘두르며 곧장 한호를 공격하니 단 한 합 만에 한호를 말 아래로 베어 넘겼다. 촉나라 군사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며 산 위로 몰려 올라갔다.

장합과 하후상이 급히 군사를 이끌고 맞으러 오는데, 갑자기 산 뒤쪽에서 커다란 함성이 들리더니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아 산 위아래가 온통 붉게 물들었다. 하후덕이 병사를 이끌고 불을 끄러 오다가 마침 노장 엄언과 마주쳤고, 엄언이 칼을 휘둘러 하후덕을 말 아래로

베어 버렸다. 알고 보니 황충이 미리 엄언에게 군사를 이끌고 산의 외진 곳에 매복하게 했다가, 황충의 군대가 도착하자마자 불을 지르게 한 것이었다. 쌓아둔 땔감에 일제히 불을 붙이자 거센 불길이 치솟으며 온 골짜기를 환하게 비추었다.

엄언이 하후덕을 베고 산 뒤편에서 들이닥치자, 장합과 하후상은 앞뒤로 서로를 돌볼 겨를도 없이 천탕산을 버리고 정군산에 있는 하후연에게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황충과 엄언이 천탕산을 지켜내자, 승전보가 성도로 빠르게 전해졌다. 유비가 이 소식을 듣자 모든 장수가 기뻐하며 축하했다.

이때 법정이 말했다. "예전에 조조가 장로를 항복시키고 한중을 차지했을 때, 이 기세를 몰아 파촉 땅까지 도모하지 않고 하후연과 장합 두 장군을 남겨 수비하게 한 뒤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돌아갔는데, 이는 실책이었습니다. 지금 장합이 새로이 패하고 천탕산마저 빼앗겼으니, 주공께서 이 기회를 틈타 대군을 일으켜 직접 정벌에 나서신다면 한중을 평정할 수 있습니다. 한중을 평정한 뒤에 군사를 훈련하고 군량을 쌓으며 적의 빈틈을 살핀다면, 나아가서는 적을 토벌하고 물러나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이 주신 기회이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비와 제갈량 모두 이 말에 깊이 공감하여, 즉시 조운과 장비를 선봉으로 삼으라는 명을 내렸다. 유비는 제갈량과 함께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길일을 택하여 한중으로 진격하기로 했으며, 각지에 격문을 보내 경계를 엄중히 하라고 명했다.

건안 23년 가을 7월의 어느 길일이었다. 유비는 대군을 이끌고 가맹관 아래에 진을 친 뒤, 황충과 엄언을 불러들여 큰 상을 내렸다.

유비가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장군이 늙었다고 말하지만, 오직 제갈량 군사만이 장군의 능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기이한 공을 세우셨군요. 하지만 지금 한중의 정군산은 남정을 지키는 요충지이자 군량이 모이는 곳입니다. 만약 정군산과 양평 길목을 차지한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장군, 다시 한번 정군산을 취하겠습니까?"

황충이 기개 있게 승낙하며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려 하자, 제갈량이 급히 만류하며 말했다. "노장군께서 비록 용맹하시지만, 하후연은 장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하후연은 병법에 매우 능하고 군사 작전에도 밝습니다. 조조가 그를 서량의 방패로 의지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장안에 군사를 머물게 하여 마초를 막아내더니, 이제는 다시 한중에 군사를 배치했습니다. 조조가 다른 사람도 아닌 하후연을 믿고 맡기는 것은 그에게 뛰어난 장수의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군께서 비록 장합을 이기셨으나, 하후연까지 이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적당한 사람을 형주로 보내 관(關) 장군(관우)을 교체해 불러와야만 하후연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충이 결연하게 대답했다. "옛날 염파는 여든 살의 고령에도 매일 쌀 한 말과 고기 열 근을 먹으며 기운을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제후들이 그 용맹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조나라의 국경을 침범하지 못했거늘, 하물며 황충은 아직 일흔 살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군사께서 제가 늙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부장을 따로 두지 않고 오직 본대

의 병사 삼천 명만 데리고 가서 하후연의 머리를 베어 가져오겠습니다."

제갈량이 거듭 만류했으나 황충은 오로지 출정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제갈량이 말했다. "장군께서 정 가시겠다면, 제가 사람 한 명을 감군으로 붙여 함께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상대를 자극하는 격장법을 쓰려니, 젊은이가 노인만 하겠는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일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1회 — 대산에서 황충이 매복을 기다려 적을 치고, 한수에서 조운이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이기다

占對山黃忠逸待勞 據漢水趙雲寡勝眾

한편, 제갈량이 황충에게 명했다. 「당신이 직접 가시겠다면 법정을 붙여 돕게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미리 계획을 세워 움직이십시오. 저도 곧 사람과 군마를 보내 지원하겠습니다.」 황충이 승낙하고 법정과 함께 본대 병력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말했다. 「이 노장은 말로 자극해 두지 않으면 비록 가더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가 떠났으니 반드시 사람과 군마를 보내 지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는 조운을 불러 한 부대의 병력을 나누어 주며 샛길로 기습 부대를 보내 지원하게 했다. 「황충이 승리한다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으나, 만약 황충에게 변고가 생기면 즉시 구하러 가십시오.」 또한 유봉과 맹달에게도 명했다. 「삼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산속의 험한 요충지를 점령하십시오. 깃발을 많이 세워 우리 군사의 기세를 드높임으로써 적들이 놀라 의심하게 만드십시오.」 세 사람은 각

자 병력을 이끌고 떠났다. 또 사람을 하변(下辨)으로 보내 마초에게 계책을 전하고 이러이러하게 움직이도록 했다. 또한 엄안(嚴顔)을 보내 파서 낭중의 요새를 지키게 하여, 장비와 위연을 대신하게 하고 그 두 사람이 와서 함께 한중을 취하도록 했다.

한편, 장합과 하후상이 하후연을 찾아가 말했다. "천탕산을 이미 잃었고 하후덕과 한호마저 전사했습니다. 이제 유비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한중을 치러 온다는 소문이 들리니, 어서 위왕께 보고하여 정예병과 용맹한 장수들을 신속히 보내 지원하게 해야 합니다."

하후연은 즉시 사람을 보내 조홍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조홍은 밤을 도와 허창에 도착하여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는 크게 놀라 서둘러 문무백관을 모아 한중을 구하기 위해 군사를 보낼 방도를 논의했다. 이때 장사 유엽이 나아가 말했다. "한중을 잃으면 중원이 흔들릴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마시고 반드시 직접 정벌에 나서셔야 합니다."

조조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말했다. "그때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아 이런 사태를 맞이했으니 참으로 한스럽구나!" 그러고는 서둘러 명령을 내려 40만 대군을 일으켜 직접 출정하기로 했다. 때는 건안 23년 가을 7월이었다.

조조의 군대는 세 갈래로 나누어 진격했다. 선봉은 하후돈이 맡았고, 조조가 직접 중앙군을 이끌었으며, 조휴에게 후방을 지키게 했다. 삼군이 차례로 길을 떠났다. 조조는 백마에 금안장을 얹고 옥띠를 두른 비단옷을 입었으며, 무사들은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금칠한 우산을 들

었다. 좌우에는 금도끼와 은도끼, 말뚝과 창과 칼을 든 병사들이 배치되었고, 해와 달, 용과 봉황이 그려진 깃발이 휘날렸다. 조조를 호위하는 용호관군 2만 5천 명은 다섯 부대로 나뉘어 각각 5천 명씩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의 다섯 색깔로 나누어 행진했다. 깃발과 말의 장식 또한 각 색깔에 맞추어 갖추었다. 그 모습이 눈부시게 찬란하여 실로 웅장하기 이를 데 없었다.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동관을 나서 말 위에 올라타 있는데, 멀리 숲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진 곳이 보였다. 조조가 곁에 있는 측근에게 물었다. 「저곳은 어디냐?」 측근이 대답했다. 「저곳은 람전이라 하는 곳입니다. 숲 사이로 보이는 곳이 바로 채옹의 장원입니다. 지금 채옹의 딸 채염이 남편 동사와 함께 저곳에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조조는 채옹과 사이가 매우 좋았다. 예전에 채염은 위도개의 아내였으나, 북방 민족에게 붙잡혀간 뒤 북쪽 땅에서 두 아들을 낳고 '호가 십팔박'이라는 노래를 지어 중원으로 흘러 들어왔다. 조조는 그녀의 사연을 몹시 가엽게 여겨, 사람을 보내 천금을 들고 북방으로 가서 그녀를 구해오게 했다. 좌현왕(左賢王)이 조조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채염을 한나라로 돌려보내 주었고, 조조는 그녀를 동사의 아내로 맞게 해주었다.

그날 장원 앞에 도착했을 때, 조조는 문득 채옹의 일이 생각나 군마를 먼저 보내게 했다. 조조는 측근 백여 명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가다가 장원 문 앞에서 말에서 내렸다. 마침 채염의 남편인 동사는 밖으로 나가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기에, 집에는 채염만 남아 있었다. 채염은 조조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마중을 나왔다. 조조가 대청에 이르자

채염은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린 뒤 곁에 서서 모셨다. 조조는 문득 벽에 걸린 비문 그림 족자를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살펴보며 채염에게 물었다. 채염이 대답했다. 「저것은 조아(曹娥)의 비석입니다. 옛날 화제 시절, 상우에 조우(曹盱)라는 무당이 있었는데 춤을 추어 신을 즐겁게 하는 데 능했습니다. 그는 오월 초닷새에 배 위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다 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의 딸은 겨우 열네 살이었는데, 강가를 돌며 칠 일 밤낮을 울며 통곡하다가 결국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에 딸이 아버지의 시신을 등에 업고 강 위로 떠올라 마을 사람들이 강가에 묻어 주었습니다. 상우의 현령 도상이 이 일을 조정에 아뢰어 그녀를 효녀로 표창하게 했습니다. 도상은 한단순(邯鄲淳)에게 명하여 이 일을 기록한 글을 지어 비석에 새기게 했습니다. 당시 한단순의 나이는 겨우 열세 살이었는데, 글을 한 자도 고치지 않고 단숨에 써 내려가 비석을 완성했습니다. 그 비석을 무덤 옆에 세우니 당시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제 아버지 채옹께서 이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가셨는데, 마침 해가 저물어 어둠 속에서 손으로 비문의 글자를 더듬어 읽으시다가, 붓을 가져와 비석 뒷면에 여덟 글자를 크게 써 놓으셨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비석을 새길 때 이 여덟 글자는 새겨 넣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그 여덟 글자를 읽으니, 「황견유부, 외손제구(黃絹幼婦, 外孫齏臼)」라고 되어 있었다. 조조가 채염에게 물었다. 「그대가 이 뜻을 풀이할 수 있겠소?」 채염이 말했다. 「비록 선친께서 남기신 글이라 하나, 저는 참으로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조조가 돌아보며 참모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알겠는가?」 그러나 모두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와 말했다. 「제가 그 뜻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조조가 보니 바로 주부 양수였다. 조조가 말했다. 「그대는 잠시 말하지 마시오. 내가 먼저 생각해

보겠소.」 조조는 채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장원을 나섰다. 말을 타고 3리쯤 갔을 때, 문득 깨달음을 얻은 조조가 웃으며 양수에게 말했다. 「그대가 한번 말해 보시오.」 양수가 말했다. 「이것은 은어(隱語)일 뿐입니다. '황견(黃絹)'은 색깔 있는 실이니, '빛 색(色)' 자 옆에 '실 사(絲)' 자를 붙이면 '끊을 절(絶)' 자가 됩니다. '유부(幼婦)'는 어린 여자(少女)이니, '여자 녀(女)' 자 옆에 '적을 소(少)' 자를 붙이면 '묘할 묘(妙)' 자가 됩니다. '외손(外孫)'은 딸의 아들이니, '여자 녀(女)' 자 옆에 '아들 자(子)' 자를 붙이면 '좋을 호(好)' 자가 됩니다. '제구(齏臼)'는 다섯 가지 매운 양념(五辛)을 받는 그릇이니, '받을 수(受)' 자 옆에 '매울 신(辛)' 자를 붙이면 '말씀 사(辭)' 자가 됩니다. 모두 합하면 '절묘호사(絶妙好辭)', 곧 '절묘하게 좋은 글'이라는 네 글자가 됩니다.」 조조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내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소!」 모든 이들이 양수의 명민한 재주와 식견에 감탄하며 칭송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가 남정에 도착했다. 조홍이 마중 나와 장합의 일을 자세히 보고했다. 조조가 말했다. 「그것은 장합의 잘못이 아니다. 승패란 병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 조홍이 말했다. 「지금 유비가 황충을 시켜 정군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후연은 대왕의 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굳게 지키며 전혀 싸우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만약 싸우러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겁쟁이임을 보여주는 꼴이다.」 조조는 즉시 사신에게 부절(符節)을 들려 정군산으로 보내 하후연에게 진군하라고 명령했다. 유엽이 간언했다. 「하후연은 성격이 너무 강직하여 간사한 계략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조조는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다. 사신이 부절을 들고 하후연의

진영에 도착하자 하후연이 그를 맞이했다. 사신이 편지를 건네자 하후연이 이를 뜯어 읽었다. 편지에는 대략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무릇 장수가 된 자는 마땅히 강함과 부드러움을 조화시켜야 하며, 오로지 용맹함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용맹함만 믿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한 낱 필부 하나를 상대하는 격이 될 뿐이다. 내가 지금 남정에 대군을 주둔시킨 것은 그대의 '묘재(妙才)'를 보고자 함이니, 부디 그 두 글자(이름)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후연은 서신을 다 읽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사자를 보내 답신을 보낸 뒤 장합과 상의하며 말했다. "지금 위나라 왕께서 대군을 이끌고 남정에 주둔하며 유비를 치려 하신다. 나와 네가 이곳을 오랫동안 지키고만 있어서야 어찌 공을 세울 수 있겠느냐? 내일 내가 직접 나가서 반드시 황충을 생포해 오겠다."

장합이 말했다. "황충은 지략과 용맹을 모두 갖춘 데다 법정까지 돕고 있으니 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산길이 험준하니 그저 굳게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후연이 말했다. "만약 다른 이가 공을 세운다면, 나와 네가 무슨 면목으로 위나라 왕을 뵙겠느냐? 너는 산을 지키고만 있거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고는 곧 명령을 내려 외쳤다. "누가 감히 정찰을 나가 적을 유인해 보겠느냐?"

그러자 하후상이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후연이 말했다. "네가 나가서 정찰을 하며 황충과 싸우되, 반드시 지기만 해야 한다. 이겨서는 안 된다. 내게 묘책이 있으니, 이러이러하

게 하라." 하후상은 명령을 받들어 삼천 군사를 이끌고 정군산의 큰 진영을 떠나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황충과 법정은 정군산 입구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여러 차례 싸움을 걸었으나, 하후연은 굳게 성을 지키며 나오지 않았다. 공격하려 해도 산길이 험해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하후연은 그저 수비에만 전념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산 위에서 조조군의 병사들이 내려와 싸움을 걸어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황충이 막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맞서려 할 때, 부장 진식이 말했다. "장군님,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맞서겠습니다." 황충은 크게 기뻐하며 진식에게 군사 천 명을 이끌고 산 입구로 나가 진을 치라고 명령했다. 곧 하후상이 군사를 몰고 나타나 격돌했는데, 몇 합을 겨루지 못해 하후상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달아났다. 진식이 그 뒤를 쫓아갔으나, 길 중간쯤 이르렀을 때 양쪽 산 위에서 굴려 내려온 바위와 돌에 맞아 군사들이 쓰러지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진식이 막 퇴각하려 할 때, 뒤에서 하후연이 군사를 이끌고 돌격해 오니 진식은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하후연에게 생포되어 진영으로 끌려갔다. 부하 병사들도 대부분 항복했고, 패하여 목숨만 건져 도망친 자가 황충에게 돌아와 진식이 사로잡혔음을 보고했다. 황충이 당황하여 법정과 상의하자 법정이 말했다. "하후연은 성격이 급하고 용맹만 믿을 뿐 지략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진영을 옮기며 전진하게 하고, 매 단계마다 견고한 진을 치면서 하후연을 싸움터로 유인해 사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을 뒤바꾸는' 계책입니다."

황충은 그(법정)의 계책을 받아들여, 가지고 있던 물자를 모두 삼군에게 상으로 내렸다. 군사들의 환호성이 골짜기를 가득 메웠고, 모두가 목숨을 걸고 싸우기를 원했다. 황충은 그날로 진영을 옮겨 전진하며 매번 머무는 곳마다 견고하게 진을 치고 며칠씩 머물다 다시 나아가는 식으로 진격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하후연은 직접 나가 싸우려 했다. 장합이 「이것은 적이 주도권을 쥐게 만드는 '반객위주'의 계책이니, 나가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라며 만류했지만, 하후연은 듣지 않았다. 결국 하후연은 하후상에게 수천 명의 병사를 주어 출전하게 했고, 그들은 곧장 황충의 진영 앞까지 도달했다. 황충이 말을 타고 칼을 뽑아 들며 마중 나가 하후상과 맞붙었는데, 단 한 합 만에 하후상을 생포하여 진영으로 끌고 왔다. 나머지 병사들은 모두 패하여 달아났고, 이 소식은 하후연에게 보고되었다. 하후연은 급히 사람을 보내 황충의 진영에 전하며, 진식을 돌려보낼 테니 하후상과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황충은 다음 날 진영 앞에서 맞바꾸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양측 군대는 산골짜기의 넓은 곳에 자리를 잡고 진을 쳤다. 황충과 하후연은 각각 자신의 본진 깃발 아래에 말을 세우고 대기했다. 황충은 하후상을 데리고 나오고 하후연은 진식을 데리고 나왔는데, 포로가 된 두 사람에게는 각각 전포와 갑옷을 주지 않고 몸을 가릴 얇은 옷만 입혀 두었다. 북소리가 한 번 울리자 진식과 하후상이 각자 자기 본진을 향해 달려 돌아갔다. 하후상이 진영 문에 다다를 무렵, 황충이 쏜 화살이 그의 등 한복판에 명중했다. 하후상은 화살을 맞은 채로 겨우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를 본 하후연이 크게 분노하여 말을 몰아 곧장 황충을 치러 나갔다. 황충 역시 하후연을 자극해 맞붙으려던 참이었다. 두 장수가 말을 타고 부딪치며 스무 합 넘게 싸우던 그때, 조조군

진영에서 갑자기 퇴각을 알리는 징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후연이 당황하며 말을 돌려 퇴각하자, 황충이 그 기세를 몰아 한바탕 몰아붙였다. 진영으로 돌아온 하후연이 부관에게 「왜 퇴각 신호를 보냈느냐?」라고 물으니, 부관이 대답했다. 「산 골짜기 움푹한 곳에 촉나라 군사의 깃발이 여러 개 보이는 것을 보고, 복병일까 두려워 급히 장군을 불러들였습니다.」 하후연은 그 말을 믿고 굳게 지키며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황충이 정군산 아래까지 쫓아와 법정과 상의했다. 법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정군산 서쪽을 보십시오. 웅장한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사방이 모두 험한 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산을 차지하면 정군산의 허실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장군께서 이 산을 얻기만 한다면, 정군산은 손바닥 안이나 다름없습니다."

황충이 올려다보니 산봉우리가 비교적 평탄했고, 산 위에는 군사들이 조금 보였다. 그날 밤 이경이 되자, 황충은 군사들을 이끌고 징과 북을 울리며 산 정상으로 곧장 돌격했다. 당시 그 산은 하후연의 부장 두습이 지키고 있었는데, 병력은 겨우 수백 명뿐이었다. 황충의 대부대가 몰려오는 것을 본 두습은 산을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황충이 산 정상을 차지하자 정군산이 바로 눈앞에 마주 보였다.

법정이 말했다.

"장군께서는 산 중턱에서 대기하시고, 제가 산 정상에 머물겠습니다. 하후연의 군사가 도착하면 제가 백기를 흔들어 신호를 보낼 테니,

그때까지 장군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다 적들이 지치고 방심할 때쯤 제가 홍기를 흔들겠습니다. 그때 장군께서 산을 내려가 적을 치십시오. 이렇게 쉬면서 적의 피로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황충은 크게 기뻐하며 법정의 계책을 따랐다.

한편, 두습이 군사를 이끌고 도망쳐 돌아와 하후연을 만나 황충이 맞은편 산을 점령했다고 보고했다. 하후연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황충이 맞은편 산을 차지했으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당장 출전하겠다!"

그러자 장합이 간언했다. "이것은 법정의 계책입니다. 장군께서는 출전하지 마시고 그저 굳게 지키기만 하셔야 합니다." 하후연이 대답했다. "놈들이 우리 맞은편 산을 차지하고 우리의 허실을 살피고 있는데, 어찌 싸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장합이 간곡히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하후연은 군사를 나누어 정군산 맞은편 산을 포위한 뒤, 크게 욕설을 퍼부으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법정은 산 위에서 백기를 흔들며, 하후연이 온갖 욕설을 퍼부어도 황충은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버텼다. 정오가 지나자 법정은 조조군의 병사들이 지쳐 기세가 꺾이고, 많은 이들이 말에서 내려 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그는 붉은 깃발을 휘날리게 했다.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고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황충이 앞장서서 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기세가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했다.

하후연이 미처 손쓸 틈도 없이 황충이 그의 본영 아래까지 들이닥쳤다. 황충이 크게 호통을 치니 그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 같았다. 하후연이 맞서기도 전에 황충의 보도가 떨어졌고, 하후연은 머리와 어깨가 통째로 잘려 두 동강이 났다. 후대의 어떤 이들은 황충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검은 머리 시절 적을 마주하고, 백발이 되어 신위(神威)를 떨치네. 활을 당기는 힘은 매서운 화살 같고, 칼을 휘두르는 기세는 눈보라와 같구나. 호랑이의 포효 같은 웅장한 목소리에, 용이 날아오르는 듯한 준마를 타네. 적의 머리를 베어 세운 공훈은 무겁고, 나라의 경계를 넓혀 제국의 위엄을 세웠도다."

황충이 하후연을 베자 조조의 군대는 크게 무너졌고, 병사들은 제각기 살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황충은 이 기세를 몰아 정군산을 탈취하려 했고, 이에 장합이 군사를 이끌고 맞서 나왔습니다. 황충과 진식이 두 사람의 협공을 퍼부으며 한바탕 혼전을 벌이자 장합은 패하여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 옆에서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선두에 선 대장은 크게 외쳤습니다. "상산 조운이 여기 있다!" 장합은 크게 놀라 패잔병을 이끌고 길을 틀어 정군산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또 다른 병사들이 맞이하러 나왔는데, 바로 두습이었습니다. 두습이 말했습니다. "지금 정군산은 이미 유봉과 맹달에게 빼앗겼소." 장합은 깜짝 놀라 두습과 함께 패한 병사들을 이끌고 한수까지 가서 진을 친 뒤, 서둘러 조조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조조는 하후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놓아 통곡했습니다. 그제야 관로가 말했던 암호들을 깨달았습니다. '삼팔종횡'은 건안 24년을 뜻하는 것이었고, '황저우호'는 기해년 정월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정군지남'은 정군산의 남쪽을 뜻했고, '상절일고'는 하후연과 조조가 형제와 같은 친척 관계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조가 사람을 시켜 관로를 찾게 했으나, 그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조조는 황충을 깊이 원망하며,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정군산으로 가서 하후연의 원수를 갚기로 했습니다. 그는 서황을 선봉으로 삼았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한수에 이르자 장합과 두습이 마중 나왔습니다. 두 장군이 말했습니다. "지금 정군산은 이미 잃었으니, 미창산의 군량을 북쪽 산채로 옮겨 쌓아둔 뒤에 진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황충이 하후연의 머리를 베고 가맹관(葭萌關)으로 돌아와 유비에게 공을 보고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황충을 정서대장군으로 임명하고 잔치를 베풀어 축하했다. 이때 부장 장착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조조가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하후연의 원수를 갚으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합은 미창산에 있는 군량을 한수 북쪽 산기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지금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으나, 군량이 넉넉지 못할까 염려하여 군사를 멈추고 진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 군량을 태우고 군수 물자를 빼앗는다면, 조조의 예기(銳氣)를 꺾을 수 있습니다.」 황충이 말했다. 「노부가 그 임무를 맡겠습니다.」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조조는 하후연에 비할 인물이 아니니 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유비가 거들었다. 「하후연이 비록 총사령

관이라 해도 그저 용맹한 무장일 뿐인데, 어찌 장합에 미치겠소? 만약 장합의 머리를 베어 온다면 하후연을 베는 것보다 열 배는 더 큰 공이 될 것이오.」 황충이 분연히 대답했다. 「제가 가서 반드시 베어 오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렇다면 조운과 함께 한 부대를 이끌고 가십시오. 모든 일은 계획을 세워 신중히 움직여야 하니, 누가 더 큰 공을 세우는지 지켜봅시다.」 황충이 승낙하고 곧바로 출발하려 하자, 제갈량은 장착을 부장으로 삼아 함께 가게 했다.

조운이 황충에게 말했다. "지금 조조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열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주둔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주군을 위해 군량을 탈취하러 가시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장군께서는 어떤 계책을 쓰실 계획입니까?"

황충이 물었다.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하면 어떻겠소?"

조운이 말했다. "저도 먼저 가겠습니다."

황충이 말했다. "나는 주장이요, 그대는 부장이니 어찌 먼저 가겠다고 다투겠소?"

조운이 대답했다. "저나 장군이나 모두 주군을 위해 힘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우리 둘이 제비뽑기를 해서 뽑힌 사람이 먼저 갑시다."

황충이 이에 동의했다. 당시 제비뽑기를 해보니 황충이 먼저 가기로 뽑혔다. 조운이 말했다. "장군께서 먼저 가시기로 했으니 제가 돕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정해둡시다. 만약 장군께서 약속한 시간에 맞춰 돌

아오시면 저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겠으나, 만약 시간을 넘기도록 돌아오지 않으시면 제가 즉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장군을 지원하겠습니다."

황충이 말했다. "그 말이 옳소."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오시(午時)를 기한으로 약속했다. 조운은 본진으로 돌아와 부장 장익에게 말했다. "황충 장군께서 내일 군량을 탈취하러 가기로 하셨는데, 만약 오시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면 제가 가서 돕겠습니다. 우리 진영 앞은 한수가 흐르고 지세가 험하니, 제가 출동할 때 그대는 진영을 엄중히 지키며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오." 장익이 대답했다.

한편, 황충이 진영으로 돌아와 부장 장착에게 말했다. "내가 하후연을 베어 장합을 겁에 질리게 했으니, 내일은 명을 받들어 군량을 탈취하러 갈 것이다. 진영을 지킬 병사 500명만 남겨두고 너는 나를 도와라. 오늘 밤 삼경에는 모두 배불리 먹어두고, 사경에는 진영을 떠나 북산 기슭까지 진격하라. 거기서 먼저 장합을 잡은 뒤에 군량을 탈취하는 것이다." 장착은 명을 따랐다. 그날 밤 황충이 앞장서고 장착이 뒤를 따르며 한수를 몰래 건너 북산 아래에 이르렀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자 산더미처럼 쌓인 군량이 보였다. 소수의 병사가 지키고 있었으나, 촉나라 군사가 나타나자 모두 버리고 달아났다. 황충은 기병들에게 일제히 말에서 내려 땔감을 미곡 위에 쌓으라고 명령했다. 막 불을 붙이려는데 장합의 군사가 들이닥쳐 황충과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가 급히 서황에게 지원 명령을 내렸다. 서황이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여 황충을 포위망 한가운데에 가두었다. 장착은 300명

의 군사를 이끌고 탈출하여 막 진영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병사가 튀어나와 길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장수는 문빙이었고, 뒤이어 조조의 군사가 도착하여 장착을 에워쌌다.

한편, 조운은 진영에서 오시가 되도록 황충이 돌아오지 않자, 급히 무장을 갖추고 말에 올라타 3천 군사를 이끌고 지원하러 나섰다. 길을 떠나기 전 조운이 장익에게 말했다. 「그대는 진영을 굳건히 지키고, 양쪽 벽에는 활과 노를 넉넉히 배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오.」 장익이 연신 대답하자, 조운은 창을 치켜들고 말을 몰아 곧장 앞으로 달려 나갔다. 앞길을 가로막은 장수는 문빙의 부하 모용렬이었는데, 말을 달리고 칼을 휘두르며 조운을 맞이하려 했으나 조운의 창에 단번에 찔려 죽었다. 조조의 병사들이 패하여 달아나는 가운데, 조운이 적진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자 또 다른 병사 무리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 우두머리는 위나라 장수 초병이었다. 조운이 호통치며 물었다. 「촉나라 군사는 어디 있느냐?」 초병이 「이미 다 죽었다!」라고 대답하자, 조운이 크게 노하여 말을 몰아 창으로 초병을 찔러 죽였다. 조운이 남은 병사들을 흩어지게 하며 북쪽 산 아래까지 몰아붙이자, 장합과 서황 두 장수가 황충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황충의 군사들은 이미 오랫동안 포위되어 곤경에 처해 있었다. 조운이 크게 외치며 창을 들고 말을 몰아 포위망 속으로 뛰어들었다. 조운은 좌우로 거침없이 돌파하며 마치 아무도 없는 곳을 다니듯 용맹하게 싸웠다. 그가 휘두르는 창끝은 마치 배꽃이 흩날리는 듯했고, 사방으로 튀는 창끝의 기세는 마치 상서로운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 장합과 서황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겁이 나서 감히 맞서 싸우지 못했다. 조운은 황충을 구해낸 뒤 싸우면서 계속해서 길을 열어 나갔는데,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감히

막아서는 자가 없었다. 조조가 높은 곳에서 이 광경을 보고 놀라 장수들에게 물었다. 「저 자는 대체 누구냐?」 그를 아는 이가 대답했다. 「저분은 상산의 조자룡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옛날 당양 장판파에서 활약하던 영웅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그러고는 급히 명령을 내렸다. 「저 자가 오는 곳마다 절대로 적을 얕보지 마라.」 조운은 황충을 구하고 포위망을 뚫고 나갔는데, 어떤 군사가 「동남쪽에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자는 분명 부장 장착일 것이다」라고 가리켰다. 조운은 본진으로 돌아가는 대신 곧장 동남쪽을 향해 돌격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상산 조운'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진 깃발이 보이자, 과거 당양 장판파에서 그의 용맹을 보았던 이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모두 도망치기 바빴다. 조운은 이어서 장착까지 구해냈다.

조조는 조운이 동서로 거침없이 돌진하며 앞길을 막는 자가 없이 용맹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조운이 황충과 장착을 구출해 내자, 조조는 크게 분노하여 직접 장졸들을 이끌고 조운을 뒤쫓았다. 조운은 이미 적진을 뚫고 본진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부장 장익이 뒤를 살피다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조조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음을 알았다. 장익이 조운에게 말했다. "추격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명하여 진영의 문을 닫고 적루에 올라 방어하게 합시다." 조운이 호통을 쳤다. "진영의 문을 닫지 마라! 내가 예전에 당양 장판파에서 홀로 창 한 자루를 들고 조조의 83만 대군을 풀떼기처럼 여겼던 것을 정녕 모르느냐? 지금은 군사도 있고 장수도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러고는 즉시 궁수들을 진영 밖 해자에 매복시키고, 진영 안의 깃발과 창들을 모두 쓰러뜨리게 한 뒤 북과 징을 치지 못하게 했다. 조운은 말 한 필과 창 한 자루만을 든 채 진영 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한편, 장합과 서황이 군사를 이끌고 촉나라 진영까지 추격했으나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다. 진영 안을 보니 깃발은 내려져 있고 북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게다가 조운이 말 한 필과 창 한 자루만을 든 채 진영 밖에 버티고 서 있으니, 두 장수는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의구심이 들던 차에 조조가 직접 도착하여 급히 모든 군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독려했다. 군사들이 명령을 듣고 크게 함성을 지르며 진영 앞으로 돌격했으나, 조운이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조조의 군사들이 겁에 질려 뒤로 돌아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때 조운이 창을 한 번 휘두르자, 해자 속에 숨어 있던 궁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퍼부었다. 날이 어두워 촉나라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조는 먼저 말을 돌려 퇴각했다. 뒤이어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북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촉나라 군사가 들이닥쳤다. 조조의 군사들은 서로 밟고 엉키며 도망치다가 한수 강가에 이르러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조운, 황충, 장착이 각각 군사들을 이끌고 뒤쫓으며 맹렬히 추격했다. 조조가 급히 도망치던 중, 갑자기 유봉과 맹달이 두 갈래 군사를 이끌고 미창산 길로 나타나 군량과 풀을 불태웠다. 조조는 북산의 군량을 포기하고 서둘러 남정으로 돌아갔다. 서황과 장합도 쉴 새 없이 몰아붙이다가 결국 본진을 버리고 달아났다. 조운은 조조의 진영을 점령했고, 황충은 군량을 확보했으며, 한수에서 얻은 무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큰 승리를 거둔 그들은 사람을 보내 유비에게 승전보를 전했다. 유비는 곧 제갈량과 함께 한수로 가서 조운의 부하들에게 물었다. "조운이 어떻게 싸웠는가?" 군사들이 조운이 황충을 구하고 한수에서 적을 막아낸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산 앞뒤의 험준한 길을 살펴보고는 제갈량에게 즐거운 듯 말

했다. "조운은 참으로 간이 부은 용장이라 할 만하오!" 훗날 사람들은 이 일을 시로 찬양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옛날 장판파에서 떨치던 위풍은 여전하여, 진영을 돌파하며 영웅의 기개를 드러내고 포위 속에서도 용맹을 떨쳤네. 귀신이 울고 신이 통곡하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슬퍼하니, 상산의 조운은 참으로 간이 부은 용장이로다!"

유비는 조운을 호위장군으로 임명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크게 높였고, 저녁 늦도록 잔치를 베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조조가 다시 대군을 보내 사곡의 좁은 길을 통해 한수로 진격해 온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유비가 웃으며 말했다. "조조가 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오. 내가 보니 반드시 한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오." 유비는 즉시 병사를 이끌고 한수 서쪽으로 나가 적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조조는 서황을 선봉으로 삼아 결전을 치르기 위해 진격시켰다. 그때 적진 앞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말했다. "저는 지리에 매우 밝으니, 서 장군을 도와 촉나라 군대를 격파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조조가 그를 살펴보니, 그는 파서(巴西) 탕거(宕渠) 출신으로 성은 왕, 이름은 평, 자는 자균이라 하는데, 현재 아문장군을 맡고 있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왕평에게 부선봉의 직책을 내려 서황을 돕게 했다. 조조는 정군산 북쪽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서황과 왕평이 군사를 이끌고 한수까지 나아가자, 서황은 전군에 강을 건너 진을 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왕평이 말했다. 「만약 군사가 강을 건넜다가 급히 퇴각해야 한다면, 그때는 어찌합니까?」 서황이 대답했다. 「옛날 한신이 강을 등지고 진을 친 것처럼, 이른바 '죽을 자리에 몰아넣어야 비로소

살길을 찾는다'는 것이다.」 왕평이 다시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신이 그런 계책을 쓴 것은 적이 아무런 꾀가 없음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군께서 조운과 황충의 의중을 다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서황이 말했다. 「너는 보병을 이끌고 적을 막아라. 내가 기병을 이끌고 적을 격파하는 것을 지켜보아라.」 말을 마친 서황은 곧바로 부교를 놓게 한 뒤, 강을 건너 촉나라 군사와 맞서 싸우러 나갔다. 위나라 사람들이 한신의 전술을 함부로 흉내 내었으나, 촉의 승상(제갈량)이 곧 장량(자방)임을 어찌 알았으랴. 승부가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2회 — 제갈량이 지혜로 한중을 취하고, 조아만이 병사를 거두어 사곡에서 물러나다

諸葛亮智取漢中 曹阿瞞兵退斜谷

한편, 서황이 군사를 이끌고 한수를 건넜다. 왕평이 간곡히 만류했으나 서황은 듣지 않고 한수를 건너 진을 쳤다. 이를 본 황충과 조운이 유비에게 고했다. "저희가 각자 부대를 이끌고 나가 조조의 군사를 맞이하겠습니다." 유비가 허락하자 두 사람은 곧장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황충이 조운에게 말했다. "지금 서황은 자신의 용맹을 믿고 기세등등하게 왔으니, 우선 적과 싸우지 말고 기다립시다. 해가 저물어 병사들이 지칠 때쯤 우리가 두 갈래로 나누어 공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조운이 이에 동의하자, 두 사람은 각자 군사를 나누어 진영을 구축하고 대기했다.

서황은 아침 7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계속해서 전투를 청했으나, 유비의 군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서황은 결국 궁수들을 앞으로 보내 유비의 진영을 향해 화살을 퍼붓게 했다. 이때 황충이 조운에게 말했다. "서황이 궁수들에게 화살을 쏘게 하는 것을 보니, 저들의 군대가 곧 물러갈 모양입니다. 이 기회를 틈타 공격합시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조군의 후방 부대가 정말로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 즉시 유비군의 북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황충은 왼쪽으로, 조운은 오른쪽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양쪽에서 협공을 퍼부었다. 서황은 대패하여 군사들이 한수로 밀려 들어갔고, 죽은 자가 부지기수였다. 서황은 죽을힘을 다해 싸운 끝에 겨우 목숨을 건져 돌아왔다. 그는 진영으로 돌아오자마자 왕평을 꾸짖었다. "네놈은 우리 군의 형세가 위태로운 것을 보고도 어찌 구하러 오지 않았느냐!"

왕평이 대답했다. "제가 구하러 왔더라도 이 진영을 지켜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일찍이 장군께 건너가지 마시라고 간언했으나 듣지 않으셨기에 이런 패배를 맞이한 것입니다." 서황이 크게 노해 왕평을 죽이려 하자, 왕평은 그날 밤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진영에 불을 질러 버렸다. 조조의 군대는 큰 혼란에 빠졌고, 서황은 결국 진영을 버리고 도망쳤다.

왕평은 한수를 건너 조운에게 투항했고, 조운은 그를 유비에게 인도했다. 왕평은 한수의 지리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왕평을 얻었으니, 한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의심

할 여지가 없구나." 유비는 곧 왕평을 편장군으로 임명하고 향도사라는 직책을 맡겼다.

한편, 서황은 도망쳐 조조에게 돌아가 왕평이 유비에게 투항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조는 크게 노하여 직접 대군을 이끌고 한수의 진영을 탈환하러 나섰다. 조운은 홀로 남겨진 군대가 버티기 어려울까 걱정되어, 결국 한수 서쪽으로 퇴각했다. 양측 군대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었다. 유비와 제갈량이 나타나 형세를 살피는데, 제갈량이 한수 상류 쪽을 보니 흙으로 된 산줄기가 하나 있어 천여 명의 군사를 매복시키기에 적당해 보였다. 제갈량은 곧장 진영으로 돌아가 조운을 불러 지시했다. "그대는 오백 명의 병사를 이끌고 북과 나팔을 모두 챙겨 저 흙산 아래에 매복하게 하시오. 한밤중이든 해 질 녘이든, 우리 진영에서 대포 소리가 들리면 대포가 한 차례 울릴 때마다 북도 한 차례 울리게 하되, 절대로 먼저 싸우러 나가서는 안 되오." 조운은 계책을 받들어 물러갔다. 제갈량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몰래 상황을 살폈다.

다음 날, 조조의 군대가 쳐들어와 싸움을 걸었으나 촉나라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화살 하나 날아오지 않았다. 조조의 군대는 스스로 물러갔다. 그날 밤 깊은 시간이 되어 제갈량이 조조의 진영에서 등불이 꺼지고 병사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신호를 보냈다. 조운이 그 신호를 듣고 북과 나팔을 일제히 울리게 했다. 조조의 군사들은 진영이 습격당한 줄 알고 혼비백산했다. 막 진영 밖으로 나가보니 적군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막 진영으로 돌아가 쉬려는데, 다시 신호가 울리고 북과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함성 소리가 땅을 흔들고 산골짜기까지 울려 퍼졌다. 조조의 군사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사흘

밤낮을 계속해서 놀라움과 의심 속에 보낸 조조의 군사들은 마음이 위축되고 겁에 질려, 진영을 옮겨 30리나 떨어진 넓은 곳으로 물러가 진을 쳤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조조가 비록 병법은 알지만, 기만술은 모르는군요." 그러고는 유비에게 직접 한수를 건너 배수진을 치자고 청했다. 유비가 계책을 묻자 제갈량이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조조는 유비가 한수를 등지고 진을 친 것을 보고 의구심이 생겨, 사람을 보내 도전장을 내밀게 했다. 제갈량은 다음 날 결전을 치르자고 답했다. 이튿날, 양측 군대는 중로 오계산 앞에서 만나 진을 쳤다. 조조는 말에 올라 깃대 아래 섰고, 양옆으로는 용과 봉황이 그려진 깃발을 늘어놓았다. 북을 세 번 울리며 유비의 대답을 촉구했다. 유비는 유봉, 맹달, 그리고 익주 지역의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나아갔다.

조조가 채찍을 휘두르며 크게 꾸짖었다.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린 채, 조정에 반기를 든 유비는 도적이다!"

유비가 말했다. "나는 한나라 황실의 종친으로서, 어명을 받들어 도적을 토벌하러 왔다. 그대는 위로 황후를 시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며, 천자의 수레를 함부로 사용했으니, 이것이 반역이 아니고 무엇인가?"

조조는 화가 나 서황을 내보내 싸우게 했다. 유봉이 맞서 나갔으나, 싸우던 중 서황을 막아내지 못하자 말을 돌려 급히 도망쳤다. 조조가 명령했다. "유비를 잡는 자에게는 서천의 왕 자리를 주겠다!"

대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진영을 들이쳤다. 촉나라 군사들은 한수를 등진 채 앞다투어 도망치느라 진영을 모두 버렸고, 말과 무기도 길 위에 가득 널브러졌다. 조조의 군사들이 이를 차지하려고 달려들자, 조조가 급히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게 했다. 장수들이 물었다. "저희는 지금 유비를 잡으려던 참인데,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군사를 거두라 하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촉나라 군사가 한수를 등지고 진을 친 것은 첫 번째 의심스러운 점이고, 말과 무기를 이토록 많이 버리고 간 것은 두 번째 의심스러운 점이다. 급히 퇴각해야 하니, 옷가지 같은 것은 탐내지 마라."

이어 조조가 명령했다. "물건을 함부로 챙기는 자는 즉시 처단하라. 신속히 퇴각한다!"

조조의 군사들이 막 몸을 돌리려 할 때, 제갈량이 깃발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유비가 이끄는 중앙 부대가 튀어나왔고, 황충은 왼쪽에서, 조운은 오른쪽에서 들이닥쳤다. 조조의 군대는 대패하여 흩어졌고, 제갈량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추격했다.

조조는 군대에 명령을 내려 남정으로 회군하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다섯 갈래로 불길이 치솟았다. 알고 보니 위연과 장비가 엄안을 대신 세워 낭중을 지키게 한 뒤, 병력을 나누어 습격해 온 것이었다. 그들은 먼저 남정을 점령했다. 조조는 깜짝 놀라 양평관을 향해 달아났다. 유비의 대군도 남정과 보주까지 추격해 왔다.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조조가 이토록 빠르게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조조는 평생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비록 병법에는 능하나, 의심이 생기면 곧 패하게 마련이지요. 저는 의심을 일으키는 계책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유비가 다시 물었다.

"이제 조조가 양평관으로 물러나 지키고 있으니 그 기세가 이미 고립되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어떤 계책으로 그를 완전히 물리치겠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이미 다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장비와 위연에게 명령하여 두 갈래로 나누어 조조의 군량길을 끊게 하고, 황충과 조운에게도 두 갈래로 나누어 산에 불을 지르게 했다. 네 갈래로 나뉜 장수들은 각자 부하들을 이끌고 출정했다.

한편, 조조는 양평관으로 퇴각하여 군사들에게 정찰을 명했다. 정찰병이 돌아와 보고했다. "지금 촉나라 군사들이 근처의 작은 길들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땔감을 구하러 갈 만한 곳에는 불을 질러버려,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조가 의구심을 품고 있을 때, 이번에는 장비와 위연이 병력을 나누어 군량을 습격했다는 보고가 들

어왔다. 조조가 물었다. "누가 감히 장비를 막겠느냐?" 그러자 허저가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조조는 허저에게 정예병 천 명을 주어 양평관으로 가는 길목에서 군량을 호송하게 했다.

군량을 관리하는 관리가 마중을 나오며 기뻐하며 말했다. "장군께서 이곳에 오지 않으셨다면, 군량은 양평관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수레에 실린 술과 고기를 허저에게 대접했다. 허저는 술을 들이켜다 자신도 모르게 크게 취해버렸고, 술기운에 흥이 난 나머지 군량 수레를 재촉했다. 관리이 말했다.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앞쪽 보주 지역은 산세가 험악하니 지금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허저가 말했다. "내게는 만 명을 상대할 용맹이 있는데 어찌 남을 두려워하겠느냐! 오늘 밤 달빛을 빌려 군량 수레를 움직이면 딱 좋겠다." 허저는 앞장서서 칼을 옆으로 차고 말을 달려 군사를 이끌고 전진했다.

밤이 깊어 이경(二更)이 지난 뒤, 그들은 보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다. 길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산골짜기에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하늘을 뒤흔들며 한 무리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 선두에 선 장수는 바로 장비였다. 장비는 창을 겨누고 말을 달려 곧장 허저를 덮쳤다. 허저가 칼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으나, 술에 취한 탓에 장비를 당해내지 못했다. 몇 합을 겨루지 못해 허저는 장비의 창에 어깨를 찔린 채 말에서 떨어졌다. 부하들이 급히 그를 구해 뒤로 물러나 도망치자, 장비는 군량 수레와 물자를 모두 빼앗아 돌아갔다.

한편, 장수들은 허저를 보호하며 조조에게 돌아갔다. 조조는 의사를 불러 금창을 치료하게 하는 한편,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와 촉나라 군대와 결전을 벌였다.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맞서 나오자 양 진영이 마

주 보게 되었다. 유비는 유봉을 출전시켰다. 조조가 꾸짖으며 말했다. "신발이나 팔던 애송이 놈! 늘 양아들이나 내세워 적을 막는구나! 내가 만약 황수아를 불러온다면, 네 양아들은 고기떡이 되고 말 것이다!" 유봉은 크게 분노하여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곧장 조조를 덮쳤다. 조조가 서황을 보내 맞서게 했으나, 유봉은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달아났다. 조조가 병사를 이끌고 추격하려는데, 촉나라 군영 사방에서 포성 소리가 들리고 북과 나팔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다. 조조는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급히 군대를 물렸다. 조조의 병사들은 서로 밟고 엉키며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 양평관으로 도망쳐 겨우 숨을 돌리려는데, 촉나라 군사가 성 밑까지 들이닥쳤다. 동문에는 불이 나고 서문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왔으며, 남문에는 불이 나고 북문에서는 북소리가 울렸다. 조조는 크게 겁에 질려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촉나라 군사가 뒤를 쫓아 추격해 왔다. 조조가 도망가는 길 앞에서는 장비가 이끄는 한 무리의 병사가 길을 막아섰고, 조운이 이끄는 병사는 뒤에서 습격해 왔으며, 황충 또한 병사를 이끌고 포주 쪽에서 몰려왔다. 조조는 대패하였다. 장수들은 조조를 보호하며 험한 길을 뚫고 도망쳤다. 겨우 사곡 입구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앞쪽에서 먼지 구름이 일더니 한 무리의 병사가 나타났다. 조조가 말했다. "만약 저 군사가 매복병이라면 나는 이제 끝장이로다!" 하지만 병사들이 가까이 다가오니, 그는 바로 조조의 차남인 조창이었다.

조창은 자가 자문으로, 어릴 때부터 말 타기와 활쏘기에 능했다. 힘이 남달라 맨손으로 맹수를 잡을 정도였다. 조조가 일찍이 그를 경계하며 말했다. "너는 책은 읽지 않고 활쏘기와 말타기만 좋아하니, 이는 필부의 용맹일 뿐인데 어찌 귀하게 여기겠느냐?" 그러자 조창이 대답

했다. "대장부라면 마땅히 위청이나 곽거병처럼 배워 사막에서 공을 세우고, 수십만 대군을 이끌며 천하를 종횡무진해야 합니다. 어찌 박사가 되어 글이나 읽겠습니까?" 조조가 여러 아들에게 각자의 뜻을 물었을 때도 조창은 "장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조가 "장수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묻자, 조창은 "갑옷을 갖춰 입고 날카로운 무기를 든 채, 어려움 앞에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장서서 병사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상을 줄 때는 반드시 주고, 벌을 줄 때는 반드시 엄격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조조는 이를 듣고 크게 웃었다.

건안 23년, 대군 지역의 오환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조는 조창에게 5만 군사를 주어 토벌하게 했다. 떠나기 전 조조가 그에게 당부했다. "집에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이요, 일을 맡으면 임금과 신하가 되는 법이다. 법은 사사로운 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니, 너는 이를 깊이 명심해야 한다." 조창은 대북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앞장서서 싸워 상건까지 진격했고, 북쪽 지역을 모두 평정했다. 그러다 조조가 양평관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를 도우러 달려왔다. 조조는 조창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나의 황금 수염 아들이 왔으니, 유비를 반드시 격파하겠구나!" 조조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가 사곡 경계에 진영을 쳤다.

어떤 이가 유비에게 조창이 왔다고 보고했다. 유비가 물었다. "누가 감히 나가서 조창과 싸우겠느냐?" 유봉이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맹달 또한 자신이 가겠다고 나섰다. 유비가 말했다. "너희 둘이 함께 나가서 누가 공을 세우는지 보아라." 두 사람은 각각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맞이하러 나갔는데, 유봉이 앞장서고 맹달이 뒤를 따랐다. 조창이 말을 타고 나와 유봉과 싸웠으나, 단 세 합 만에 유봉이 크게 패하여 돌아왔다. 맹달이 병사를 이끌고 전진하며 막 맞붙으려던 찰나, 조조의 군대가 크게 혼란에 빠진 것이 보였다. 알고 보니 마초와 오란의 두 군대가 습격해 오는 바람에 조조의 군사들이 겁에 질려 움직인 것이었다. 맹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사를 이끌어 협공했다. 마초의 군사들은 오랫동안 전력을 길러온 터라, 이곳에 와서 기세를 떨치니 그 기세가 막을 수 없을 정도였다. 조조의 군사는 패하여 달아났다. 조창은 마침 오란과 마주쳤는데, 두 사람이 맞붙어 몇 합 싸우지 않아 조창이 창으로 오란을 말 아래로 찔러 쓰러뜨렸다. 삼군이 뒤섞여 난전이 벌어졌다. 조조는 군사를 거두어 사곡 경계에 진을 쳤다.

조조가 군대를 주둔시킨 지 오래되어 진격을 하려 해도 마초가 길목을 지키며 막아서고, 그렇다고 군대를 거두어 돌아가려니 촉나라 군사들에게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마침 요리사가 닭곰탕을 올렸는데, 조조가 그릇 안에 담긴 닭갈비를 보고는 문득 깊은 생각에 잠겼다.

조조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후돈이 막사로 들어와 밤에 사용할 구호를 여쭈었다. 조조가 무심결에 "닭갈비! 닭갈비!"라고 대답하자, 하후돈은 명령을 내려 모든 장수와 병사들에게 구호를 "닭갈비"라고 부르게 했다.

그런데 행군 주부인 양수가 "닭갈비"라는 구호가 전해지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수행하는 군사들에게 짐을 챙겨 귀환할 준비를 하라고 시

켰다. 이 소식을 들은 누군가가 하후돈에게 보고하자 하후돈은 크게 놀라 양수를 막사로 불러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짐을 챙기는가?"

양수가 대답했다.

"오늘 밤의 구호를 보니, 위왕께서 머지않아 군대를 거두어 돌아가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닭갈비란 먹자니 고기가 없고 버리자니 아쉬운 법입니다. 지금 진격해도 이길 수 없고, 물러가자니 남들의 비웃음이 두려우니, 이곳에 머물러 봐야 이득이 없습니다. 차라리 일찍 돌아가는 편이 낫습니다. 내일이면 위왕께서 반드시 군대를 거두실 것이니, 미리 짐을 챙겨두어야 나중에 급히 떠날 때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후돈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대는 참으로 위왕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구려!"

하후돈 역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진영 안의 모든 장수가 예외 없이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그날 밤, 조조는 마음이 어지러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강철 도끼를 손에 들고 몰래 진영 주변을 돌아보는데, 하후돈의 진영에서 군사들이 저마다 짐을 챙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조조는 깜짝 놀라 급히 막사로 돌아가 하후돈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하후돈이 대답했다.

"주부 양덕조가 대왕께서 돌아가시려는 뜻을 미리 알아차렸습니다."

조조가 양수를 불러 이유를 묻자, 양수는 닭갈비의 의미를 들어 대답했다. 조조가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네 이놈! 감히 함부로 말을 지어내어 우리 군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다니!"

조조는 즉시 도끼를 든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양수를 끌어내어 처형하게 하고, 그의 머리를 원문(轅門) 밖에 내걸어 군사들에게 본보기로 삼았다.

알고 보니 양수는 재능을 믿고 행동이 거침이 없어 조조의 눈 밖에 나는 일이 잦았다. 한번은 조조가 화원을 하나 만들었는데, 완공된 화원을 구경하러 간 조조는 별다른 칭찬이나 비판도 없이 문 위에 붓으로 '살 활(活)' 자 하나만 쓰고 떠나버렸다. 사람들은 모두 그 뜻을 알지 못해 어리둥절해했다. 그때 양수가 말했다. "'문(門)' 자 안에 '살 활(活)' 자를 더하면 '넓을 활(闊)' 자가 됩니다. 승상께서 정원의 문이 너무 넓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조조는 담장을 다시 쌓아 울타리를 만들었다. 공사를 마친 뒤 다시 조조를 모셔 구경시켜 드리자,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누가 내 뜻을 알았느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양수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조조는 양수의 재능을 칭찬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를 몹시 경계했다.

또 어느 날, 북쪽 변방에서 과자 한 상자가 들어왔다. 조조가 상자 위에 직접 '일합소(一合酥, 과자 한 상자)'라고 세 글자를 써서 책상 위에 두었다. 양수가 들어와 이를 보더니, 아예 숟가락을 가져와 사람들

과 나누어 먹어 치웠다. 조조가 그 이유를 묻자 양수가 대답했다. "상자에 분명히 '한 사람이 한 입 먹을 과자(一人一口酥)'라고 적혀 있는데, 어찌 감히 승상의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조조는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으나, 속으로는 그를 몹시 혐오했다.

조조는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하여, 평소 좌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는 꿈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버릇이 있다. 그러니 내가 잠들었을 때는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마라."

어느 날, 조조가 낮잠을 자다가 이불이 땅에 떨어졌다. 이를 본 근시 한 명이 당황하여 얼른 이불을 덮어주려 했다. 그러자 조조가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 그를 베어 버리고는 다시 침상에 올라 잠을 청했다. 잠시 후 깨어난 조조가 짐짓 놀란 체하며 물었다. "누가 내 근시를 죽였느냐?" 사람들이 사실대로 말하자, 조조는 통곡하며 그를 후하게 장사 지내 주라고 명했다.

사람들은 모두 조조가 정말 꿈속에서 사람을 죽인 것이라 믿었으나, 오직 양수만이 그 속뜻을 알아차렸다. 양수는 장례가 치러질 때 죽은 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탄식하며 말했다. "승상께서는 꿈속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가 꿈속에 있었던 것이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양수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조조의 셋째 아들 조식은 양수의 재능을 무척 아껴서, 늘 그를 불러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조조는 여러 사람과 상의한 끝에 조식을 후계자로 세우고자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비는 몰래 조가현(朝歌)의 현령인 오질을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여 함께 상의하려 했

다. 조비는 혹시라도 누군가 눈치챌까 두려워, 커다란 궤짝 안에 오질을 숨겨놓고는 비단 뭉치가 들어있다고 속여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양수가 이 일을 알아채고는 곧장 조조에게 달려가 사실대로 고했다. 조조는 사람을 시켜 조비의 집 문 앞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살피게 했다. 조비는 당황하여 오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오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다시 비단을 담은 커다란 궤짝을 들여보내 그들을 속입시다."라고 말했다. 조비는 그 말대로 비단을 가득 담은 궤짝을 들여보냈다. 심부름꾼이 궤짝 안을 조사해 보니 정말로 비단이 들어있었고, 이를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는 양수가 조식을 위해 조비를 모함하고 해치려 한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조조는 조비와 조식의 재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어느 날, 두 아들에게 각각 업성 문 밖으로 나가 보라고 명한 뒤, 몰래 사람을 보내 문지기들에게 누구도 내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조비가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문지기들이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조비는 발길을 돌려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식이 양수에게 물었다. 양수가 대답했다. "왕명을 받들어 나가는 것이니, 만약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베어버려도 됩니다." 조식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조식이 성문에 이르자 문지기들이 다시 길을 막았다. 조식이 크게 꾸짖으며 외쳤다. "나는 왕명을 받들어 나가는 길이다. 누가 감히 나를 막느냐!" 그러고는 즉시 문지기를 베어버렸다.

이 일을 본 조조는 조식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누군가 조조에게 "이 모든 것은 양수가 가르쳐준 일입니다"라고 고하자, 조조는 크게 노하여 그 뒤로 조식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양수는 또한 조식을 위해 열 가지가 넘는 답변 지침을 만들어 주었는데, 조조가 질문을 던지면 조식은 곧바로 그 지침에 따라 대답하곤 했다. 조조가 군사나 국가의 대사를 물을 때마다 조식이 막힘없이 대답하니, 조조는 마음속으로 깊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후 조비가 몰래 양수의 측근들을 매수하여, 조식이 작성한 답변 지침을 훔쳐 조조에게 고했다. 이를 알게 된 조조는 크게 노하며 외쳤다. "이 미천한 놈이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당시 조조는 이미 양수를 죽일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번에 군대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는 죄를 빌미 삼아 그를 처형했다. 양수는 서른네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기리며 지은 시가 다음과 같다.

"총명한 양덕조는 대대로 명문가에서 태어나, 붓끝에는 용과 뱀이 노닐 듯 글재주가 뛰어나고 가슴 속에는 비단 같은 문장이 가득했네. 이야기를 시작하면 좌중을 놀라게 하고, 질문에 답할 때는 영웅들 중에서도 으뜸이었건만, 재능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으니, 이는 군대를 물러나게 하려 한 죄 때문이 아니었도다."

조조는 양수를 죽인 뒤, 하후돈에게 거짓으로 노한 척하며 그 역시 베려 하였다. 그러나 여러 관리들이 간곡히 만류하여 겨우 면할 수 있

었다. 조조는 하후돈을 꾸짖어 물러나게 한 뒤, 다음 날 군사를 진격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음 날, 군대가 사곡의 경계로 나아가자 앞쪽에서 한 부대가 마중을 나왔는데, 그 선두에 선 대장은 바로 위연이었다. 조조가 위연에게 항복하라고 권했으나, 위연은 크게 꾸짖으며 거절했다. 조조가 방덕을 내보내 싸우게 했다. 두 장수가 한창 격렬하게 맞붙고 있을 때, 갑자기 조조의 진영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사람들이 달려와 마초가 조조군의 중간과 후방 진영 두 곳을 습격했다고 보고했다. 조조가 칼을 뽑아 들고 외쳤다. "퇴각하는 장수는 누구든 베겠다!" 그러자 장수들이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위연은 일부러 패한 척하며 도망쳤고,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마초를 치기 위해 돌아갔다. 조조는 높은 언덕 위에 말을 세우고 두 군대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가 눈앞까지 달려들더니 크게 소리쳤다. "위연이 여기 있다!" 그들은 활을 당겨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이 조조에게 명중했다. 조조는 말에서 떨어졌다. 위연이 활을 버리고 칼을 든 채 말을 몰아 언덕 위로 달려와 조조를 죽이려 했다. 그때 한 장수가 옆에서 튀어나오며 외쳤다. "우리 주군을 해치지 마라!" 자세히 보니 바로 방덕이었다. 방덕은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 위연을 싸움에서 물리치고 조조를 보호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마초는 이미 물러난 뒤였다. 조조는 부상을 입은 채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위연의 화살에 코 중앙을 맞아 앞니 두 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조조는 급히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다. 그러다 문득 양수의 말을 떠올리고는, 양수의 시신을 거두어 정중히 장사 지낸 뒤 곧바로 군대를 돌려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방덕에게는 후방을 지키며 퇴로를 차단하라는 임무를 맡겼다. 조조는 덮개를 친 수레

안에 누워 있었고, 좌우로는 호분군이 호위하며 나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사곡 산 양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들이닥쳤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 공포에 질렸다.

옛날 동관에서 겪었던 재앙이 떠오르고, 마치 그 시절 적벽에서의 위기가 되풀이되는 듯하구나.

과연 조조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